금주의 법구-〈대애도비구니경〉
술은 독약이고 독수이다.
모든 잘못의 시초며 악의 근본이다.
술은 화를 부르는 근본이다.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49호 hyunbulnews.com (불기 2567년 음력 7월 15일) 2023년 8월 30일 수요일



"아시안게임 금의환향 기원"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국가대표 선수들을 격려했다. 스님은 8월 23일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을 방문해 아시안게임 선전과 선수들의 건강을 기원했다. 사진은 진우 스님이 탁구 국가대표 선수들과 기념촬영한 모습. **사진=조계종 홍보국**

1주년 앞둔 조계종 제37대 집행부 대규모 개각

8월 24일 임명… 사실상 2기 출범해
총무부장 성화 · 문화부장 혜공 스님
사회부장 도심 · 사서실장 진경 스님
산하기관장 인선도…기획실장 공석
재무 · 호법 · 사업부장 유임 결정돼


성화 스님 혜공 스님 도심 스님 진경 스님 서봉 스님 호암 스님 묘장 스님 탄하 스님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출범 1주년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조계종 제37대 집행부가 각 부실장 교체를 통해 대규모 개각에 나섰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8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총무 · 문화 · 사회 · 사서 등 각 부 · 실장을 비롯해 불교중앙박물관장, 불교문화재연구소장,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등을 새로 임명하며 사실상 집행부 2기 진용을 꾸렸다.

수석부장인 총무부장에는 지난 1년간 기획실장 소임을 맡은 성화 스님이 임명됐다. 前 총무부장 호산 스님이 25교구본사 봉선사 주지후보 등록을 위해 사임하면서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한 인사로 풀이된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성화 스님이 기획실장 소임을 맡아 의도를 잘 파악하고 기대에 부응했기에 총무부장으로 영전하게 됐다"며 "수석부장으로서 부 · 실장과 산하기관장들의 화합을 이끌어 업무에 차질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성화 스님은 "37대 집행부 주요 종책이 이뤄져서 한국불교가 중흥하도록 총무원을 스마트한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신임 문화부장은 중앙종회의원(봉선사)이던 혜공 스님, 사회부장은 종교평화위원회 위원장으로 오랫동안 활동해온 도심 스님이 임명됐다. 또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처장을 맡고 있던 진경 스님이 사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최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장을 겸직하게 된 재무부장 우하 스님을 비롯해 호법부장 현민 스님과 사업부장 주혜 스님은 각각 유임됐다.

산하기관장으로는 불교중앙박물관장에 직전 사서실장이었던 서봉 스님, 불교문화재연구소장에 호암 스님,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에 묘장 스님이 임명됐으며, 종단협 사무처장은 탄하 스님, 복지재단 사무처장은 덕운 스님이 맡게 됐다.

진우 스님은 임명장 수여 후 "37대 집행부가 들어선 이후 거의 1년 만에 제2기 집행부를 구성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지금 한국불교는 굉장한 위기에 처해 포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출가자 감소에도 직면했다"며 "그럼에도 근래에 종단이 안정화돼 이때에 역량을 강화하고 불교 위상을 바로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또 "2기 집행부 스님들은 개인적인 수행도 중요하고 소속 사찰 소임도 중요하지만 거시적인 차원에서 더 힘을 내길 바란다"며 "서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종단이 안정되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 종도들의 기대에 부응하자"고 당부했다.

이번 인사에서 제외된 기획실장은 중앙종회 임시회 전까지 당분간 공석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부 · 실장 교체가 이뤄짐에 따라 국장단 인사도 수일 이내에 큰 폭으로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총무부장 성화 스님은 정우 스님을 은사로 1994년 수계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업국장, 제16 · 17대 중앙종회의원, 총무원 기획실장을 역임하고 현재 장안사 주지를 맡고 있다.

문화부장 혜공 스님은 일관 스님을 은사로 2001년 수계했다. 미륵암 주지, 제18대 중앙종회의원, 종책특별보좌관(문화특보)을 역임하고 현재 용암사 주지를 맡고 있다.

사회부장 도심 스님은 성혜 스님을 은사로 1999년 수계했다. 총무원 호법부 조사국장 기획실 기획국장, 제16 · 17 · 18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하고 현재 성불사 주지를 맡고 있다.

사서실장 진경 스님은 현호 스님을 은사로 1992년 수계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제17대 중앙종회의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처장을 역임하고 현재 법련사 주지를 맡고 있다.

불교중앙박물관장 서봉 스님은 대원 스님을 은사로 1989년 수계했다. 학림사 주지, 교육원 교육부장, 사서실 사서실장을 역임했다.

불교문화재연구소장 호암 스님은 계성 스님을 은사로 1999년 수계했다. 유가사 주지, 불교문화재연구소 부소장을 역임하고 현재 제18대 중앙종회의원, 인각사 주지를 맡고 있다.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묘장 스님은 법등 스님을 은사로 1991년 수계했다. 도리사 주지, 학도암 주지, 총무원 사회부 사회국장, 제17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하고 현재 제18대 중앙종회의원과 연화사 주지를 맡고 있다.

사회복지재단 사무처장 덕운 스님은 무문 스님을 은사로 1994년 수계했다. 총무원 사회부 사회국장,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및 사업국장을 역임하고 현재 제18대 중앙종회의원과 석남사 주지를 맡고 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처장 탄하 스님은 자승 스님을 은사로 1991년 수계했다. 성조암 주지를 역임하고 제18대 중앙종회의원과 정수사 주지를 맡고 있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 국악인재 불사 나선다

중구청과 첫 국악경연대회 개최
9월 1~2일 양일간 동국대서
기악, 성악, 타악 부문 경연
'종합대상'에 1000만원 상금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 이하 은정불교진흥원)이 국악 진흥과 젊은 국악인 양성을 위해 경연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한다.

은정불교진흥원과 서울 중구청(구청장 김길성)은 "9월 1~2일 양일간 제1회 은정전통예술국악경연대회를 동국대 서울캠퍼스에서 개최한다"고 8월 21일 밝혔다. 이번 경연대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학교법인 동국대가 공동 후원하며 참가 접수는 8월 25일까지 받았다.

경연은 △기악 부문(가야금, 거문고, 아쟁, 해금, 대금, 피리) △성악 부문(판소리, 경서도 민요, 가야금병창, 정가) △타악 부문(사물놀이, 농악, 무속가락)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 대회 예선은 9월 1일 10시 30분부터 동국대 문화관에서, 본선 · 종합대상 경연은 9월 2일 오후 1시부터 동국대 본관 중강당에서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경연 시간은 각각 예선 7분 이내며, 본선 · 결선 10분 이내다. 기악과 성악 부문은 전통음악 중 자유곡을 연주하면 되고, 타악 부문은 사물놀이, 농악, 무속 중 자유롭게 선택하여 연주하면 된다.

참가자격은 1990년 1월 1일 이후 출생인 국악 · 한국음악 전공자 가운데 접수마감일 기준 전국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심사기준은 기악의 경우 연주력 50%, 표현력 30%, 음정 · 박자 20%다. 성악은 가창력 50%, 표현력 30%, 음정 · 박자 30%이고, 타악은 연주력 60%, 표현력 40%의 비율로 점수를 매긴다. 4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합산점수를 기준으로 각 부문별 본선에 진출할 5명을 선발하며, 본선 부문별 최고 득점자는 본선 결과 발표 후 종합 대상을 위한 경연을 추가적으로 진행한다.

종합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수상자에게는 1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기악 · 성악 · 타악 부문별 최우수상인 중구청장상에는 각 상금 100만원이 수여된다. 또한 우수상(동국대 이사장상)에는 상금 50만원, 장려상(은정문화재단 이사장상) 상금 30만원이 전달된다.

은정불교진흥원은 "이번 경연대회는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아시아 최초의 국립극장인 '국립극장' 남산 이전 50주년과 동국대 한국음악과의 신설을 기념해 열린다"며 "젊은 국악인들의 축제의 장이 될 이번 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YouTube 세계종교문화축제

2023년 / 제15회
세계종교문화축제

9.12.(화) ~ 9.16.(토)

본 행 사 09.12.(화) 19:00 여는 마당 / 전라감영지
09.12.(화)~09.16.(토) 세계명상걷기(순례)대회
09.16.(토) 18:30 닫는 마당

부대행사 09.01.(금)~09.02.(토) 세계종교포럼
09.14.(목)~09.15.(금) 나는 쉬고싶다(템플스테이)

참여문의 063)278-1101

"가족사진"
FAMILY PORTRAIT



주최 전라북도 주관 세계종교문화축제 조직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전주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다비, 국가무형유산 가치 인정받아야”

다비작법보존회, 8월 24일 제1회 학술대회

보광 스님 “무형문화재 발의를”
‘다비 작법 상조회’ 설치 제안도
“전승자 양성…포교의 한 방편”
진우 스님 “전승 노력 적극 지원”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입적한 스님의 법구를 화장하는 불교 장례의식으로 삼국시대 불교 전래와 더불어 자연스레 한국 전통문화로 정착해 전승된 다비. 다비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조명하고 다비의 현 실태와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다비작법보존회(회장 현법)는 8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1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가 공동주최한 이번 학술대회는 ‘무형문화유산으로서 다비의 가치와 전승’을 주제로 진행됐다.

다비는 단순히 육신을 태우는 화장이 아니라 죽음의 순간조차 깨달음의 기회로 맞이하는 한국 승가의 수행 정신이 담겨 있다. 근래에 와서 다비는 비정례적으로 일부 큰스님의 입적 때만 봉행됨에 따라 전수자가 부족하고 설행 기록도 부재해 전승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이번 학술대회는 다비의 전승을 위해 학술적 · 문화유산적 가치를 조명하고 국가무형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초석을 만들고자 마련됐다.

이날 발제자들은 “사찰마다 독자적인 방식으로 설행되던 다비가 현재 전수자가 드물어 전승이 끊길 위기에 처해있다”면서 보존과 전승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비의 학술적 · 문화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불교문화유산을 넘어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특히 조계종 호계원장 보광 스님은 ‘불교장례문화 보존 가치’를 주제로 한 기조발제에서 불교장례의식 및 다비식을 무형문화재로 발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광 스님은 “우리나라 전통 장례문화가 사라져가고 있는 이때, 15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불교의 다비의식이 원형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우리 장례의식 중 오직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은 불교 다비의식마저 사라져버린다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장례의식은 완전히 없어지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비의식만을 분리해서 볼 것이 아니라 불교장례의식과 명정(銘旌)도 보존하고 다비의식과 함께 아우르는 전반적인 불교장례의식을 무형문화재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면서 “전통종단인 조계종단과 긴밀한 교류로 공동 연구해 종단적인 차원에서 불교장례의식 및 다비식을 무형문화재로 발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황근식 동국대 교수는 발제 ‘다비의 현 실태와 개선방향’에서 종단 총무원 산하 부설 혹은 독립된 기관으로 ‘다비작법 상조회’의 설치 운영 방안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다비 작법 상조회’ 설치를 통해 전통 다비의 실효성 있는 전승과 보존, 지속적인 발굴 및 복원, 다비 의례 연구뿐 아니라 승려복지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스님들의 다비 지원금 및 복지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

이와 함께 △재가자의 불교식 장례 진행을 통한 관심과 포교 △다비와 불교식 장례를 통한 화합과 단합의 구심점 역할 △불교 전문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설치와 장례지도사 및 다비 전승자 양성 △불교 장례 및 다비 의례 연구로 통일된 불교 의례 보급 △재가자 중 무연고자나 기초생활수급자의 무료 장례지원 등을 기대효과로 설명했다.

이 밖에도 학술대회에서는 조준호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가 ‘초기불교의 다비’를, 구미래 불교민속연구소장이 ‘한국 장례문화의 흐름과 다비’를, 이성운 동방대학교 교수가 ‘귀환의 몸짓에 밴 언어의 미학’을 주제로 발제했다.

학술대회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포교부장 선업 스님이 대독한 치사에서 “사부대중의 원력과 정진으로 다비가 보존하고 전승해 나가야 할 우리의 소중한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길 바란다”면서 “종단의 책임자로서 소중한 문화유산이 단절되지 않고 후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다비작법보존회는 불교전통문화 다비의 보존과 계승이 불교의 당면 과제라는 인식하에 2022년 5월 다비작법보존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총 11차례 실무자 회의, 2차례 상임위원 소재 사찰 방문, 3차례 추진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3년 3월 30일 발족식을 가졌다. 이번 학술대회를 기점으로 향후 다양한 학술활동 및 전승자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신청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구족계 안 받아온 스님들 구제 될까

‘특별구족계 수계산림법’ 조계종 총무원 입법예고

개인적인 사유로 장기간 구족계를 수지하지 않고 예비승인 사미 · 사미니계에 머물러 있는 스님들을 위해 조계종이 특별구족계 수계산림 도입에 나섰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은 사미 · 사미니계 수지 후 오랫동안 구족계를 수지하지 않은 스님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구족계 수계산림 시행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특별법은 여법한 수행풍토 환경을 조성하고, 특별법 대상이 되는 스님들이 종단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종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특별구족계 수계 대상자는 1990년 12월 31일까지 또는 1991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사미 · 사미니계를 수지한 스님이다. 이처럼 구분한 것은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계를 수지한 스님은 종사 이하의 법계까지 자동품수하도록 법계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후 출가자는 현행법상 각급 승가고시에 합격해야 법계 승급이 가능하다.

수계대상자가 특별구족계를 받으려면 종단 사찰에서 20년 이상 염불 · 주력 · 포교 등의 수행하고, 계단법 제19조 및 승려법 제8조에 따라 구족계 수계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또한 재적 교구본사주지 추천을 받아 특별구족계 수계산림에 지원해 계단위원회 갈마를 거쳐 단일계단에서 품수할 수 있다.

다만 특별법에 의해 구족계를 수지한 비구 · 비구니의 승랍은 비구 · 비구니계 수계일로부터 기산한다. 현행 승려법에서는 비구 · 비구니계 수지자에 한해 승랍을 사미 · 사미니계 수계일로부터 기산하고 있다. 이외에도 특별구족계 수지자는 법계 중덕 · 정덕까지만 품수할 수 있도록 차이를 뒀다. 또한 제정안은 부칙을 통해 특별법의 효력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 특별구족계 수계산림이 무분별하게 시행되는 것을 방지했다.

조계종은 총무원은 특별법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종무회의를 거쳐 9월 12일 개원하는 제228회 중앙종회 임시회에 부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4월 열린 제227회 중앙종회 임시회에 공개된 종책질의에 따르면 1991년 1월 1일 이후 사미(니)계 수계 후 구족계를 수지하지 않은 스님은 155명이다. 윤호섭 기자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 단독 출마로 사실상 당선

용주사 탄원 · 직능 허허 스님


탄원 스님


허허 스님

조계종 제18대 중앙종회 첫 보궐선거에서 제2교구 용주사에 탄원 스님이, 직능대표 문화분야에 허허 스님이 사실상 당선됐다. 두 스님 모두 앞서 단독 후보로 출마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격심사만 거치면 되는 상황이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세영)는 8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종회분과회의실에서 제396차 회의를 열고, 제18대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 입후보한 탄원 스님과 허허 스님의 자격에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탄원 스님은 9월 7일 예정된 보궐선거일과 관계없이 무투표 당선이, 허허 스님도 9월 4일 직능대표선출위원회에서 당선이 확정된다. 윤호섭 기자

아미타요양병원 향한 ‘자비희사’

대전 구암사 · 한태수 종무원 쾌척
아들 결혼식 축의금 회향해 ‘눈길’

조계종 직영 아미타불교요양병원을 후원하는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 구암사 회주 북천 스님과 주지 설해 스님(중앙종회의원)은 8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후원금을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금 전달은 최근 ‘재단법인 해운’을 조계종에 등록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재단법인 해운을 종단 등록하며 회주 북천 스님이 지역에서 포교에 진력하고 있는 이야기도 잘 전해 들었다”면서 “특히 봉안당을 운영하며 납골문화 개선과 인식전환을 위해 힘써온 것으로 안다”고 격려했다. 이어 납골문화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진우 스님은 “종단 차원에서도 납골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수조사 중”이라면서 “기회가 되면 구암사를 방문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북천 스님은 “1999년부터 대전시와 유성구의 요청으로 대전광역시 허가 제1호 봉안당을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불자들의 마지막을 위해 사찰 납골당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구암사 회주 북천 스님과 주지 설해 스님이 조계종 직영 아미타불교요양병원에 1000만원을 후원했다.

북천 스님은 구암사에서 매주 수요일 ‘행복해지는 수요 명상법회’를 운영하며 주지 설해 스님과 사부대중 공동체가 참여하는 명상센터를 기획하고 있다. 또 신도회 산하 나눔회를 중심으로 국가 보조금 없이 연간 30만 명, 매일 700~1000명에게 무료급식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구암사 나눔의집 나마스테’는 1987년부터 호국대원사에서 매주 일요일 급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현충원에서 연중무휴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가족 및 참배객에게 매일 점심 무료 국수공양을 실천하며 지역을 밝히고 있다.

앞서 조계종 총무원 종무원 한태수 기사는 8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총무부장실에서 승려복지 대표이사 호산 스님에게 조계종 직영 아미타불교요양병원에 후원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한태수 기사는 지난달 아들 결혼식을 통해 받았던 축의금을 후원금으로 전달하며 “스님들의 수행과 치료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2003년 조계종 총무원에 입사한 한태수 기사는 “20년 동안 종단에 근무하며 자녀를 키웠고 종단 장학금도 받으며 훌륭하게 성장, 공군 조종사가 된 아들에게 모범을 보여주고자 후원금을 내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은호 기자

감사의 말씀

귀의삼보하옵고,
법체 청안하심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금번 한국불교태고종 태고총림 선암사 선원장 범청당 상명 대종사의 영결식에 원근을 마다않고 찾아와 조문해주시거나 직접 찾아오지는 못했지만 세연을 마친 스님의 가시는 길에 극락왕생을 발원해주신 육부대중 여러분께 지면으로나마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사방팔면에서 보내주신 각계 원로와 대덕 스님들의 심려와 조문 덕에 여법하게 영결식과 다비식을 마치게 된 것을 널리 알려드리며 향후 범청당 상명 대종사의 유지와 뜻을 기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상명 대종사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함께 해주신 육부대중께 감사드립니다.

불기 2567(2023)년 8월 21일

태고총림 선암사 주지 **정허 시각** 합장
범청당 상명문도회장 **도허 지각** 합장

“청년대학생 전법, 불자 교수 양성부터”

상월결사 대학생전법위, 8월 24일 예비 워크숍

9월 5~6일 워크숍 앞두고 사전모임
자승 스님 “전법은 생존 문제” 강조
김응철 교수, 강의서 교수 양성 제안
MBTI 강연 통해 MZ세대 이해 나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대학생 포교의 핵심은 ‘교수’ 입니다. 대학마다 핵심 불자 교수들을 양성해서 이들이 학교에서 전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대학생 전법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국 대학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역할을 하고 불교동아리를 관리할 ‘불자 교수’ 들의 양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상월결사 대학생전법위원회(위원장 돈관)는 8월 24일 동국대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예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오는 9월 5~6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 마곡사 일원에서 열릴 예정인 ‘상월결사 대학생전법위원회’ 를 위한 사전 모임으로, 워크숍에서 이뤄질 강연 내용을 점검하고 보완하기 위해 열렸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왜 대학생 전법인가’ 를 주제로 한 강의에서 현재 불교의 현주소를 되짚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와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의 조사를 통해 불교계 현 주소를 진단했다. 이에 따르면 2015년 당시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한국불교는 개신교에 한국종교 1위를 내줬고, 이는 개신교 측의 조사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됐다. 하지만,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올해 5월 발표한 조사 결과에서는 다시 불교가 제1종교의 자리를 탈환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을 비롯한 참가자 대중이 삼귀의를 하는 모습.

이에 대해 김 교수는 “현대인의 종교성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탈종교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제도종교로부터 이탈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으며, 종교성이 약화되고 있다”며 “크리스찬 부디즘 등과 같이 종교의 좋은 부문만 선택하는 일명 ‘종교 쇼핑’ 현상도 확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 교수는 ‘포교 패러다임의 전환’ 을 주문했다. “양자역학이 가전제품에 활용되는 고도정보화사회에서도 불교는 농경사회의 유습으로 포교하고 있다”고 지적한 김 교수는 “신도를 교육시켜 핵심 신도를 양성 · 조직화하고 봉사 프로그램 등을 통해 포교 역량을 강화하는 현대적인 포교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대학 내 포교를 담당할 수 있는 포교 인재를 발굴하는 것이 대학생 전법의 시작임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대학에 불교동아리를 개설하려면 지도교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학생들은 졸업하지만, 동아리 관리 · 운영에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도교수의 역량에 달렸다”면서 “한국교수불자연합회(이하 교불련)와 협력해 전국 대학별 핵심 교수 불자 양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 사찰이 대학 불교 동아리의 협약을 통해 학생법회, 수련회 등을 지원하고 종단에서는 전법 지원을 위한 종책 시스템을 수립한다면 대학생 전법 진흥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이상훈 교불련 회장은 ‘대학생 전법의 의미와 방향’ 을 통해 대학생 전법의 나아갈 길을 분석했다. 이 회장은 “대학교 캠퍼스는 미래불교를 준비할 수 있는 공간”임을 분명히 하며 현재적 방식에 얽매이지 말고 전법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날 예비 워크숍에서는 △홍대선원(주지 준한 스님) △신구대 불교학생회(지도법사 해동 스님) △국립경상대 불교학생회 ‘연화’ (지도교수 김용진) △경북대 불교학생회(회장 주현우) 등 청년대학생 포교 성공 사례에 대한 발표도 이뤄졌으며, MZ세대를 이해하기 위한 MBTI 강의도 마련됐다.

이에 앞서 입재식에서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은 대학생 전법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자승 스님은 “대학생 전법은 한국불교의 생존 문제와 직결된다”면서 “사찰에 가보면 나이든 신도들은 있지만, 젊은 세대를 볼 수 없다. 이 시기를 놓치면 10~20년 뒤에는 정말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워크숍에 참여한 스님과 불자들은 한국불교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라며 “한국불교 생존을 생각하며 전법포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를 공감하고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상월결사 대학생전법위원회는 오는 9월 5일부터 6일까지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대학생 전법 진흥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열암곡 마애불, 활용 대안 제시를”

불교사회연구소, 호국불교연구 1차 학술대회

“열암곡 마애석불입상은 성보 문화재로 문화재의 보존이라는 가치보다 불교 성보로서 참배와 순례라는 신앙의 대상이란 가치가 앞선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입불 당위성과 더불어 문화유산의 활용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조계종 교육아사리 무진 스님이 조계종 미래본부 불교사회연구소가 8월 1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2023년도 호국불교연구 1차 학술대회에서 불상의 특수성 인정과 활용 방안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경주 남산과 열암곡 부처님 바로 모시기를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는 경주 남산의 불교사적 의미와 중요성을 확인하고, 가람 및 문화 유물의 특성 이해를 통해 열암곡 부처님을 바로 모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열암곡 부처님을 어떻게 바로 모실 것인가’ 를 주제로 발제한 무진 스님은 입불이 결정되지 못하는 현재 상황에 대해 “참배와 순례의 대상인 성보문화재로 열암곡 마애석불입상을 이해하려는 접근 없이 일반문화재의 보존이란 시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보로서 불상은 참배의 대상이며 순례의 장소”라고 강조했다.

이날 무진 스님은 참배와 순례의 가치로서 입불을 접근해 눈길을 끌었다. 열암곡 성보와 연결해 동남산 순례길은 문화적 가치가 충분하다는 것.

열암곡 마애석불입상을 중심으로 신선암 관음좌상과 칠불암 마애불, 통일전 그리고 탑곡과 불곡의 성보문화재를 연결하는 참배 순례길을 제시한 스님은 “입불이 현상 보존보다 어떠한 가치가 더 있는지 남산의 불국정토 활용의 가치에서 불교계와 모든 국민을 설득할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입불의 사회적 가치가 공론화되고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입불의 당위성이 확립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밖에도 고영섭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가 △신라불교와 경주남산의 의미와 가치-한국 문화의 원형 확보와 한국 불교의 고향 확립을, 박광연 동국대 WISE캠퍼스 국사학과 교수가 △남산 창림사와 신라 문성왕대(839~857)의 불교를, 김동하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문화재전문위원이 △경주 남산 불교유적의 특징과 성격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이태원 특별법, 진상규명 마지막 보루”

불교 · 천주교 등 4대 종교
특별법 제정 촉구 삼보일배

“우리는 우리가 지키고 이뤄내야 할 특별법을 위해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온전히 담아 국회로 향할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우리 희생자들의 이름을 되뇌고, 아스팔트 위에 던져지는 우리의 마음과 몸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소망을 빌 것입니다.”

8월 22일 오전 10시 29분, 스님과 신부, 교무 등 종교인과 시민들이 빗방울로 젖은 아스팔트 위에 엎드렸다. 10.29 이태원 참사 300일을 앞두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연대행렬이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서울시청광장 분향소에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4대 종교와 함께 삼보일배에 나섰다. 종교계에서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를 비롯해 천주교남녀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10.29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모임’ 이 연대했다.

기자회견에서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뒤 지금까지 법안 심의가 되지 않은 상황을 규탄했다. 이 운영위원장은 “유가족들은 끊임없는 슬픔과 아픔을 감내하면서 참사 발생 300일을 마주하게 됐지만 그 어느 것 하나 밝혀지거나 이뤄진 것은 없다”며 “모든 것을 해결해 줄 테니 500일이든 1000일이든 견디라고 하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리는 빗줄기에 굴하지 않고 삼보일배를 이어가는 스님들.

그는 이어 “피를 토할 정도로 외치고 또 외쳐도 우리 아이들은 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며 “남은 가족은 스스로 살아가기 위해, 무너지지 않기 위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염원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보루가 특별법에 있다”고 강조했다.

연대발언은 불교에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 혜도 스님이 맡았다. 스님은 “본인의 잘못을 모르는 사람은 양심과 수치를 모르는 것이라고 부처님께선 말씀하셨다”며 “누구도 사과와 인정, 특별법 제정도 하지 않기 때문에 유가족과 시민, 종교인들이 나서서 삼보일배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삼보일배 행렬은 이날 서울광장 분향소를 출발해 애오개역까지 약 3㎞를 이동했다. 삼보일배에는 종교인과 시민 50여 명이, 연대행렬에는 총 100여 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다음날 마포역까지, 참사 300일이 되는 24일엔 국회 정문까지 삼보일배를 이어갔다.

윤호섭 기자

BBS 사장 후보 오병상 · 이우성

9월 13일 이사회서 최종 선출


오병상


이우성

BBS불교방송 신임사장 최종 후보로 오병상 前 중앙일보 편집인, 이우성 前 문체부 종무실장이 추천됐다.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은 8월 18일 불교방송 사장 후보 면접 심사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같이 후보자 2인을 선정했다.

오병상 후보는 1985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으며 1987년 중앙일보 기자로 입사해 언론인의 길을 걸었다. JTBC 보도국장, 중앙일보 편집인을 역임하고 현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를 맡고 있다.

이우성 후보는 1988년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문체부 종무실장, 충남 문화체육부지사를 거쳐 브랜드성장위 부위원장에 재직 중이다.

불교방송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오는 9월 13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사장을 최종 선출한다.

신성민 기자



더 좋은 동국 더 나은 미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동국대학교

2022 중앙일보 대학평가
종합순위 2년 연속
9위

혁신적 상상력으로
미래 사회를 선도할 인재를 육성합니다

2024학년도 수시모집
2023.09.13.(수) 10:00 ~ 09.15.(금) 17:00

고려불화, 디지털 재해석…"MZ 진입장벽 낮추겠다"

'4기 불교크리에이터'를 만나다 ④ 디지털 작가 김상규

플랫폼 '스튜디오 무상' 구축
불교콘텐츠 새롭게 해석 눈길
서울대총불교학생회 활동하며
고려불화 재해석 연구 논문도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우리의 문화유산, 고려불화가 지닌 여러 가지 면모가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고려불화와 한국 미술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섬세한 선, 고채도의 색, 정교한 문양 등 고려시대 불교회화의 특징이 가득 담아 코끼리와 여의, 해를 표현했다. 조계종 포교원 불교크리에이터 4기로 위촉된 김상규 디지털 작가의 일러스트레이션 연작 〈마음의 숲: 수행〉은 고려불화의 조형적 특징과 상징성에 기반해 창작됐다. 디지털 방식의 일러스트레이션에 모션 그래픽으로 움직임을 추가한 이 작품은 불교크리에이터 선정 과정에서부터 눈길을 사로잡았다.

"고려 불화 속 동물, 식물, 인물 등은 마음 내면의 여러 가지를 상징하죠. 그림에 표현된 코끼리, 여의, 해 등은 수행, 가르침 등을 상징하는 이미지입니다."

김상규 작가는 "불교크리에이터 활동을 통해 미디어를 통한 시각적 노출이 피로감을 유발하는 것이 아닌 휴식이 될 수 있는 작품을 선보이고 싶다"고 말했다. 자연물을 바라보는 듯한 마음으로 명상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불교 이미지를 현대적 감각으로 구성한 디지털 아트를 선보인다는 것.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일상 속 시각적 휴식을 제공함과 동시에 불교 명상 수행법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불교명상과 관련된 옛 불화 '관경십육관변상도' '염불서승도' 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표현하려고 준비 중이다.

김상규 작가는 찐 고려불화 팬이다. 학부 때부터 서울대총불교학생회에서 활동하며 명상과 참선을 이어온 김 작가는 시각디자인을 전공하며 불교를 주제로 한 작업을 꾸준히 했다. 자연스럽게 '고려불화를 재해석한 일러스트레이션 연구' 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마음의 숲: 수행〉 | 디지털 아트



김상규 작가는 지난 봄 2023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 참가, 다양한 작품과 저서, 제품들을 선보여 큰 호응을 받았다.

김상규 디지털 작가의 작품이 궁금하다면?
- 홈 페 이 지 : studiomusang.com
- 인스타그램 : instagram.com/studiomusang
  instagram.com/sangkyu_work

논문을 발전시켜, 지난 5월에는 고려불화 도상에 담긴 이야기를 담은 '빛과 바람의 그림, 고려불화' 를 출간했다. 김 작가는 저서에서 고려불화가 지닌 우리 미술 고유의 아름다움, 그리고 도상 표현 속에 담긴 의미와 상징에 주목했다. 한국 문화유산으로서 고려불화를 새롭게 바라보고 내면의 평온과 영감의 원천이 될 수 있길 기대하며 출간한 이 책은 지난봄 개최된 2023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 한정판 공개 후 이어진 호평으로 양장본으로 정식 출간되기도 했다.

"이미 고려불화에 대한 훌륭한 연구들이 있었기에 기존 연구들을 단순히 종합하고 정리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을 피하고 싶었어요. 디자이너이자 시각예술가 시선으로 새롭게 분석하고 분류, 재해석해 일러스트로 표현하는 작업했어요."

김 작가는 자신의 콘텐츠를 여러 방면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도상들의 형태를 재해석해 엽서를 만들고 이에 대한 해설서와 엽서 케이스 등 문화상품을 점차 확대해가고 있다. 엽서집은 2023년 서울국제불교박람회 일환으로 열린 '전통문화우수상품공모전' 에서 입선하기도 했다.

김 작가는 자신의 작업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스튜디오 무상' 이라는 플랫폼을 구축, 불교 주제 일러스트레이션과, 디자인 문구류, 출판물 등 다양한 포교콘텐츠들을 선보이고 있다. 1인 출판사로 등록을 하기도 한 '스튜디오 무상' 에서 다양한 작품들을 판매하는 것도 구상중이다.

김 작가는 "불교 포교콘텐츠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대상을 불자뿐 아니라 불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젊은 층까지 포섭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불교 콘텐츠 디자인의 현대화가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불화와 불교의 전통 수행법 등에 대한 내용은 여전히 젊은 층에게 어렵게 인식되고 있다"고 말한 김 작가는 "일러스트레이션과 무빙 디지털 아트를 통해 MZ 세대들과의 교감을 촉진하고 불교의 수행법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불교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정족산성진지 복원해 호국역사관으로 활용을"

김우웅 원장, '정족산성 진지' 학술세미나서 주장

진사 · 동 · 서 포량고 복원 주장
역사 · 고고학 등 전문가 참여

정족산성진지를 복원 · 정비하여 호국역사관 및 문화행사 장소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우웅 한국건축문화정책연구원장은 8월 18일 강화 전등사 전등각에서 개최된 '강화 정족산성 진지의 역사적 가치 재조명' 주제 학술세미나에서 '강화 정족산성진지의 보존관리 및 활용 방안 연구' 논문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원장은 "정족산성 진지의 진사, 동 · 서 포량고, 대문을 복원하고, 내사, 북 포량고 1, 2, 신당, 하인청, 건물지, 담장시설, 배수시설을 정비해야 한다"며 "진사, 동 · 서 포량고는 복원하여 호국역사관으로 활용하되 호국역사관은 정족산성, 정족산사고, 정족산성진 및 전등사의 역사, 발굴조사 기록 및 유물 전시, 수장 공간으로 쓰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향후 정족산 사고에 '조선왕조실록 정족산사고본' 원본의 반환이나 영인본의 보관을 가정한다면, 현재 정족산사고에 보관 중인 〈묘법연화경〉 목판 104매를 이전 · 보관할 수 있을 것"이며 "진사 앞마당은 각종 문화행사 장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신웅주 조선대 교수는 '강화 정족산성진지의 복원 고찰' 논문 발표를 통해 "2008~2009년에 시행된 발굴조사 자료는 강화도지도의 검증과정을 거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한 자료"라며 "지도상에 그려진 건물들이 발굴조사 결과 실제 건물지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이어 "강화 정족산성진 내에 있었던 건물들은 군사시설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문헌에서도 정족창이 1784년에 건립됐고, 1828년(순조 28)에 이전의 4~5칸 규모를 크게 확장됐다고 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화 전등사와 강화군청은 8월 18일 전등사 전등각에서 '강화 정족산성 진지의 역사적 가치 재조명'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최종규 한울문화재연구원 원장의 '강화 정족산성진지의 발굴조사 성과와 의의' , 박미화 수도문물연구원 유물관리팀장의 '강화 정족산성진지의 출토유물 특징' , 배성수 인천시립박물관 전시교육부장의 '강화 정족산성진지의 성격과 역사적 가치'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백종호 한국교통대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이천우 문화재청 전문위원, 현남주 한국문화유산연구원장, 황보경 세종대박물관 학예주임, 안선호 원광대 교수, 안대환 충북대 교수가 참여했다.

이에 앞서 학술세미나를 공동주최한 전등사 주지 여암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세미나가 정족산성 진지 복원의 사료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길 바라며, 나아가서는 전등사 다시 정족산사고의 수호사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선정족산사고본 실록 등이 환지본처(還至本處)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이태산 부군수가 대독한 축사에서 "이번 세미나가 정족산성진지의 복원의 기초가 되길 바란다"며 "세미나에 참석하신 발표자 여러분들의 고견들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강화군청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성민 기자

(재)여시관, 불교 번역상 첫 공모

오는 9월 15일까지 접수 마감
번역자, 출판사 부문으로 선정

〈금강경〉 독송과 수행 정진을 위해 설립된 (재)여시관(如是觀, 이사장 김강유)이 불교 진흥을 위한 역경 불사에 나선다.

(재)여시관은 "붓다의 가르침을 정확하고 친절하게 번역 소개한 번역자와 출판사를 시상하고 응원하기 위해 '여시관 불교 번역상' 을 제정했다"면서 제1회 불교 번역상 공모 요강을 발표했다.

응모 대상은 2021년 7월 30일부터 2023년 8월 31일 사이에 출간된 도서로 불교적 가르침 담겨 있으면 가능하다. 출판사별 제출 종수는 제한 없으며, 수상 경력이 있는 출판물도 응모할 수 있지만 절판도서는 불가하다.

응모는 (재)여시관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우편과 택배로 도서 2권을 접수처로 발송하면 된다. 접수 마감은 9월 15일까지.

심사기준은 붓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외국어 자료에 대해 내용과 형식 모두 저자의 집필 목적과 원고의 성격 등을 잘 살펴야 하며 학술적, 문학적 완성도와 함께 불교 문화 및 사회에 기여한 정도도 고려된다.

수상작 발표는 오는 10월 20일 여시관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선정 도서의 번역자와 출판사에는 각기 5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이와함께 (재)여시관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복한 마음 독후감 대회' 도 연다. 이는 (재)여시관이 제시한 7종의 도서 중 1종을 선택해 독후감을 작성해 보내면 심사 · 선정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행사다. 7종 도서는 〈응작여시관: 백성욱 박사 전기(김영사)〉, 〈무경계(정신세계사)〉, 〈인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반야심경(불광출판사)〉, 〈네 가지 질문(침묵의 향기)〉, 〈인간 붓다, 그 위대한 삶과 사상(정토출판)〉, 〈도표로 읽는 불교교리(민족사)〉, 〈이제서야 이해되는 불교(불광출판사)〉다.

응모 기한은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원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 20~25매이며, 아래아한글이나 MS워드로 작성해야 한다. 접수 방법은 이메일(yeosigwanfdn@gmail.com)이다.

선정 결과 발표는 10월 13일 여시관 홈페이지에 발표되며 총 7명을 선정해 각 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제13회 반야학술상에 임영애 교수 선정

저서 〈금강역사상〉 등 높게 평가
오는 11월 5일 반야암서 시상식



제13회 반야학술상 수상자로 임영애 동국대 문화재학과 교수〈사진〉가 선정됐다.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안)은 "불교학 및 불교문화 관련 학술 활동이나 연구업적이 뛰어난 연구자를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반야학술상 제13회 수상자로 임영애 교수를 선정했다"고 8월 17일 밝혔다.

반야불교문화연구원은 "제13회 반야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된 임영애 교수는 〈금강역사상-간다라에서 신라로의 여정(2023)〉을 비롯한 20여 권의 저서와 국내외의 저명학술지에 10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한국을 대표하는 불교미술사학자로 꾸준히 연구활동을 이어왔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화여대 미술사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은 임영애 교수는 경주대 교수를 비롯해 중앙아시아학회장, 서울 · 경기도 · 경상북도 · 강원도 문화재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동국대 문화재학과 · 대학원 미술사학과 교수로 활동 중이며, 동국대학교 박물관 관장과 불교학술원 문화재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또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전통사찰운영위원회 위원, 조계종 성보보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임 교수는 중앙아시아와 통일신라 불교조각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천착해왔다. 특히, 올해 발간된 〈금강역사상-간다라에서 신라로의 여정〉은 동국대 저서출판지원사업에 선정돼 출간한 연구서다. 책에 실린 160여 장의 사진은 간다라, 중앙아시아, 중국, 한국의 금강역사상을 임 교수가 발로 뛰어 직접 촬영한 사진이며, 내용도 간다라에서 신라에 이르기까지의 긴 여정을 학술적으로 살펴 깊이가 있다는 평가다.

임 교수는 "그동안 학문 분야 간 개별적으로 진행해 왔던 석굴암 연구를 미술사와 건축사, 불교사가 함께 어우러진 공동 연구를 통해 창건 당시 석굴암 불교조각의 원형에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제13회 반야학술상 시상식 및 수상기념 강연은 11월 5일 오후 1시 통도사 반야암에서 열린다. 신성민 기자

백양사 큰스님 따라 걷는 '장성 참사람 길'

매화 · 수행의 향기 순례길 공개
약사암 · 운문암 · 청류암 등 순례



'지혜의 숲길' 순례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통해 새로운 신행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있는 조계종 포교원(원장 범해)이 백양사 큰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걷는 '장성 참사람의 길' 을 개발, 공개했다.〈사진〉 2021년부터 총 12개 순례길을 개발한 포교원은 2023년 〈예산 경허 · 만공의 길〉 〈서산 백제미소의 길〉 〈장성 참사람의 길〉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에 개발한 〈장성 참사람의 길〉은 가을 단풍으로 유명한 백양사 주변을 순례하는 길이다. 백양사는 대한불교조계종 18교구 본사며 조계종 5대 총림 중 하나였던 고불총림이었던 곳이다. 예로부터 백암산은 명승지로 뽑혔으며, 정도전 · 정몽주와 같은 유명한 문장가들이 백양사 쌍계루를 방문해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고 글을 남겼다. 또 백양사는 한국 근대 불교의 개혁자 만암 스님과 '참사람운동' 으로 유명한 서옹 스님이 주석했던 선불교 중흥지다.

〈장성 참사람의 길〉은 백양사 일주문부터 백양사의 고불매(고불총림을 의미하는 매화나무), 쾌영명소인 쌍계루, 사찰음식으로 유명한 정관 스님이 머물고 있는 천진암 등을 순례할 수 있는 '매화의 향기 순례길' 과 백양사 전설이 전해지는 약사암, 만암 스님과 서옹 스님의 수행처 운문암 · 청류암을 순례하는 '수행의 향기 순례길' 로 개발됐다. 매화의 향기 순례길은 4.4Km 2시간, 수행의 향기 순례길은 8.2Km 약 5시간이 소요된다.

포교원에서 개발한 순례길 팜플렛은 조계종 홈페이지-포교-포교자료-법회와설법 · 문서 메뉴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포교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순례길을 개발, 우리 사찰의 아름다운 길에 기억에 남을 이야기를 담아 국민들과 함께 사유하고 치유하는 수행공간으로 활용해 나갈 예정"이라며 사부대중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다.

임은호 기자

독거 어르신 급식 지원 "답게 살겠습니다"

중신회, 신도림 무료급식소서
8월 19일, 도시락 250개 배포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주윤식)가 8월 19일 서울 신도림 무료 급식소에서 '2023 불교 독거 어르신 무료 급식 지원사업' 을 펼쳤다.〈사진〉

신도림 무료급식소(본부장 김범수)와 함께 전개한 이번 사업은 국내 7대 종단 평신도협의체인 사단법인 한국사회평화협의회 '답게살겠습니다 운동 사회인답게 이웃사랑 캠페인' 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2015년부터 불자들이 자발적으로 독거 어르신 무료 급식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는 신도림 무료급식소에서 사회인답게 우리 사회 나눔을 실천하고, 경제적 어려움과 외로움에 처해 있는 독거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한 끼의 음식을 제공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지원방안으로 준비됐다.

중앙신도회는 무료 급식 도시락 용품에 필요한 밥, 국, 반찬 용기와 식자재 물품의 구입을 후원했다. 또 생활용품으로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치 위생용품, 한방 파스 등 생활용품을 지원했다.

서울 구로구 2호선 신도림역 2번 출구 앞에 위치한 신도림 무료 급식소는 매주 토요일 봉사자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도시락 250개를 독거 어르신에게 전달하고 있다. 도시락이 준비되는 동안 대기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어울림 한마당 시간에는 노래 부르기, 손뼉치기, 율동 등 마음을 충족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찬영 중앙신도회 사무총장은 "단순히 어르신들의 한 끼를 준비하는 것이 아닌, 독거 어르신들이 소외된 세상에서 나와 세상과 소통하고 건강과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돕는 아름다운 동행의 이웃사랑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원사업을 설명했다. 임은호 기자

‘원각 지혜’ 보인 성타 대종사, 적멸로 나아가다

조계종 원로의원·불국사 회주 성타 대종사 영결·다비식 봉행

8월 19일 경주 불국사 일원서
2천 사부대중 운집…추모 열기
대중들, 대종사 실천행 등 기려
10월 2일 불국사서 49재 봉행

경주 · 글=신성민 기자, 사진=윤호섭 기자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가 8월 19일 경주 불국사 무설전에서 봉행된 나가당 성타 대종사 영결식에서 영결법어를 설하고 있다.


거화된 연화대를 향해 합장하고 있는 문도스님.


성타 대종사의 다비를 보며 오열하는 신도.

“대화상께서 몸을 숨기시더라도 당신의 그림자는 드러나기 마련이니 뜻을 같이하는 후학들이 늘 함께 할 것입니다.”

조계종 원로의원이자 경주 불국사 회주인 나가당 성타 대종사가 사바세계의 육신을 벗고 무위적멸의 세계로 나아갔다.

불국사 성타 대종사 장례위원회는 8월 19일 경주 불국사 무설전 일원에서 성타 대종사 영결·다비식을 원로회의장으로 엄수했다.

이날 영결·다비식에는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와 원로회의 의장 불영 자광 대종사를 비롯한 원로의원 스님들, 총무원장 진우 스님, 호계원장 보광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전국교구본사협의회장 정도 스님,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 윤재웅 동국대 총장, 주윤식 중앙신도회장, 장정화 대한불교청년회장, 주낙영 경주시장 등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참석해 성타 대종사를 추모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는 영결법어에서 동산 양개 선사와 운암 선사의 일화를 법공양하며 성타 대종사에 “필경에 진리의 일구는 어떠하겠습니까”라고 묻고 “마침내 찬 겨울 달이 집 앞 연못에 떨어져 출렁이도다”라고 설했다.

이어 “대종사께서는 본원력으로 이 땅에 오시어 본분사를 여실히 보이시고 원적에 들었다. 금일 나가당 성타 대종사 각령전에 동산의 진미 법공양을 올리오니 잘 받으시어 진리의 삼매락을 누리라”고 추모했다.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불영 자광 대종사는 영결사를 통해 성타 대종사가 행한 실천의 삶을 기렸다. 자광 대종사는 “대종사는 은사이신 월산 큰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상대를 배려하고 항상 하심하는 삶을 실천했다. 수십 년을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남몰래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서원대로 평생토록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사셨다”면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가는 곳마다 자운을 일으키고 교화의 법륜을 움직이며, 진리의 법고를 울려서 정법의 당간지주를 높이고 불일(佛日) 더욱 빛나게 해달라”고 발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추도사를 통해 성타 대종사가 평생을 걸쳐 보인 원력을 되새겼다. 진우 스님은 “대종사는 일평생 교구와 종단에서 크고 작은 소임을 맡아 살면서도 일에 관한 한 한 치의 소홀함도 없었고, 그러면서도 언제나 한 문경서와 일본어 논서를 손에서 놓지않는 수불석권(手不釋卷)의 삶이셨다”면서 “세간과 출세간을 둘로 나누지 않았기에 비정부기구와 환경단체의 일에도 참여와 외호를 아끼지 않으셨다. 천년고도에서 유형의 문화유산은 말할 것도 없고 보이지 않는 문화재도 그 소중한 가치를 안팎으로 널리 알리셨다”고 상찬했다.

이어 “오늘 이후 대화상께서 몸을 숨기시더라도 당신의 그림자는 드러나기 마련이니 뜻을 같이하는 후학들이 늘 함께할 것”이라며 “활안(活眼)으로 교화하신 원각(圓覺)의 큰 지혜는 이내 천백억화신으로 나투실 것을 사부대중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각계 인사들도 조사를 통해 성타 대종사의 원적을 기렸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조사에서 “성타 대종사는 광도중생을 위해서라면 맨발로라도 마다하지 않고 나섰던 전법사의 길을 평생의 삶으로 보여주신 참스승이셨다”고 회고했으며 금오문도 사숙대표 함주 월복 대종사는 조사를 통해 “오늘 펼쳐지고 있는 대종사의 마지막 법석에 함께한 대중들은 대종사의 가르침과 참 의미를 너무나도 확연하게 보고 있다”고 추모했다.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정도 스님은 조사에서 “후학들은 대종사의 위 없는 가르침들을 매 순간 등불과 거울로 삼아 수행자로서의 위의를 잃지 않을 것”을 발원했으며,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후학을 위해 길을 찾아내고 청년대학생이 세상의 모범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부지런히 돌보는 것으로 삼겠다. 이것이 곧 스님께서 평생 고심하셨던 중생을 위한 길이라고 여기겠다”고 다짐했다.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도 조사를 통해 “일생에 걸쳐 포교와 불사, 사회를 맑게 하는 시민사회운동을 견인하신 대종사의 포교와 전법의 역사를 지금 바로 여기에서 실천하는 현신이 될 것을 각자의 마음에 새겨 본다”고 추모했다.

이밖에도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김석기 국회의원도 조사를 통해 성타 대종사의 원력을 되새기고 계승·발전할 것을 약속했다.

영결식은 문도대표 정문 스님의 인사로 마무리됐다. 정문 스님은 “스승을 이리 허망하게 빨리 보낸 죄인”이라며 문도스님들과 함께 참회와 정진의 삼배를 올리는 것으로 인사를 갈음했다.

영결식 이후에는 다비식이 엄수됐다. 성타 대종사의 법구는 인로왕번, 명정, 삼신불번, 오방불번, 만장을 위시한 장의행렬과 함께 연화대로 이운·안치됐다.

“불, 법, 승! 스님, 불 들어갑니다.” 연화대에 불을 당기는 거화의식이 진행됐고, 성타 대종사의 법구는 연화장 세계로 나아갔다. 문도스님들과 참석 대중은 성타 대종사가 보이는 마지막 법문을 바라보며, 눈물로 배웅했다.

나가당 성타 대종사는 1952년 학성선원서 금오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58년 범어사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조계종 호계원장과 포교원장, 제6·7·8·10·11대 중앙종회의원, 불국사 주지,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성림문화재연구원 이사장, BBS대구불교방송 사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마음 멈춘 곳에 행복이라〉 〈금오집〉 〈자연과 나〉 등을 비롯해 번역서 〈불소행찬〉, 다수의 논문 등을 냈으며, 지난해에는 학인시절부터 쓴 일기와 법문 등의 기록을 엮어 〈노을을 등지고 달을 벗 삼아〉를 출간했다.

한편, 성타 대종사의 초재는 8월 21일 경주 불국사에서 2재는 8월 28일 대구 향림사에서 봉행됐다. 3재는 9월 4일 경주 기림사, 4재는 9월 11일 영덕 유금사, 5재는 고양 흥국사, 6재는 9월 25일 마산 광명암, 49재는 10월 2일 경주 불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나가당 성타 대종사 행장



불국사 회주이자 조계종 원로의원 나가당 성타 대종사〈사진〉는 1941년 경남 울주군에서 태어나 1952년 불국사에서 월산 스님을 은사로 동진에 출가했다. 1952년 울산 학성선원에서 금오 큰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1958년 범어사에서 동산 큰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61년 영축총림 통도사 강원 대교과를 졸업했고, 법주사 강원의 강사를 지내며 후학양성에 진력했다.

1974년 은사스님을 모시고 사형사제들과 함께 불국사 소임을 맡아 당시 어려웠던 불국사를 지극한 정성과 절약정신, 솔선수범으로 불국사 중흥의 기틀을 마련했다. 1982년 조계종 교무부장을 맡아 종단 교육 불사에 기여하신 이래 6차례에 걸쳐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하고 1995년 조계종 포교원장으로 재임하며 포교와 전법행정의 기틀을 마련했다. 대종사는 파라미타 청소년 연합회와 전국교사불자연합회를 창립해 포교에 지대한 공을 세우기도 했다.

1998년 불국사 주지를 맡은 이래 지역의 포교와 전법에 매진했으며 종단의 호계원장을 맡아서 지계청정과 수행가풍, 종법질서를 올곧게 수호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특히 대종사는 사회의 아픔을 보듬는 사회운동과 남북통일과 환경운동에 진력해 조계종 초대 환경위원장을 비롯해 대자연환경보존회와 청정국토가꾸기 운동, 경주생명의 숲 등 환경 NGO의 이사장과 공동대표를 역임하며 종단과 환경운동을 선도·견인했다.

또 경주 경제정의시민연합회의 창립을 주도하고, 단체의 대표를 맡아 경제정의구현과 경주 방폐장 유치문제의 갈등과 잡음을 해결해 지역공동체로부터 지혜의 큰 스승이라는 칭송을 받았다. 성타 대종사는 이와 같은 공적을 인정받아 2002년 12월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훈했다.

대종사는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남겼으며, 2022년 11월에는 70년 수행의 이야기를 담은 회고록 〈노을을 등지고 달을 벗 삼아〉를 발간했다.

대종사는 불기2567(2023)년 8월 15일 오전 11시 20분 ‘如是來 如是去 此生死 不可言(이와 같이 왔다가 이와 같이 가는구나 이것이 나고 죽음이니 가히 말로 해서 무엇하리)’ 열반게송을 남기시고 법납 72년, 세수 83세로 불국사 정혜료에서 원적에 들었다.



경남 대학생 전법 희망의 빛 '연화'

진주 경상대 불교학생회, 재창립 1주년 기념법회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이도경 부산지사장

학생 줄어 2018년 활동 중단
5년 공백기 후 지난해 재창립
지역 스님과 교수들 뜻 모아
범어사, 지원금 500만원 전달



진주 경상국립대 불교학생회 연화가 8월 19일 범어사 설법전에서 재창립 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진주 경상대학교 불교동아리 '연화'가 재창립 1주년을 기념하며 대학생 전법도량으로 더욱 성장할 것을 다짐했다.

진주 경상국립대 불교학생회 연화(지도법사 담산)는 8월 19일 범어사 설법전에서 재창립 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기념법회에는 대학생들의 전법활동을 응원하며 범어사 주지 보운 스님, 연화불교학생회 지도법사 담산 스님, 범어사 포교국장 눌은 스님을 비롯해 김용진 지도교수, 유정현 대불련 회장, 문성국 대불련경남지부 동문회장, 유솜이 3대 연화불교학생회장 등 학생 50여 명이 동참했다.

기념법회는 △삼귀의 및 한글반야심경 △발원문 낭독 △연혁 보고 △축사 △인사말 △꽃다발 전달식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이날 대학생 전법활동을 응원하며 범어사 주지 보운 스님이 활동지원금 500만원을 연화불교학생회에 전달했다. 아울러 범어사는 법회에 앞서 연화불교학생회를 위해 템플스테이를 무료로 제공하고 지지했다.

범어사 주지 보운 스님은 "불교는 매우 논리적이고 과학적이며 현실적이다. 여러분들이 불교를 체계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불교가 내가 알던 그 불교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반드시 알게 될 것"이라며 "여러분은 기존 기성세대가 접근했던 불교와 전혀 다른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실존적인 불교로 접근해보라. 불교를 제대로 알아가면 그 누구보다 시대를 앞서가는 세대가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지도법사 담산 스님은 "이런 여법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범어사 주지스님, 먼 길 오셔서 축하해주시는 대불련 관계자 분들, 지역대학교 불교동아리 회장님들께 감사인사를 올린다"며 "무엇보다 이 자리가 있게 해준 연화 법우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앞으로 더욱 정진하여 5주년, 10주년 행사로 계속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김용진 지도교수는 "작년 창립 당시에는 회원이 3명이었는데 지금은 50명이다. 지금까지 힘써준 지도법사 스님과 역대 회장 및 회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불교학생회는 학생들이 불교를 접하도록 돕는 최전선이다. 연화는 대학생 불교 포교의 모범적 사례로 발전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유정현 대불련 회장은 "대학생 불자가 줄어들고 불교학생회가 사라져가는 현시점에 경상대 불교동아리 연화는 희망의 빛"이라며 "그동안 한마음으로 힘써주신 지도법사스님, 지도교수님, 그리고 회원 여러분의 노력에 찬탄을 보낸다"고 인사했다.

유솜이 연화불교학생회장은 "지금 이 자리가 있게끔 노력해주신 스님과 지도교수님, 무엇보다 없어서는 안 될 우리 연화 법우들에게 감사하다"며 "많은 청년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자비와 봉사를 실천하며 정진하는 꽃인 연화가 되게끔 지켜봐주시고 응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연화불교학생회는 1967년 창립 이후 불교 수행 및 정진을 이어오다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해 2018년 활동이 중단됐다. 5년 동안 공백기를 지켜본 진주 불교계 스님들과 교수들이 대학생 전법을 결의하며 지난해 8월 22일 진주 미륵암에서 재창립 법회를 봉행했다. 이후 부처님오신날 연등행렬 및 삼사순례단 활동 등을 이어갔고, 대학교 동아리 축제 활동 부스 운영 등 다채로운 활동 결과를 보여줬다. 현재 50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 중이며 매월 셋째 주에 진주 미륵암에서 정기모임과 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예술로 승화된 '광복'의 환희

비영리민간단체 음악풍경
범어사와 음악콘서트 개최


광복절 제78주년을 기념하는 음악콘서트 '노래여, 겨레의 노래여'가 8월 17일 범어사 선문화교육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광복절 제78주년을 기념하는 음악콘서트 '노래여, 겨레의 노래여'가 8월 17일 범어사 선문화교육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음악회는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곡들로 선정됐으며, 지난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에서 모은 곡이다. 한국예술종합학교는 과거에 남과 북이 함께 부르고 지금 현재도 애창하는 곡 가운데 역사적 의미와 음악적 완성도가 높은 곡 50개를 선정한 바 있다. 이번 콘서트는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선정한 곡들 가운데 10곡을 골라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동요와 가곡, 가요와 민요 등 대중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고향의 봄' '오빠생각' '동무 생각' 등이다. 아울러 탱고 및 사랑의 찬가 등을 프로그램 추가해 즐거움을 더했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범어사는 3 · 1운동 당시 명정학교, 지방학림 학생들과 함께 부산 만세운동의 근원이 된 호국성지이며 부산지역 독립운동의 기폭제가 됐다"고 콘서트 개최 의미를 전했다.

한편,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이번 음악회에 앞서 3.1절을 기념하며 '삼국유사: 기록하다' 특별전을 기획하고 개막했다. 특별전은 1부 기록을 남기다, 2부 나라를 지키다, 3부 역사를 전하다로 구성됐다. △1부 '기록을 남기다'에서는 〈삼국유사〉에 담긴 기록에 대해 소개한다. △2부 '나라를 지키다'에서는 〈삼국유사〉를 지키고, 기록으로써 나라를 지킨 이야기에 대해 소개한다. △3부 '역사를 전하다'에서는 〈삼국유사〉를 전하고, 나라를 지켜 역사를 전한 고승들에 대해 소개한다. 아울러 의병장 고광순(1848~1907)이 사용한 '불원복(不遠復)' 태극기로 마무리 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통도사, 제2회 전국 사생대회 개최

10월 7일, 개산 1378주년 기념…9월부터 접수

영축통림 통도사(주지 현덕)가 '제2회 전국 초 · 중 · 고 사생실기대회'를 개최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 통도사는 전국 청소년에게 세계문화유산 통도사의 자연과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생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생대회는 10월 7일 오전 10시 통도사 경내에서 열린다. 접수는 9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참가대상은 전국 초 · 중 · 고등학생이며 참가비는 무료다. 통도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우편으로 (사)한국미술협회 양산지부에 보내거나 메일(ysart@kakao.com)로 접수하면 된다. 사생대회는 초등부 저학년과 고학년, 중등부, 고등부로 나눠 진행되며, 상금과 함께 상장이 수여된다. 상금은 대상 100만원(1명), 최우수상 각 70만원(3명), 은상 각 30만원(6명), 동상 각 20만원(15명), 특별상 각 30만원(3명)이며 특선과 입선은 상장이 지급된다. 수상결과는 10월 13일 통도사와 (사)한국미술협회 양산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상식은 10월 23일 오전 10시 통도사 설법전에서 열린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세계평화 · 국태민안' 수륙무차천도재

한국불교문화협회, 부산 영도 아미르공원서



한국불교문화협회(이사장 호법)가 8월 20일 부산 영도 아미르 공원에서 '제2차 국제수륙무차천도재'를 봉행했다.〈사진〉

전쟁 없는 지구촌을 기원하며 열린 이번 행사는 개식선언으로 시작해 △환영사 △발원문 △헌화 및 내빈 소개 △영가에 올리는 음성공양 △축사 △추도사 △영상메시지 △음성공양 △부산다문화국제학교 학생 공연 △청법가 △법어 순으로 진행됐다.

봉행위원장 호법 스님은 "'수륙'이라는 것은 바다와 육지로서 오대양 육대주를 말하는 것이며, '무차'라는 것은 인종과 국적 어떠한 것도 가리지 않고 평등하다는 뜻"이라며 "지구촌의 오대양 육대주에서 희생되어 우주 공간을 외로이 떠돌고 있는 모든 영령들을 위해 평등하게 재를 베풀어 그들을 행복의 세계에 이르게 하고자 행사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들을 안식에 이르게 하는 것은 모든 이기심이 사라진 인류 보편적 가치인 사랑이다. 그것이 피맺힌 한을 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장애아동 세대에 도움 되길"

사단법인 미소원, 저소득가정 생필품 지원



사단법인 미소원(이사장 장유정)이 8월 19일 개금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장애아동세대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부산불교복지협의회가 진행하는 지역 장애아동세대 후원을 위해 미소원은 실생활에 필요한 세제, 휴지, 라면, 식용유 등 1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다. 생필품은 지역 내 저소득 장애아동 5세대에 전달됐다.〈사진〉

장유정 미소원 이사장은 "요즘 물가가 치솟고 형편이 어려운 가정은 필요한 생필품을 사는 것도 힘겨운 실정"이라며 "날씨는 무더워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 건강이 염려된다. 이번에 전달한 생필품이 저소득 장애아동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불교복지협의회장 정여 스님은 "생필품 전달이 무더위에 지친 저소득 장애아동 세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협의회에서 여러 단체, 기관들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부처님 자비행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감사를 표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잼버리 대회 파행은 모두의 책임”

전북불교계, 전북도청서 성명 발표

금산사 등 주요 사찰서 참여
“분열 아닌 반면교사로” 강조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북 불교계가 제25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8월 23일 전북도청 앞에서 진행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사태를 걱정하는 전북범불교도연합(이하 전북범불교도연합)’ 명의의 성명 발표에는 조계종 제17교구 금산사 중앙종회의원 각진 스님을 비롯한 금산사 교구 스님과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 금선암 주지 덕산 스님, 정읍 일광사 승천 스님 등 태고종 전북종무원 스님들이 대거 참석했다. 또한 한광수 금산사 신도회장, 김용수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 안준아 룸비니불교산악회장을 비롯한 재가불자들도 자리했다.

전북범불교도연합은 진성 스님이 대표 낭독한 성명서에서 “대회기간 전 국민의 걱정과 우려가 있었고, 비난과 지적은 관계자들에 대한 준엄한 꾸지람을 요구하고 있다”며 “대회를 준비함에 있어 어디에서 치우치고 절도를 잃어버렸는지 자책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큰 견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대회의 파행은 중앙정부, 조직위원회, 스카우트연맹, 전라북도 등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다가오는 혼란을 감지하고 대비하는 정신이 부족했기 때문에 생겼다”고 질타했다.

전북범불교연합은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예측하는 일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하며, 책임 있는 공직자일수록 영욕득실의 좁은 견해를 생각 밖에 두어야만 언제나 준비된 자세로 국민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다”며 “자성과 성찰의 시간에 한쪽을 비난하는 데 힘을 다 써버린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 것”고 우려를 표했다.


전북지역 불교계가 스카우트 잼버리대회의 파행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들은 “분열의 감정을 만들어내는 경솔한 말들을 버리고, 사후에 일을 평가함에 있어 공정하고 광박하며 동시에 정확함과 세밀함을 함께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대승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전라북도 도민이 화합하는 계기로 승화시키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경험과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의 종교와 기업들은 세계의 청소년 대원들이 한국의 전통문화를 향유하면서 조금이나마 마음의 휴식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며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지구적인 문제를 걸머지고 있는 미래세대의 총총한 눈망울과 순수한 미소를 기억하며 전 국민의 화합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는 조계종 前총무원장 원행 스님, 조계종 제17교구본사 금산사 조실 도영 스님, 금산사 회주 도법 스님,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 보문종 정혜사 주지 지순 스님, 대한불교용화종 원각사 주지 용성 스님 등 전북지역 불교지도자들이 이름을 올렸다.

정법사 백중 6재에 승보공양법회 봉행



통도사 마산 포교당 정법사(주지 광우)가 백중 6재를 맞아 통도사 율원스님들과 정법사 사중스님들에게 승보공양을 올렸다.〈사진〉 8월 23일 만불전에서 봉행된 법회에는 광우 스님을 비롯해 통도사 전계사 덕문 스님, 율원장 도암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김선정 신도회장 등 불자들이 동참했다.

정법사 불자들은 덕문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에게 관절보호 의약품과 수건 등 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공양했다. 또 자비도량 참법기도에 동참한 63명의 불자들이 모금한 대중공양금 400만원과 사중의 성금을 더해 7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이어 정법사 영축다도회의 차 공양, 분다리카 찬불단의 음성공양이 이어졌다.

덕문 스님은 “저희 대중은 앞으로 더 열심히 정진해 정법사 불자님들의 공덕이 헛되지 않도록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옥천사 호국정신, 일제강점기에 계속돼”

고성 옥천사, 문화유산 인문학 콘서트

경남 고성 옥천사(주지 마가)가 연화산과 옥천사 문화유산의 고유한 가치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인문학 콘서트를 개최했다.〈사진〉



오는 11월 19일까지 4회에 걸쳐 진행되는 문화유산 인문학 콘서트는 8월 20일 김광식 前동국대 교수가 ‘승군과 항일 독립운동의 전초기지 자방루’에 대한 주제발표로 문을 열었다. 9월 3일에는 이정 이화여대 교수가 ‘철제 솥에 얽힌 옥천사 종이 이야기’, 10월 22일에는 최원석 경상 국립대 교수가 ‘고성 연화산과 우리 산의 인문학’, 유근자 동국대 교수가 ‘옥천사와 산내 암자의 불상 알아보기’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이번 인문학 콘서트는 문화재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지역의 인적 · 물적 자원과 결합해 지역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늘리고, 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존과 전승을 위해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일환으로 진행됐다.

옥천사 자방루(보물)와 청동시루(유형문화재 제627호), 청련암 철제 솥(문화재자료 제662호) 같은 문화재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옥천사 성보박물관장 원명 스님은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은 경상남도와 고성군의 지원과 많은 분들의 성원과 동참에 힘입어 올해도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다”며 “연화산 옥천사와 고성 지역의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그 의미를 함께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첫 강의에 나선 김광식 前동국대 교수는 ‘승군과 항일독립운동의 전초기지 자방루’를 주제로 임진왜란 당시 승병의 거점 역할을 했던 옥천사의 호국정신이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 설명했다.

김 교수는 “임란 당시 승군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왜곡됐고 항일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스님들의 업적이 제대로 조명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옥천사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백초월, 이청담, 빅민오, 박문성, 이종천, 신화수, 백석기, 우태선 등 독립유공자들의 업적을 발굴하고 조명하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백초월 스님에 대해서는 당시 활동했던 한용운, 백용성 스님과 같은 반열의 위상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크콘서트에서는 문화공연과 함께 초청 명사와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묻고 답하며 옥천사 문화유산의 의미를 공유하는 기회도 가졌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큰스님 그림자 다시 새깁니다”

태고종 선암사 선원장
상명 대종사 영결 · 다비

태고총림 선암사 선원장 범청당 상명 대종사의 영결식과 다비식이 지난 8월 19일 선암사에서 엄수됐다.

설선당 앞마당에서 진행된 영결식에는 태고총림 선암사 방장 지암 스님, 원로의원 현오 스님, 주지 시각 스님, 차기 주지 승범 스님을 비롯한 태고종 원로 · 중진스님들과 문도회장 지각 스님, 선암사 대중스님 등 사부대중이 참여해 상명 대종사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이날 영결식은 상명 대종사의 유훈을 따라 간소하게 진행됐다. 설선당에 모신 스님 영정에 참석자들은 헌화하며 대종사를 추모했고, 광주전통불교영산회는 작법 의식으로 영결식을 장엄했다.

의식 후 법구는 미리 마련된 연화대에 안치되고, 참가 대중을 대표해 20여 스님들이 “큰스님 불 들어갑니다” 합송으로 거화와 함께 다비가 엄수됐다.

상명 대종사 상좌인 선암사 주지 시각 스님은 “큰스님은 그동안 수많은 수행과 포교 원력으로 광주전남지역에 많은 도반을 두셨고, 수많은 대중을 포교하신 큰 스승이었다”며 “우리 종단뿐만 아니라 호남 불교계에서도 큰스님의 입적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 종단에서는 더욱 스님의 그림자가 깊이 새겨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은사를 떠나보내는 추모의 말을 전했다.


상명 대종사의 영정을 뒤로 다비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상명 대종사는 15세에 장성 백양사에서 영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9년 봉하 스님을 계사로 득도했다. 1965년 묵담 스님을 계사로 대승 수계를 받았다. 1965년 백양사 불교전문강원 사교과를 수료하고 1970년 통도사 불교전문강원 대교과를 졸업했다.

1971년 백양사 교무를 시작으로 광주 금산사 주지(1973), 서울 백운암 주지(1974), 광주 삼정사 주지(1985), 선암사 교육원장(1996), 선암사 주지(2004), 태고총림 정수원 원장(2006) 등을 역임했다.

2015년부터 태고총림 선암사 선원장을 맡아 입적 전까지 선암사 칠전선원 운수납자들이 수행에 전념하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상명 대종사는 지난 8월 17일 세수 80세, 법랍 65년으로 입적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북불교대학, 20일 동효 스님 초청 특강



(사)부처님세상(이사장 백준기) 부설 전북불교대학(학장 이창구)은 선운사 한주 동효 스님을 초청해 여름방학 특강을 개최했다.〈사진〉 8월 20일 전북불교대학 큰법당에서 열린 동효 스님 초청 특강은 〈반야심경〉을 주제로 진행됐다.

전북불교대학 이창구 학장은 “선운사 동효 스님은 항상 자신을 낮추고 남을 받들며 공부와 수행을 실천해 오신 존경받는 스님”이라며 “스님의 〈반야심경〉 강의를 통해 불교의 진리를 알아 참 나를 찾는 시간을 가져보자”고 말했다. 선운사 한주 동효 스님 “공(空)이 ‘참 나’인 줄 모르고 손님인 색수상행식(色受想行識)을 주인으로 알고 살고 있다.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아 ‘참 나’를 찾고 인연 업과를 기억하며 수행해야 한다”며 “염불하고 수행해서 업을 비워내고 염불삼매에 들어 참 나를 찾아가자”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태고종 수재의연금 기탁 잇달아

전북종무원 · 마이산 탑사 1400여만 원 기탁

태고종 전북종무원과 마이산 탑사가 수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수재의연금을 기탁했다.〈사진〉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은 8월 17일 태고종 총무원을 방문해 총무원장 상진 스님에게 수재의연금 1427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수재의연금은 태고종 전북종무원의 모금활동을 통해 모금된 성금 427만원과 마이산 탑사의 성금 1000만원으로 마련됐다.

태고종 전북종무원은 경북, 충북, 전북지역의 폭우로 인한 수해피해를 입은 지역에 태고종 차원으로 종도들의 마음을 모아 수해의연금을 모아 전달하자는데 그 뜻을 같이하고 모금을 진행해왔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전북종도들의 정성이 담긴 성금은 수해지역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수해지역 주민들이 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상진 스님은 또 “성금을 모아주신 종도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른 시일 내에 허심탄회한 대담을 나누겠다”고 밝혔다.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은 “수해피해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자비를 베풀어주신 종도와 스님, 전법사, 교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수해지역 주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화엄사 원로 종설 스님 다비식 엄수

종국 · 종열 · 덕문 스님 등
문도 · 신도 100여 명 동참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덕문)는 지난 8월 23일 경내 범음료와 다비장에서 화엄사 원로 종설 스님 영결식과 다비식을 엄수했다.

화엄사 문장 종국 스님, 회주 종열 스님, 주지 덕문 스님을 비롯해 화엄사 문도, 신도 등 1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한 영결식은 불교의례에 이어 추모입정, 영결법요, 헌다, 헌향, 행장소개, 영결사, 인사말, 발인 순으로 진행됐다.

종국 스님은 영결사를 통해 “지난밤에 별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달이 큰 바다에 떨어지더니 화엄사의 종설화상께서 환귀본처(還歸本處) 하셨다”며 “낡은 육신 훌훌 털어버리니 그 경계가 어떠합니까. 스님께서야 생사여여 하시고 진리성성 하시겠지만 미혹한 저희들은 그저 막막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이제야 스님의 자취가 더욱 눈에 선하여 소박한 삶의 모습을 다시 뵙고 싶다”며 “스님께서 남기신 덕화와 자애로운 성품을 다시 되새겨 화엄문도를 원융공동체로 이끌고 사바세상에 자비의 씨앗을 설파하겠다”고 다짐했다.


화엄사 원로 종설 스님의 진영에 스님들이 헌향하는 모습.

주지 덕문 스님도 인사말을 통해 “하안거 결제기간임에도 참여해주신 많은 대중스님들에게 감사하다”며 “종설 스님께서는 늘 묵직한 목소리로 저희들에게 덕담 나누시듯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안 계신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허하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늘 정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영결식 마친 종설 스님의 법구는 일주문과 부도탑에서 노재를 지내고 부도탑 위에 마련된 전통 다비장으로 이운됐다. 이후 법구를 연화대에 안치한 후 “큰스님 불 들어갑니다” 합송과 함께 거화가 시작돼 이생과의 마지막 인연을 마무리했다.

한편 종설 스님은 1946년 전남 여수에서 태어나 1974년 범어사에서 도광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1977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화엄사 강원을 졸업하고 천은사와 봉암사, 묘향대, 문수대, 상선암 등 제방선원에서 정진했다. 이후 천은사 삼일암에서 주석하며 수행정진해오다 8월 21일 오전 11시 법랍 50세, 세수 78세로 입적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부안 공군 호국 의상암 이창구 학장 초청법회

부안 공군 제8351부대 호국 의상암이 전북불교대학 이창구 학장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8월 18일 열린 법회는 김윤봉 법사, 부처님세상 백준기 이사장, 전북불교대학 이창구 학장과 학인 20여 명과 제8351부대 김용대 대대장과 불자 장병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법회에서 전북불교대학은 호국의상암의 불자장병들을 위해 발전기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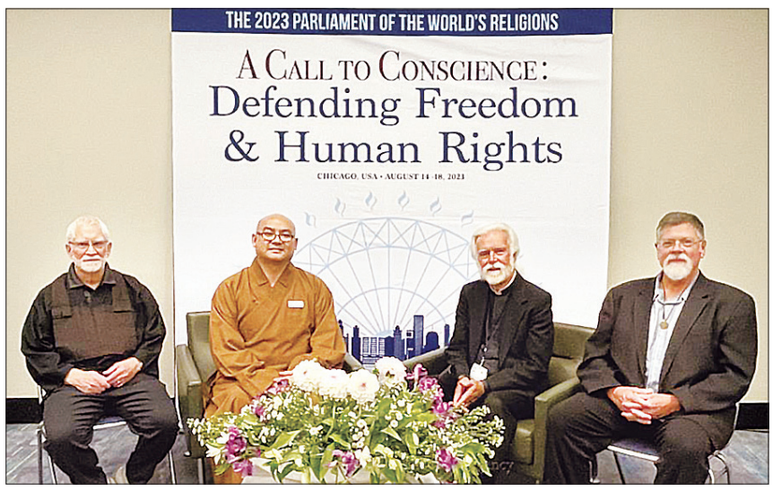
이창구 학장은 법문에서 “군 생활에서는 제일 힘든 것은 몸은 이곳에 있지만 마음은 사회에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익숙하지 않은 낯선 상황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군대가 여러분들에게는 낯선 상황일 것”이라며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게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매월 두 차례 법회를 봉행하고 있는 김윤봉 법사는 “군 장병들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여러분들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지혜롭게 행동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교·그리스도교, 기후 위기 극복 나섰다

8월 14~16일, 세계종교의회
스님·성직자·연구자 등 모여
현대 종교 역할 대한 토론회
기후 문제 자각 명상 시간도

박영빈 객원기자



기후변화 대처를 위해 대화에 나선 불교와 그리스도교. 사진출처=다라이프 뉴스 에이전시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2023년 세계종교의회에서 불교와 그리스도교를 대표하는 종교지도자들과 학자들이 함께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종교인들의 행동에 대한 대화 시간을 가졌다. 8월 20일, 대만의 '라이프 뉴스 에이전시'는 두 종교 간의 의미 있는 토론회에 대해 보도했다.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시카고 맥코믹 플레이스에서 개최된 2023년 세계종교의회. 전 세계에서 다양한 종교의 대표 수천 명이 참석하여 진행된 이번 의회에서는 각 종교간의 대화와 세계평화를 위한 현대 종교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 가운데 16일 오후, 불교와 그리스도교 간에 기후변화와 위기에 대한 토론 세션인 '대화할 시간'이 개최됐다. 불광산사 미국지원인 서래사의 후이저 스님과 유대·그리스도·이슬람학 연구소의 소장 알렉세이 스미스 신부의 공동주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불교, 천주교, 기독교 등 전 세계에서 모인 60명 이상의 스님, 성직자, 연구자, 작가, 과학자 등이 모여 각자의 의견과 경험을 공유했다.

먼저 좌장을 맡은 알렉세이 신부는 천주교를 대표하여 지금까지 기후변화의 위기와 관련하여 불교와 그리스도교가 장기적으로 함께해온 활동에 대해 보고했다. 이후 불경과 성서에 나오는 구절을 암송하고 이와 관련하여 환경과 기후 문제에 관해 명상하는 시간을 총 4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진행을 맡은 후이저 스님은 모든 참가자들에게 각기 들었던 경구들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문장들을 나누고 서로 토론하기를 이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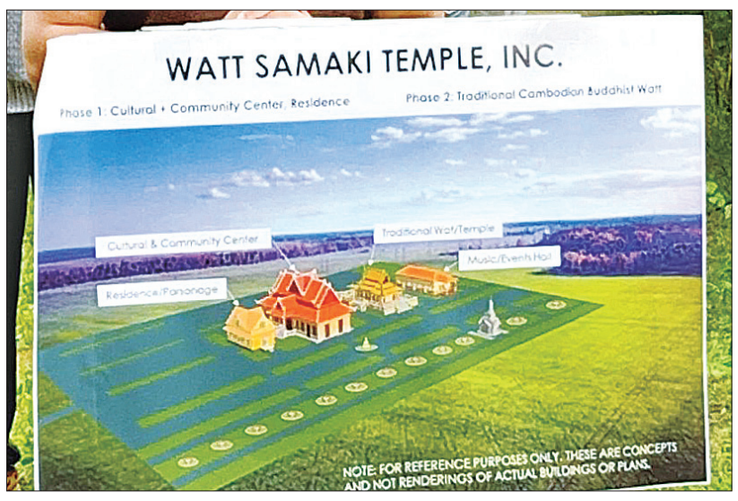
가장 먼저 후이저 스님은 "나는 불교 경전에서 말하는 '일체중생'을 꼽고 싶다"며 말문을 열었다. 스님은 "환경보호를 위한 행동은 인간의 생존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살고 있는 수천 수만 생물의 지속 가능성을 보호하기 위함을 의미한다"며 모두 연기적으로 연결돼 있음을 강조했다.

한 과학 연구원은 "불경에서 말한 '자비와 방편'이라는 말이 인상 깊었다"면서 "나는 그동안 종교인들이 사후에 어떠한 보상을 찾는 것에만 집중한다고 생각했으나 자비와 방편이라는 실천을 통해 종교인들이 이 세상의 문제와 환경을 개선하려 한다는 점을 깊이 알게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천주교 작가는 "이곳에서 열리는 많은 포럼과 강의가 동일한 장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주변소음으로 인해 경구를 듣는 데 집중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현재 미국을 비롯한 다양한 정치환경에서 다양한 매체로부터 솔직한 의견을 얻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경구가 아닌 그 순간의 자리에서 느낀 바를 나눴다. 그는 "다양한 환경보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이념적 노이즈를 극복하고 지구환경의 보호와 인류문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해 많은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英, 캄보디아 사원 불자 주도로 중창 불사

사찰 이전 및 포교원 건립 목적
"인종 상관없이 명상 공간 제공"



왓 사마키 사원 조감도. 사진출처=왓 사마키 사원

영국 벅스턴에 있는 캄보디아 불교사원 왓 사마키 사원의 불자들이 사원 이전 및 포교원 건립을 목표로 중창 불사에 나섰다. 지난 8월 16일 불교전문매체 '부디스트도어 글로벌'은 영국 벅스턴에 위치한 캄보디아 불교 사원 '왓 사마키'의 중창 불사 소식을 전했다.

왓 사마키 사원은 최근 사찰 이전을 목적으로 웨스트브룩 지역에 12헥타르(약 3만 6300평)의 토지를 매입했다. 해당 부지에는 법당, 요사채, 포교원, 이벤트홀 등을 건립할 예정이며 중창 불사 목표액은 150만 달러(한화 약 20억)이다. 중창 불사는 두 단계로 진행되며 1~3년에 걸쳐 100만 달러(한화 약 13억)를 투자해 포교원과 요사채 건립, 3~5년은 50만 달러(한화 약 7억)를 투자해 캄보디아 전통 양식의 법당을 건립할 예정이다. 건설업에 종사 중인 캄보디아 불자들은 중창 운력에 동참하고 있다.

왓 사마키 사원의 불자이자 중창 불사를 주도하는 크메르 메인의 설립자인 '마르핀 챈'은 "우리 캄보디아 불자회는 크메르 루주의 무차별적인 살육과 박해를 피해 영국으로 망명해 지난 반세기 동안 사원을 '집'이라고 불렀다"면서 "코로나 펜데믹 동안 캄보디아 불자회에 새 신도가 늘어 새롭고 더 큰 공간이 필요해 수 년에 걸친 논의 끝에 중창 불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기존 사원은 최대 300명만 수용할 수 있어 법요식 및 캄보디아 전통 명절 행사를 진행하기 매우 어려웠다. 마르핀 챈 설립자는 "새로운 장소에서 부처님의 법음을 널리 전파하고 불교의 대중화와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웨스트브룩으로 건립 지역을 선택한 것에 대해 "캄보디아 인구가 많으며 시에서 캄보디아 공동체 및 사원 건립에 긍정적이었다. 사원과 도시 사이의 연결이 용이하며 도시에서 기꺼이 도움을 제공하기 때문에 최적의 조건이었다"며 이번 지역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사원 및 포교원은 캄보디아 공동체의 문화센터 역할도 함께 수행할 예정이다. 캄보디아 전통 춤, 음악, 예술을 가르치고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더 넓은 지역사회에서 문화 교류와 포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원 건립 부지에 있는 산책로를 유지해 지역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챈은 "왓 사마키 사원은 캄보디아의 정신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질 것이며 앞으로 우리의 문화와 종교를 통해 다문화 시대에 맞춰 지역 주민과 융합될 수 있는 공간으로 나아갈 것"이라면서 "기존 산책로를 유지하여 지역 주민의 편의 및 숲 명상, 숲 치유 테마로 자연스러운 포교를 도모할 것이다. 종교, 인종, 문화와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명상과 기도를 위한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재 객원기자

하와이 산불, 100년 된 사찰도 전소

사탕수수밭 日 이민자 위한 법당
복구 보시금 모연…"재중흥할 것"


산불로 도량 전체를 잃어버린 라하이나 죠도인의 모습. 사진출처=아사히 신문 글로브

지난 8일, 하와이 주 마우이섬에서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산불로 100년이 넘은 일본계 불교사찰도 전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8월 18일 '아사히신문 글로브'는 하와이 불자들과 함께해온 라하이나 죠도인의 슬픈 소식을 주지인 하라 겐쇼 스님의 인터뷰로 특별보도했다.

마우이 섬의 중심부이자, 옛 하와이 왕국의 수도인 라하이나. 이곳에 소재한 '라하이나 죠도인(Lahaina 淨土院)'은 1912년, 사탕수수밭에서 일하는 일본인 이민자들을 위해 개인 집을 빌려 포교당으로 시작된 사찰이다. 현재 마우이 섬에는 라하이나 죠도인을 포함해 3곳의 정토종 사찰이 있으나, 이곳만이 일본식 전통건축으로 전각을 건립했다. 오래된 역사와 함께 관광명소로도 유명한 죠도인은 특히 매년 여름에 열리는 오봉축제를 일본계 이민자들과 현지 불자들이 함께 진행하며 불교문화를 알리며 신행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주지인 하라 겐쇼 스님은 "하와이에선 산불이 흔한 일이다. 불이 라하이나에 오기 전 날까지도 '또 산불인가' 하고 가볍게 생각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그러나 8일 저녁 바람이 거세지면서 경찰과 신도들이 피난을 권고해 대중들과 함께 대피했다. 스님은 "절에서 가장 가까운 대피소로 피난했으나 불이 계속해서 번지면서 두 번 더 대피소를 옮겨야 했다"며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다.

스님은 "본당과 3층탑, 종루까지 모두 불타 버렸다. 다행히 일본계 이민 100주년을 기념해 봉안한 아미타대불만은 소실을 면했다"며 피해상황을 설명했다. 겐쇼 스님은 "불상은 일본계 이민자들이 100년이 넘게 힘든 마음을 들어주던 역사가 새겨진 불상이다. 마지막까지 절을 지키던 스님이 절이 불에 휩싸이는 순간 불을 뚫고 들어가 목숨을 잃지 않고 불상도 구출해 왔다"며 말을 아꼈다. 현재 라하이나 죠도인 측은 전용 펀딩사이트를 개설하여 복구를 위한 보시금을 모으고 있다.

현지 언론들은 현재 마우이 섬의 산불로 사망자는 114명, 실종자는 최고 130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대만 자제공덕회 구호대 조직

100만 달러 기부금 모연 발표



'헬프 힐 마우이' 모금 포스터. 사진출처=자제공덕회

대만에 본원을 둔 세계적인 자선단체이자 인도주의 단체인 '자제공덕회'가 최근 산불 참사로 고통받는 하와이에 구호 활동 및 기부금 모연을 시작했다.

114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미국 하와이 주 마우이섬 산불 참사에 자제공덕회가 미국에 있는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동원해 구호에 나섰다. 또한 이재민 지원을 위한 기금 '헬프 힐 마우이' 모금 계획을 발표했다. 기금은 이재민을 위한 음식, 옷, 가스, 처방약, 기저귀, 임시 숙소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자제공덕회 미국 지회 관계자는 "하와이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의 대참사에 자제공덕회의 자원봉사자들이 신속하게 동원되었다.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미국 적십자, 구세군 및 지역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이재민에게 긴급 현금 카드 배포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헬프 힐 마우이' 모금은 9월 30일까지이며 목표액은 100만 달러(한화 약 13억)다.

지난 8월 13일 자제공덕회 자원봉사자들은 지역 사회에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호놀룰루 차이나타운에서 거리 모금 행사를 진행했으며 긴급 현금 카드는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배포가 시작될 예정이다.

한편, 한때 하와이 왕국의 수도였던 라하이나 섬의 인기 관광 명소인 역사적인 옛 마을도 대부분 소실됐다.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했지만 150년 수령을 자랑하는 반얀트리(뱅골보리수)가 건재한 것으로 확인돼 낙담하는 주민들에게 한줄기 희망이 되고 있다. 김민재 객원기자



오랫동안 국제포교와 어린이포교에 앞장서온
서울 비로자나국제선원 자우스님의 통통 튀는 전법일기!

너의 손을 놓지 않을게

길에서 만나는 모든 부처님, 당신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비로자나국제선원을 개원하고 어린이영어캠프, 영어 참선법회 등을 운영하며 국제포교와 어린이포교에 앞장서온 자우스님이 그간 겪은 좌충우돌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이외에도 백흥암 행자시절과 유학에 이르는 씩씩한 출가수행 이야기와 인연 닿는 곳마다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온 일화들이 스님 특유의 솔직함과 경쾌함으로 그려져 독자들을 미소 짓게 만든다.

이 책이 전법의 길에 들어선 스님들에게는 힘과 용기를 주고,
불자님들에게는 자비심을 증장하는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_ 자우스님 에필로그

자우스님의 자비의 미소가 사람들의 마음에 물결쳐
세상에 환한 빛을 전하기 바랍니다.
_ 정목스님 인터넷 유나방송 대표

비로자나국제선원의 아름다운 보현행이 지구촌 어린이와
청소년의 가슴에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납니다.
_ 미산스님 상도선원 선원장





저자 자우스님 | 1992년 은해사 백흥암에서 출가했다. 동학사승가대학을 졸업하고 제방 선원 정진 후 스리랑카 캘라니아 대학에서 불교학 석사를 마쳤다. 인도네시아 해인사포교원 주지를 거쳐 서울 홍제동에 비로자나국제선원을 개원, 현재까지 국제포교와 어린이포교, 문화포교 등 다양한 포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자우 지음 | 280쪽 | 값 17,000원

사유수출판사 전화 (02) 336-8910 사유수



박방영_향기로운날, 한지위혼합, 69x204cm, 2007

예술로 승화한 부처님 가르침

갤러리 선경 '부처님 향기 되어…' 展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부처님 형상과 사상을 현대미술에 녹아낸 작품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수원 권선구 갤러리 선경은 8월 24일부터 9월 19일 까지 '부처님 향기 되어 세상을 보다' 특별기획전을 대중에 선보인다.

불교미술가와 일반 미술가 27명이 참여하는 이번 특별기획전에는 서양화, 동양화, 판화, 조각, 설치 등 불교적 형상과 의미를 담은 작품들이 약 100여점이 전시된다. 전시에는 텐진쬔뒤, 구담, 도일, 도현 스님을 비롯해 고승희, 김민지, 김선희, 김시현, 김장혁, 남상운, 룡, 문주호, 박경귀, 박방영, 박진홍, 배진석, 백범영, 신상철, 신주호, 이강화, 이동숙, 이상기, 이혜원, 정은혜, 지원진, 차경진, 하춘 작가가 참여했다.

전시에는 파티션 포함하여 약 350평 규모의 전시 공간에 10호 미만 소품부터 100호 이상의 대형 작품까지 다양하게 전시됐다.

이번 특별기획전은 예술적으로 승화된 부처님의 형상과 사상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과 불교적 가치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갤러리선경 텐진쬔뒤 관장은 "불보살의 형상을 예술작품으로 승화한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 가치를 담아내는 훌륭한 방법 중의 하나로 일종의 수행이며, '참나'를 찾아 나가는 일"이라면서 "그림을 본다는 것은 일종의 명상이기에,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 보면서 주변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고 밝혔다.



신상철_사유의기억-3.193.9x250cm oil on canvas 2023

불교 · 일반미술가 27명 참여해

동양 · 서양화 등 100여점 전시

佛法 담어낸 K-미술 전파 의지

이어 "'부처님 향기되어 세상을 보다' 전시를 통해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는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갤러리 선경 전시기획부는 "이번 특별전을 시작으로 불교 미술계와 일반 미술계와의 네트워크 구축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라며 "불교 미술이 전통의 답습 범주를 넘어, 현대미술로서의 방향성을 모색하여 세계 속 한국 미술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힘을 보탤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예배화로 알려져 있는 불화(佛畵)에는 종교적 목적 이외에도 당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고 생각하고 기원했던 염원이 담겨 있다"면서 "그렇기에 불교를 깊이 알지 못하더라도 종교를 뛰어넘어 그림을 감상하는 그 자체로 마음의 평온과 환희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원주 고판화박물관 소장품, 中서 전집 발간

8월 17일 계약 체결…8권 대형 채색전집 출간

원주 명주사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선학) 소장품 관련 도록이 중국에서 전집으로 발간된다.

한선학 고판화박물관장은 "8월 17일 중국 북경연산출판사에서 출판 계약을 마쳤다. 한국 고판화박물관 유물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이러한 결과는 30여년간 모은 한국, 중국, 일본, 티벳, 몽골, 베트남 등 동 아시아 고판화 유물 6000여점의 다문화적인 가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일"이라고 밝혔다.

전집에는 박물관이 소장한 한국, 중국, 일본, 티베트, 몽골, 베트남 등 여러 지역의 고판화 유물 6천여 점 가운데 문화 · 예술적 가치가 높은 유물을 엄선해 수록될 예정이다. 전집은 편집 작업을 걸쳐 8권 분량의 대형 채색전집으로 오는 2025년 출간될 예정이다.

이번 전집의 주편을 맡은 마문대 북경수도도서관 관원은 "중국 출판사상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고판화 유물이 함께 실리는 최초의 출판 기획"이라며 "이눈 고판화 역사에 남을 중요한 출판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한선학 고판화박물관장이 중국 현지서 출판 협약을 맺고 있다.

선지식 법문을 '書道'로 승화시키다

박순하 '깨달음의 노래' 展

통도사 성보博 9월3일까지

40여 년 동안 서예 작품으로 전법의 길을 걸어온 매현 박순하의 전시회가 열린다.

통도사 성보박물관(관장 송천)은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통도사 성보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매현 박순하 서예전 : 깨달음의 노래'를 개최한다.

박순하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부처님의 말씀과 큰 스님들의 선시(禪時), 법문을 작품화해 선보인다. 특히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의 법어와 통도사에서 주석하며 근현대를 대표하는 선사 경봉 스님과 월하 스님의 문집에서 발췌한 문장을 새롭게 서예 작품으로 구성화 했다. 작품은 30여점 전시된다.

이번 전시를 기대하며 내빈들의 축사도 이어졌다.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은 "40여 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묵향에 취해 서법연찬(書法研鑽)에 매진해 온 매현 박순하 선생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라며 " 일자일획에 신심과 원력을 담아 부처님과 조사님의 위대한 가르침을 표현하고자 노력한 흔적을 면면히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신용철 양산시립박물관 관장은 "작가의 작품을 '산마루에 자라난 매화나무와 매화꽃 같은 선서(禪書)'라고 표현한 글을 보았다. 작가의 작품을 처음 보고 느낀 저의 소견도 선(禪)이었다"며 "매현 선생의 작품에는 맑고 투명함이 흐르고 있으며, 글씨에는 독특한 필치가 있고 이것은 다른 작가에게서 볼 수 없는 매력이고 힘이다. 작가의 작품에 담길 큰 스님들의 법문은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박순하 작가는 경북 영천에서 태어나 경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매현서예학원 원장, 향수해 사경연구원 원장으로 활동하며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선 4회 및 특선 2회, 매일서예문인화대전 대상, 경남미술대전 대상, 부산미술대전 대상 등 우수의 공모전 입상 경력과 함께 전시, 심사 및 운영위원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055)384-0010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의 법문을 박순하 작가가 서예로 쓴 작품.

한국불교학회, '한불학 아카데미' 개설

9월 9일~12월 2일 강의

불교 등 강좌 주제 다채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한국불교학회(회장 백도수)가 '한불학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불교인문학 대중화에 나선다. 한국불교학회가 새로 개설한 '한불학 아카데미'는 9월 9일부터 12월 2일까지 2023년 가을 강좌를 연다. 장소는 한국불교학회 사무실인 서울 중구 낙원빌딩 5층이다.

강의는 불교학부터 서양철학까지 다채롭다. 여래장사상 전문가인 이평래 충남대 명예교수는 '대승기신론 특강'(9월 13일~11월 29일,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을, 권서영 다르마키르티사상 연구소장은 '불교인식론의 철학적 이해(9월 12일~11월 28일,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를 강의한다. 백도수 한국불교학회장은 '범어로 읽는 〈법화경〉 강독'(9월 14일~11월 30일,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을, 자홍 스님은 '초급 티벳어 강의'(9월 15일~12월 1일,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을 진행한다.

또한, 조광제 철학아카데미 대표는 '후설의 현상학 강의'(9월 11일~11월 27일, 격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을 맡는다. 메를로-퐁티의 〈지각의 현상학〉 강독하는 강좌도 개설돼 9월 9일부터 12월 2일까지 격주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된다. 강의는 신혜영 프랑스 파리 소르본 대학 박사가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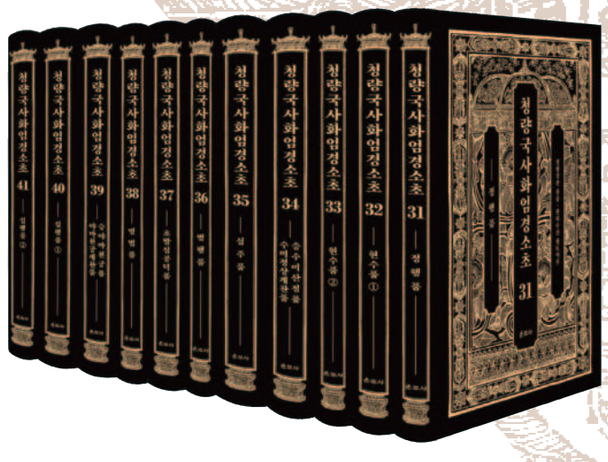
강의 접수는 한국불교학회 이메일(hanbulhak@hanmail.net)로 하면된다. 수강료는 강좌당 12만원이며, 선착순 20명씩 모집한다. 문의(010)2474-7411

신성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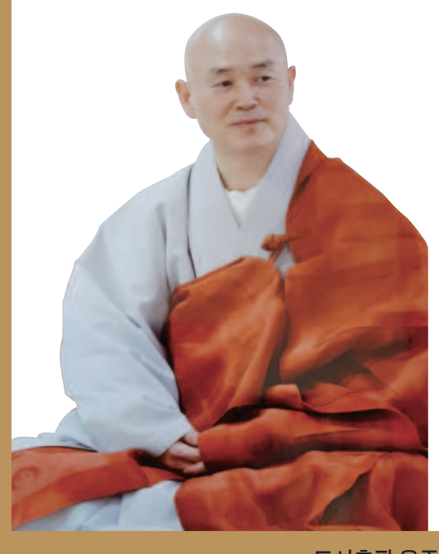
『화엄경』 주석의 결정판, 청량국사의 『화엄경소초』!
1,200년 침묵의 역사를 깨고 이 세상에 처음 눈을 뜨다!

『대방광불화엄경 수소연의초』 4차분 11권 출간!

『청량국사화엄경소초淸涼國師華嚴經疏鈔』 1~41



청량 징관 찬술 / 관허 수진 현토역주 / 신국판양장
(낱권 판매 가능)



이 시대 화엄종주 해인정사 수진 스님이 엮어내는 화엄의 대서사시!

제11 정행품부터 현수품, 승수미산정품, 수미정상게찬품, 십주품, 범행품, 초발심공덕품, 명법품, 승야마천궁품, 야마천궁게찬품, 제21 십행품까지 출간!

원문의 한 글자도 놓치지 않는 고지식할 정도의 꼼꼼한 번역!
역대의 「사기」들을 총망라하여 정리한 상세하고 치밀한 각주!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8/23~8/29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티베트 사자의 서	파드마삼마바	김영사	6	오늘 부처님께 묻는다면	전재성	한국빠알리성전협회
2	철학으로서의 불교	마크 시더리츠	운주사	7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김원수	청우당
3	불교와의 만남	강건기	불일출판사	8	행복한 삶을 위한 부처님 말씀(1)	이철현	오색필통
4	무비스님의 반야심경	무비	조계종출판사	9	관세음보살 42수주 진언 컬러링북	조미애	운주사
5	불교를 꿰뚫다:초기불교에서 선까지 불교의 진수	동현	불광출판사	10	요가 디피카	아헹가	선요가

책세상

'역경보살' 월운 대강백 일생 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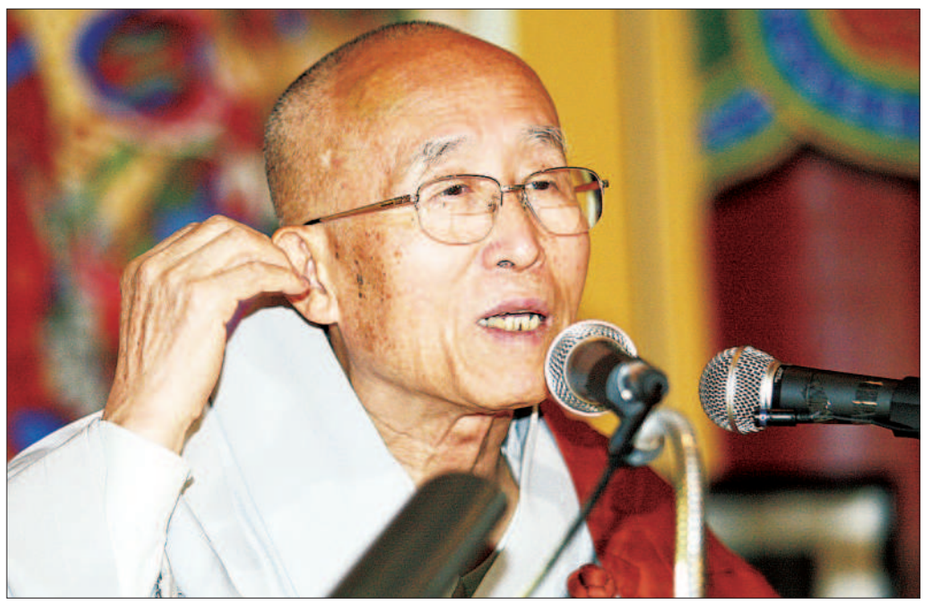


못다 갚을 은혜 :월운 도중사

신규탁 엮음 / 혜성 스님 감수

도서출판 중도 펴냄

2만5000원



지난 6월 16일 원적한 월운 스님
평생 걸쳐 기록한 회고담 엮어내
스님의 49재에 맞춰 출간해 봉헌
'易經 일생' 면면들 만날 수 있어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역경보살로 불렸던 화엄종주 월운당 해룡 대강백(1929~2023)은 지난 6월 16일 남양주 봉선사 다경실에서 원적에 들었다. 이후 8월 3일 대강백의 49재에는 한 권의 책이 영단에 봉헌된다. 바로 〈못다 갚을 은혜: 월운 도중사〉이다.

이 책은 월운 대강백의 자필 회고담으로, 원고는 대강백이 출가했던 1949년부터 쓰신 평생의 일기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월운 대강백은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며 80개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연대순으로 원고를 썼다. 대강백은 해당 원고를 2010년부터 쓰기 시작해 2014년 2월 완성했으며, 신규탁 연세대 철학과 교수에게 건네주며 사후 출간을 당부했었다.

이 책은 월운 대강백이 1949년 출가해 운허(1892~1980) 스님의 제자로 경전을 공부하던 시절부터 1957년 운허 스님의 대를 물려 통도사 강사로 학인들을 교육하던 시절, 1964년 동국역경원이 설립되자 사부 운허 스님을 도와 최연소 역경사로 〈한글대장경〉 역경 작업에 착수해 2001년 완간하기까지 자신과 주변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솔하게 엮어가고 있다.

월운 대강백은 8.15광복과 정부 수립, 6.25한국전쟁, 농지개혁, 정화운동, 10.27법란, 종단 개혁 등 불교계 안팎의 역사적 사건들을 겪을 당시 심경을 자신의 일기를 토대로 2010년 당시의 시점에서 기술하고 있다.

한국불교의 근대교육과 관련한 홍월초 스님과, 월초의 손자 제자 운허(이학수)와 태허(김성숙)의 독립운동과 이순재 스님의 항일재판기록 등에 관한 생생한 기록은 당시 봉선사 스님들의 시대정신을 읽기에 충분하다.

재가불자를 위한 포교 전략으로 세운 '삼화행도' 이론을 비롯해 출가불자들의 전문 교육을 위한 강원(홍법강원, 능엄학림)의 운영과 배출 제자들을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다. '불경서당'을 개원하여 뒷날 대학교수가 된 이들을 길러내던 이야기, '통신강원'이라는 이름으로 카세트 녹음테이프 약 4000개를 녹음하던 이야기 등 교육에 관한 기록은 참으로 장엄하다.

1957년 때부터 임종하기 1년 전까지 60여 년간 집필한 총 98권에 달하는 저술의 원고를 쓰던 당시의 상황과 심정 등이 적나라하게 기록돼 있다. 말년에는 조선시대 전통 강원에서 전래되던 필사본 초서 사기(私記)를 정리하면서, 그 때에 동참했던 제자들에게 칭찬 한마디 못한 게 미안하다는 고백은 수학 제자들의 눈시울을 적시게 한다.

"1996년 능엄학림을 개원하면서 학인들과 경을 '짬지게' 볼 수 있었다. 학인들과 함께 전통 강원 이력 강본 대부분의 사기를 냈는데 그 모두가 능엄학림 학인들과 함께 한 것이었다. 젊어서부터 나는 늘 남의 신세만 졌는데 늘그막에도 역시 그랬다. 학인들과 함께한 시절이 행복했는데, 그들에게 따뜻한 칭찬 제대로 못한 게 마음이 아프다.〈중략〉 능엄학림을 거쳐간 학인들은 장대교망(張大敎網)하여 녹인천어(漉人天魚)할 것이다."

이 회고록을 월운 스님 자신은 '김월운의 회고담; 자초연기(自抄年紀)'라 했는데, 신규탁 명예교수가 출판 과정에서 〈월운당(月雲堂) 도중사(途中事): 못다 갚을 은혜〉로 책 제목을 붙였다. 신 교수는 대학 시절인 1970년대부터 월운 스님 앞에 경전 펼친 인연이 있고, 2018년 월운 스님의 90회 생신을 기념하여 백수를 누리시라고 망백기념(望百祈念)을 담아, 스님 생전의 저술 목록을 비롯하여 그 서문 및 서간, 휘호, 기문, 논문, 유촉문 등을 모아 〈월운당(月雲堂) 가리사(家裏事): 화엄종주 월운당 해룡 강백 문집〉을 헌정한 바 있다.

'월운당(月雲堂)'은 은사인 운허 스님이 지어준 당호이다. '가리사(家裏事)'는 수행자 내면의 살림살이이고, '도중사(途中事)'는 수행자로 살아오는 과정에서 겪은 사건이라는 뜻이다. 이로서 엮은이 신 교수는, 훗날 학자들이 월운 대강백 연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학계에 제공한 것이다.

알아차림 이끄는 싱잉볼 사용안내서



노래하는 그릇

프랭크 페리 지음

김경숙 옮김

도서출판 홍법 펴냄

1만5000원

"싱잉볼은 자신의 본질적인 부처의 본성을 다시 불러일으킨다" –틱낫한 스님

싱잉볼에 관한 종합 안내서가 번역서로 출판됐다. 싱잉볼 이야기 〈노래하는 그릇〉은 1970년대 싱잉볼 선구자로 알려진 프랭크 페리가 지은 책 〈Himalayans Sound Revelations〉를 번역했다.

〈노래하는 그릇〉은 전반적으로 싱잉볼에 대한 교재와 같은 책으로 싱잉볼에 대한 정의부터 명료하게 안내하며 재질 및 다양한 형태, 역사에 따른 변화 등을 소개했다. 아울러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인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기법과 연주방법, 싱잉볼 선택방법을 적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차크라와 싱잉볼과의 관련성을 설명하고 수행 방향 및 방법을 안내했다.

책은 원문 내용을 쉬운 언어로 번역해 충실하게 담았으며 △제1장 싱잉볼은 무엇인가 △제2장 싱잉볼은 어떻게 활용하는가 △제3장 싱잉볼의 소리만들기 △제4장 차크라와 싱잉볼 △제5장 다양한 종류와 싱잉볼 △제6장 싱잉볼 선택 △제7장 싱잉볼로 수행하기로 구성됐다. 마지막에는 역자가 대표로 포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단법인 싱잉볼치유의소리 활동내용이 담겼다.

역자 김경숙 대표는 무엇보다 불교의 법구(法具)로 싱잉볼의 가치를 강조했다. 역자는 싱잉볼을 붓다볼로 부르며 '알아차림' 수행을 강조한다.

김경숙 대표는 "싱잉볼은 대중적으로 알려져있는 이름이며 저는 붓다볼로 부른다"며 "붓다는 깨어있는 자를 의미한다. 이 책이 깨어있고 수행의 길을 걷고자 하는 분들의 길잡이가 되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볼(bowl)은 음악적으로



역자 김경숙 싱잉볼치유의소리 대표가 싱잉볼을 연주하고 있다.

불교 法具로 싱잉볼 가치 강조
"종로시로 고요함 가질 수 있어"

는 종(bell)과 관련이 있다. 우리는 종소리를 통해 마음에 선명함과 고요함을 가질 수 있으며, 존재를 지금 현재 순간으로 이끌어온다"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는 알아차림의 순간이다"고 말했다.

저자 프랭크 페리는 1948년 런던 햄프스테드에서 태어나 1964년부터 음악을 시작했다. 블랙 캣 본즈 등 그룹에서 타악기 연주자로 활동했으며 1970년대 싱잉볼 연주의 선구자로 알려져있다. 소리와 음악 등을 연구했으며 명상가로 영적 치유에 앞장서왔다.

역자 김경숙은 사단법인 싱잉볼치유의소리 대표이며 네팔에서 히말라야 싱잉볼 마스터 코스 등 다양한 테라피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불교상담전문가 1급이며 동국대학교 불교학 박사를 수료했다. 신라대 음악과 외래교수이며 동국대 불교상담연구원 연구원, 한국불교상담학회 이사이다. 부산시와 경남에서 주관하는 공공 기간단체 힐링연수와 교사 힐링 연수 프로그램, LG CNS 기업 외 기업 등에서 다양한 예술치유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소원 성취", 사경 독송 공덕

"만일 어떤 사람이 경전을 베껴 쓴다면(寫經) 이것은 곧 부처님 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받게 되느니라." (대방광불화엄경)

민족사 사경 시리즈의 특징

- 한 권 속에 번역(한글), 원문(한문), 한자 독음이 붙어 있어서 사경과 독송이 동시에 가능!
- 사경의 방법과 목적 등 자세한 안내가 있어 혼자 사경하는 불자들의 길잡이가 됨!
- 책장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제본되어 사경과 독송하기 매우 편함!



1 금강반야바라밀경 (한글)
지혜 성취 기도
8,500원



2 금강반야바라밀경 (한문)
지혜 성취 기도
8,000원



3 아미타경 (한글·한문)
극락왕생 기도
7,500원



4 관세음보살보문품 (한글·한문)
고난 소멸 기도
7,500원



5 부모은중경 (한글·한문)
효행 기도
8,5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성파 대종사, 어린 시절 청명한 선시 묶다



온계시초(溫溪詩草)
성파 스님 원작
성범중 역주
도서출판 통도
2만원

16세부터 18세까지의 소년 시절
65년 동안 빛바랜 공책 內 선시
성범중 명예교수 역주해 묶어내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청소년 시기의 씨줄과 날줄이 짜는 '교차점'에는 '동적(動的)인 생동감'이 가득하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사진>가 최근 발간한 〈온계시초(溫溪詩草)〉에는 동적인 생동감이 가득하다. 〈온계시초〉는 성파 대종사의 청소년 시기가 담겨 질박하면서 맑고 푸르다. 성파 대종사가 16세부터 18세까지 풀어낸 한시(漢詩) 묶음이 빛바랜 공책에 담겨 65년 동안 세상의 빛을 기다리다 모습을 드러냈다.

성파 대종사는 책을 내며 "모든 삶에는 저마다 가치가 들어있고 저마다의 색깔로 각자의 삶을 물 들여 전체적으로 소중하고 아름다운 하나의 꽃, 즉 인생을 피워낸다"고 했다. 출가 전 지은 작품으로 고졸(古拙)한 구절도 발견될 수 있지만, 오랜 시간을 건너 독자의 마음을 만나는 현묘한 거울이 되어 줄 것을 성파 스님은 기대했다.

〈온계시초〉는 대종사가 출가 전 고향 합천에서 서당 강성재(講性齋)를 다니며 쓴 한시를 엮은 것이다. 두루마리에 있던 한시를 1958년 2월 공책에 옮겨 적었고 공책을 간직했다. 책은 총 201수 가운데 펜으로 금을 그어 지운 작품 3수와 짓다가 미완으로 남긴 작품 15수를 제외하고 192수를 소개했다. 책은 공책에서 시를 시체별(詩體別)로 정리해 절구 61수(오언절구 4수, 칠언절구 57수), 율시 130수(오언율시 18수, 칠언율시 112수), 고시(古詩) 1수로 나눠 정리했다. 고시 1수는 강성재 서당의 훈장 정산 한 선생(靜山 韓 先生, 본명 미상)의 덕을 칭송한 내용이 담겼다. 책은 원본을 그대로 옮겼고 성범중 울산대 명예교수가 번역하고 주석을 추가했다. 마지막에는 역주자인 성범중 울산대 명예교수의 후기가 실려있으며 시집에서 드물게 색인을 실어 독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도서출판 통도'가 출판 등록 후 처음으로 펴낸 단행본이며 표지는 성파 대종사가 직접 쓴 친필이다.

제목 〈온계시초〉의 '온계(溫溪)'는 실재하는 지역명이 아니다. '따뜻한 시내'를 표현하는 글로 성파 스님의 소년 시절 마음을 담은 자호(自號)이다. 성파 스님은 소년 시절 합천 가야산에서 흘러 내려오는 냇물을 바라보며 서식하는 물고기와 수생식물들이 좀 더 안온하게 살기를 기대하며 따뜻한 환경, 따뜻한 계곡물을 기원했다. 차가운 계곡물을 시련의 삶으로 여기며 모든 생명이 따뜻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소년의 마음이 담긴 제목이다. '시초(詩草)'는 한시들 가운데 선택했다는 의미이다.



스님은 어린 시절부터 한시에 두각을 드러낸 재동(才童)이었다. 경남 합천의 원로 유학자들이 참가하는 봄, 가을의 시회(詩會)에 참가해 어른들의 사랑을 받았고 시회에 참가해 적은 시들을 주최자들이 가져가 이번 한시 역주에 싣지 못한 아쉬움도 크다고 했다. 책에는 스님이 서당교육 첫 과목으로 〈명심보감〉을 공부할 때 있었던 일화도 소개한다.

〈천명편(天命篇)〉의 구절 가운데 "소강절 선생이 이르기를 '하늘의 들으심이 고요하여 소리가 없으니 푸르고 푸른데 어느 곳에서 찾을 것인가? 높지도 않고 또한 멀지도 않으며, 모두가 다만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셨다"를 읽고 화두를 구하듯 사나흘 동안 '마음'을 참구했다. 대종사는 당시 "아심여명경(我心如明鏡)하여 조진불염진(照塵不染塵)"이라는 구절이 나왔고 "나의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아서 티끌이 비치기는 하지만 티끌에 물들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했다. 당시에는 한시를 지을지 모르는 상태여서 진솔한 마음으로 지은 글이다.

성파 대종사의 한문 공부는 서당 강성재에서 3년간 수학한 것이 전부였지만 〈명심보감〉, 〈소학〉, 〈논어〉, 〈맹자〉, 〈중용〉, 〈시전〉, 〈서전〉을 공부하며 탄탄한 한학의 입지를 마련했다. 이후 발전해 스님의 시조 사랑은 문학 후원으로 이어져 '성파시조문학상'이 40회를 맞았고 시조 부흥과 명맥을 이어 시조 문학 부흥의 기틀을 구축했다. 스님은 한학 경전 연구를 강조하며 후학 양성에 주력할 계획으로 통도사 경학원(經學院) 불사도 진행한다.

조계종 종정예하 성파 대종사는 1939년 합천에서 태어났으며 자호는 온계(溫溪)이다. 1960년 통도사로 출가했으며 법호는 중봉(中峰)이다. 1981년 통도사 주지, 2018년 통도사 방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 15대 종정이다.

새로 나온 불교 易書들

쉽게 풀은 '금강경' 해설서



금강경의 핵심 교설을 말하다
김대우 번역 / 불교시대사 펴냄
1만5000원

〈금강경〉은 그 뜻을 모르고 독송하더라도 공덕이 있다고 한다. 그만큼 〈금강경〉은 힘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당장은 뜻을 모르고 읽는다 하더라도 여러 번 반복해서 읽다보면 조금씩 그 뜻을 알아갈 수 있다.

〈금강경〉은 경전 중에도 많은 번역서가 있다. 이 책은 저자가 느끼고 깨우친 〈금강경〉을 독자들이 쉽게 이해를 하도록 해설했다. 전문을 해석한 것이 아니고 저가가 깨친 바를 풀어 놓았기에 생경하기도 공감도 가기도 할 것이다. 그렇기에 저자는 책의 내용을 줄이고자 노력했다고 한다.

〈금강경〉의 핵심적인 교설을 엄선하여 직역을 하고자 하였으나 한자 문법의 특성상 의미를 함축한 내용이 대부분이므로 직역을 한다면 학문의 이해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 일반 독자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이해가 쉽지 않아 책을 멀리할 것이기에 한자 문구의 의미를 풀어서 의역했다.

만해 스님 유일 선학 주해서



십현담 주해
한용운 지음 / 서준엽 번역
여의운하 펴냄 / 1민 2000원

만해 한용운 스님의 〈십현담 주해〉는 그가 1925년 여름 설악산 오세암에서 우연히 15세기의 김시습의 〈십현담 요해〉를 읽었던 일이 계기가 되어 쓴 책이다. 이는 그가 서문에서 직접 밝혔다. 〈십현담 주해〉는 생애의 기로에서 산속 암자에 들어와 자신의 절박한 실존을 응시하던 40대 중반의 독립운동가이자 승려인 인간 만해 스님이 절망 속에서 동안 상찰(?~%1) 선사의 〈십현담〉 10편 80구 하나하나를 음미하고 참선하는 과정에서 마침내 큰 깨달음을 얻고 삶의 활로와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발견하고 나서 완성한 저술이다.

그의 지속적인 참선과 깨달음의 산물이 바로 〈십현담 주해〉로 스님이 남긴 유일한 텍스트 주해서다. 만해 스님은 오세암에서 〈님의 침묵〉을 집필하기 2개월 전 같은 공간에서 〈십현담 주해〉를 탈고한다. 때문에 〈님의 침묵〉을 이해하려고 할 때 반드시 정독해야 할 텍스트가 바로 이 〈십현담 주해〉다.

'화엄경' 진수 맛보고 싶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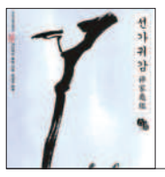
청량국사화엄경소초 31~41
청량 징관 찬술 / 관허 수진 현토 역주/ 운주사 펴냄 / 2~3만원

청량국사의 〈화엄경소초〉(대방광불화엄경수소연의초)는 80권본 〈화엄경〉에 소(疏) 60권, 초(鈔) 90권을 붙인 방대한 분량에, 대소승의 경(經)과 논(論)은 물론이고 유가(儒家)와 노장(老莊)까지 종횡으로 넘나드는 상세하고 치밀한 해설을 붙여, 가장 뛰어난 〈화엄경〉 주석서로 꼽힌다.

그럼에도 이제껏 그 완역본을 만날 수 없었던 것은, 역설적으로 너무 방대한 분량에다 폭넓고 다양한 사상을 품고 있어서 누구도 선뜻 번역할 엄두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본 역주서는 원문을 제외하고 번역문만 원고지 10만 매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원문 현토와 함께 원문의 한 글자도 놓치지 않는 고지식할 정도의 꼼꼼한 번역과 역대의 〈사기〉들을 총망라한 상세한 각주를 달아 놓아서 한국불교의 사상적 근간인 화엄사상을 이해하는 나침반이 될 것이다.

한글본 '선가귀감' 저본 삼다



선가귀감
휴정 지음 / 정길수 편역
돌베게 펴냄 / 1만7000원

〈선가귀감〉은 서산대사 휴정이 불경(佛經)과 선승의 어록(語錄)에서 선불교의 핵심 어구를 뽑아 만든 책이다.

〈선가귀감〉은 현재 한문본(묘향산 간행본)과 한글본(송광사본) 두 가지 판본이 존재하지만 한문본이 정본이라는 게 대다수의 입장이다. 그러나 역자 정길수 교수의 의견은 조금 다르다. 한글본(송광사본)이 최초 출간된 한문본과 시기상으로도 가까울 뿐만 아니라 휴정의 최초 저술 형태를 충실하게 간직하면서 의미 맥락을 파악하기 쉬운 측면이 있다고 본다. 이에 정 교수는 한글본을 저본으로 삼고, 필요한 경우 한문본에 추가된 주해와 송(頌)을 함께 제시해서 두 본의 장점을 아울렀다. 이 책은 한문본(묘향산 간행본)을 번역한 기존의 책들보다 최초의 한문본에 더 가깝고, 한글본과 한문본을 비교하여 빠트린 내용 없이 충실하게 번역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정본의 정립이라 이를 만하다.

가장 정확한 '치문경훈' 易書



치문경훈
현진 스님 옮김
불광출판사 펴냄 / 5만원

불문(佛門)에 들어온 초심 수행자를 위한 옛 어른들의 경책과 교훈을 모은 책이 바로 〈치문경훈〉이다. 예비 스님인 사미·사미니는 경전과 어록보다도 먼저 〈치문경훈〉을 공부하면서 어른들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난자(難字)가 가득한 원문을 읽고 해석하면서 한문으로 된 불서(佛書)를 읽고 공부하기 위한 기본기를 다져 나간다.

이 책은 역경 불사에 매진하겠다는 서원으로, 현진 스님이 1936년부터 현재까지 전통 강원에서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진호 스님의 〈정선 현토 치문〉을 꼼꼼히 번역한 것이다. 누락이나 중략 없이, 한문으로 된 본문과 주석을 모두 담고 꼼꼼히 우리말로 옮겼다.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직역하되, 압축되거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풀어쓰거나 도움말을 첨가하는 등 〈치문경훈〉을 공부하고자 하는 이와 읽고 싶어 하는 이 모두를 배려했다.

한국불교의 살아 있는 큰 스승 학산 대원 대종사의 강설로 만나는



간화선(看話禪)의 진수, 조주록(趙州錄)!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장장 6년간의 강설을 하나로 엮은
조주선(趙州禪)의 진미(珍味)

오늘날 간화선을 대표하는 공안으로 자리한 조주 선사의 탁월한 선기를 보여주는 어록은 물론 그에 대한 『선종송고연주』, 『선문염송』, 『염송설화』의 내용을 싣고, 학산 대원 대종사의 착어와 송을 더해 고준한 선(禪)의 세계를 펼친 단 한 권의 책!

♦ 상권 ♦ 1칙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 ~ 223칙 적면사(覿面事)
♦ 하권 ♦ 224칙 진불(眞佛) ~ 525칙 연화(蓮花)

학산 대원 대종사 鶴山 大元 大宗師

1956년 출가하여 오로지 구도의 길만을 걸어오신 우리 불교 대표 선승.
1986년 계룡산 옛 제석사 터에 학림사를 다시 세울 때까지 제방의 선원을 돌며 효봉, 동산, 고암, 경봉, 전강, 향곡, 성철, 구산, 월산 스님 등 여러 선지식들 회상에서 정진했다. 지금도 후학들과 나란히 앉아 용맹정진해 오고 계시는 큰스님은 간화선 수행 가풍의 진작과 선불교 대중화에 진력하고 있다.



상696쪽
하816쪽
양장본
각 60,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백금남 소설 아디카야의 검 31 회광반조 1



▶한줄 요약
이 기자 일행은 뉴델리에 도착하자마자 합류한 심 작가와 함께 아이슈 무쿠암 동굴의 주인을 만나기 위해 경유지인 사알리역 행 기차를 탔다.

사라진 아이슈 무쿠암 동굴 주인을 찾아서…

차는 잘도 달렸다. 오오스마 기자의 핸드폰이 드디어 터졌다. 말이 없던 오오스마 기자의 얼굴에 비로소 생기가 돌았다.

-왜 그렇게 전화가 안 돼?

분명히 심 작가였다.

-아무리 인도가 인터넷 강국이라고 하더라도 스리나가르 골짝까지야 핸드폰이 터질 리가 있나 이 사람아.

-지금 어디야?

-뉴델리로 돌아가는 중이야.

-그쪽 일은 어떻게 됐어?

-몰라.

-왜?

-암튼.

-왜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이상한 문제에 부딪히고 있어. 갑자기 예수의 지팡이가 등장하는 바람에.

-예수의 지팡이?

-무쿠암 석관 속의 검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검이 아니고 예수의 지팡이라는 사실이 제기된 거야.

-무슨 소리야? 이미 그건 내시경에 의해 판명 났잖아. 지팡이가 아니었다고….

-그렇다고 검이라고 하기엔….

-하긴 옛날에 그런 말들이 있었어. 영국 모 방송국에서 그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확실한 건 없다고 판명 났잖아. 불교도들을 의식한 이슬람의 장난질일지 모른다고.

-어쨌거나 그 바람에 제정신들이 아니야.

-그렇겠네.

오오스마 기자가 웃었다. 햇살이 웃는 그의 얼굴에 물들어 있었다. 보기가 좋았다. 꼭 햇살에 물든 물너울이 그의 얼굴에서 일렁거리는 것 같았다.

-자네가 같이 왔다면 좋았을걸.

오오스마 기자가 말했다.

-그래도 날 생각해주는 사람은 그대밖에 없네. 하하하

-불쌍해서지. 사실 이런 종류의 사건은 소설에나 어울릴 것 같거든.

-정말 성과가 없었던 모양이네.

-전번에는 동굴 주위에 사람도 살았고 군인들도 지키고 있었잖아.

-그런데?

-텅 비었어. 허허벌판이야. 사람 그림자라고는 보이지 않는다니까.

-그래? 그럼 동굴 안은?

-석관은 그대로 있더군. 빈 것이었어.

-역시 이미 늦었다는 말이로군!

-거기다 예수의 지팡이 설까지 제기되었으니. 문제는 동굴 주인을 찾아야 할 것 같아. 전에 왔을 때 동굴 주인이라던 주민이 있었잖아. 보지는 못했지만, 그 사람 집도 비었고 폭삭 내려앉았어.

-그럼 그곳 관청이 있을 거 아냐. 그가 어디로 이주했는지 알아보면 되겠네.

-관청이라고 하지만 제대로 알려 주겠어.

-가보긴 했고?

-내가 찾아가 보았는데 모르쇠야. 전에도 그랬잖아. 자기들은 아무것도 모른대. 그곳에 살던 주민이 어디로 이사를 한 것이냐고 물어도 노야. 모른대. 모를 리가 있느냐고 했더니….

-했더니?

-어느 날 사라져 버렸는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는 식이야. 넨장 관청 찾기도 쉽지 않더라고.

-하기야…. 원체 이동이 심한 나라니, 안다고 해도 가르쳐주겠어.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 예수의 지팡이냐? 아디카야의 검이냐? 동굴을 지키던 그 사람을 만나야 확실해질 것 같은데….

-아디카야의 검이라고 대서특필했던 신문사도 그렇겠네.

-그래. 내가 뭘 잘못 알고 긁은 거 같기도 하고…. 그러니 한 번 알아봐. 저번에 대사관에 아는 선배가 근무하고 있다고 했지? 고위층과 잘 통하는 선배가 있다고 했잖아. 그 성물이 문화재급이라면 혹시 알 수 있을지도 몰라.

-젠장할, 그렇게 따지면 네가 났지. 신문사 인력을 가동시키면….

-안 돼. 지금 정치인들 잘못 건드려 신문사가 벌컥 뒤집어졌어.

-아무튼 알았어. 알아볼게. 그것도 모르고 하하참….

잠을 깬 배낭족 하나가 듣다못해 역정을 내자 오오스마 기자가 미안한지 눈치를 보다가 좀 소리를 죽였다. 그래도 그는 우리가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상 아랑곳하지 않을 눈치였다. 오오스마 기자는 우리들의 침묵 때문에 오히려 더 큰소리를 내는 것 같았다. 과장된 어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실망으로 인해 말이 없어져 버린 동료들을 어떡하든 깨워볼 양으로 그는 헛웃음을 계속 치고 있다는 걸 송 서화가나 내가 눈치 못 챌 리 없었다.

핸드폰의 성능은 좋아 보였다. 심 작가의 말이 두 사람의 귀에까지 들릴 정도니. 아니 그만큼 뉴델리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였다.

송 서화가와 나는 멍하니 오오스마 기자의 통화 내용을 듣고 있다가 서로 쳐다보았다.

전화가 꺼졌다.

-뭐래요?

내가 시큰둥하게 오오스마 기자에게 물었다.

오오스마 기자가 어깨를 으쓱했다.

-들었잖습니까. 동굴 주인이나 찾았으면 좋겠군요.

허 참! 하고 송 서화가가 혀를 찼다.

심 작가를 만나 자이누딘 왈리 쉼라의 후손 왈리 슈트라 쉼라가 있다는 곳을 향해 네 사람이 출발한 것은 뉴델리에 도착하는 즉시였다.

심 작가의 말에 의하면 이상하게 문화재를 관장하는 부처에 스리나가르 아이슈 무쿠암 동굴은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고 했다. 지질과에 가보라고 해서 국토 지질부에 가보았더니 거기 무쿠암 동굴 주인의 이름이 나오더란다. 그것도 아는 사람이 있어 다행이었다고 했다. 정부 요직에 있으니까 알아볼 수 있었다고 했다.

-어디로 옮겼대?

-아마 동굴 속 성물 때문에 요주의 인물이 되었던 모양이야. 세계적 논쟁거리가 되니까 이곳저곳에서 찾아오고 그러니 정부에서 간섭을 좀 했던 모양인데….

-그럴 것 같더라니까. 전번에 왔을 때부터 그런 기미를 느꼈잖아. 그래서 그냥 온 것이야. 그곳 관할 관청 그때도 시치미를 딱 떼었잖은가. 성물을 어떻게 볼 수 없겠느냐고 했더니 주인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둥 그 주인이 그때 없었잖아. 어딨냐고 했더니 모르겠다는 둥…. 아무튼 다행이네. 어디야? 그 동굴 주인 있는 곳이?

-다행히 그 관할부처가 뉴델리에 있었기 망정이지.

-뉴델리에서 좀 떨어진 로봄인쿠르라는 곳이야.

그렇게 말하고 심 작가가 주소 하나를 내보였다.

-그럼 성물은 인도 정부로 인계된 것인가?

-그걸 모르겠다고 하더군.



-응?

-소유권은 쉼라 가문에 있다고 하는데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부에서 나서니까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다는 것이야.

-이상한?

-성물이 없어졌다는 것이지.

-없어지다니? 그래서 빈 석관? 그런데 손을 댈 수 없었을 텐데 어떻게?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다는 거지. 필시 쉼라 가문에서 빼돌렸다고 정부에서는 생각하는 모양이고 그 바람에 요주의 인물로 찍힌 모양인데….

-무슨 증거라도 있을 거 아냐?

-감시 카메라에 자이루딘 그러니까 동굴 주인이 석관에서 상자를 들어내 나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는 것이야.

-아니 주인이 아니면 손도 못 댄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모르겠다는 것이야. 어떻게 그 성물이 동굴 주인에게 몸을 허락했는지….

-이상하긴 이상하네. 그럼 대답은 나온 거 아냐. 자이루딘의 후손이 그 성물의 주인이라는 말이 아닌가?

-설마? 그러잖아도 그래서 인도 정부에서 닦달했던 모양인데 지금까지 성물을 어디다 숨겼는지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야.

-아무튼 일단 그 사람을 만나봐야 대답이 나오겠네.

역으로 향했다. 로봄인쿠르로 바로 가는 기차는 없었다. 사알리 역에서 다시 갈아타야 갈 수 있는 곳이었다. 기차에 오르기 전 음료수와 먹을 것을 준비했다. 인도에서는 기차만 탈 줄 알아도 여행의 반은 성공한 것이라는 말이 있다. 인도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철도망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한 번 타려면 탑승 시간만 수 시간이 걸린다. 그만큼 여행객이 많다는 말이다. 열차의 종류도 우리나라와 별반 다르지 않다. 객실도 다양하다. 현지인이나 여행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등급의 기차를 어렵게 탈 수 있었다. 인도 기차는 고유의 기차 번호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기차 번호와 이름을 모르고는 예약이 가능하지 않다. 그걸 알고 있는 심 작가가 스리나가르에서 돌아오는 사이 딱 갈표를 끊어 놓았다.

딱갈표란 표를 구하기 어려울 때 수수료에 추가 요금이 붙는 표를 말한다. 공식 표 요금의 두 배를 훌쩍 뛰어넘는 금액을 지불해야만 살 수 있는 표다.

기차에 오르자 잡상인들이 여기저기 보였다. 여행객들이 제 세상을 만난 듯 이곳저곳에서 현지인들과 수다를 떨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그녀와 함께 배낭을 메고 처음 왔을 때였다. 객실에서 카메라를 꺼내 보다가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 보니 카메라가 없었다. 맞은편에 가족이 밥을 먹고 있었다. 정말 다정해 보였다. 그녀와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었는데 자꾸 음식을 권했다. 괜찮다고 했더니 같이 먹자고 했다. 그들이 내미는 음식을 먹고 잠이 들었다. 약 기운이 가시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니까 아무것도 없었다.

때가 되었는지 승무원들이, '브렉퍼스트? 런치 런치? 디너르 디너르?' 하면서 돌아다녔다.

고를 수 있는 요리는 일반적으로 채식 탈리와 육식 탈리로 구분되는데 오오스마 기자가 치킨을 두 마리 시켰다. 잠시 후 주문한 음식이 배달됐다. 시장기가 가시자 졸음이 쏟아졌다. 그녀가 바닷가에 서 있었다. 헤엄을 배우지 못했던 나는 바닷물에 발만 담그고 있었다.

-왜 돌아온 거야?

내 물음에 그녀가 눈을 감으며 고개를 내저었다.

-난 떠난 적 없어요. 그 사람과 나 사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자기죠. 물이 차네요.

그녀도 발을 바닷물에 발을 담그고 있다가 말했다.

내가 용기를 좀 내어 걸어 들어갔다. 허벅지가 잠길 정도의 물 깊이였다.

-들어와. 따뜻해.

그녀가 가까이 다가왔다.

-정말 따뜻하네요.

그녀가 물고기처럼 헤엄쳐 나갔다.〈계속〉

한국불교전통범패 학인모집

위 본 종단 종무원에서는 강주 민지효 스님을 모시고 전통범패의식을 기초의식부터 각종 의식과 사물 다루는 법을 알기 쉽게 교육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 연락 바랍니다.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신 분은 종무원장님으로부터 수료증(이수증)을 수여하며, 성적이 우수한 학인에게는 홍익범패단에 입단하실 기회를 드립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 개 강 : 2023년 9월 5일 화요일 오후 2시
■ 장 소 : 한국불교태고종 종무원 법당
■ 주 소 :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47 청하빌딩 4층
■ 접수처 : 부산 종무원 (051-5580-5077)
■ 강 주 : 민지효 (스님 010-4466-3575)

내 용

1. 조석예불 : 아침종송, 향수해례, 사성례 등
2. 사시예불 : 거불성, 독경, 동음 등
3. 삼귀의, 사홍서원, 거불, 헌좌게, 도량게 등
4. 천도의식, 수륙제, 점안의식, 화청, 공덕게
5. 천수바라, 사다라리바라, 요잡, 관욕바라
6. 도량게, 다게(나비춤), 법고춤

태고종 부산종무원 원장 마나

국가무형문화제 50호 영산재(세계유네스코 등재)

법주 대륜 스님의
'불교 전통제례의식 교본' 출시

49재 및 천도재 의식 교육자료



고객상담실 010-9049-0016 교재문의 010-6488-3761

구미래의 새롭게 만나는 불교의례 16 강원생활



▶한줄 요약
스님들의 강원 생활은 도반들과 함께했기에 힘든 일일수록 수행으로 여길 수 있었고, 대중의 눈에 비친 서로의 모습에서 수행자의 면모를 가다듬어갈 수 있었다.

‘스님 사관학교’…수행자 면모 익히다

학업과 노동의 병행

행자생활을 마치고 사미계를 받은 스님들은 강원(講院)에서 4년간 공부와 수행에 전념하는 학인으로 살아간다. 계를 받고 예비 스님이 되었으니 사찰에서는 이들을 ‘새 중’이라 부르기도 한다. 전국의 예비 스님들이 강원을 운영하는 사찰에 모여 학생 신분으로 배움의 길을 가는 가운데, 출가자로서 사중의 일을 두루 맡아 하나씩 익혀가는 시기이다.

예나 지금이나 학인들은 대방에서 숙식과 공부를 하며 함께 살아가, 출가자의 일생을 통틀어 진정한 대중생활이 이루어지는 때이기도 하다. 인원이 많아 전체 학인을 한방에 수용할 수 없으면 고학년의 순으로 별도의 요사에 기거하게 된다. 같은 학년은 졸업 때까지 한 공간에서 살아가게 되니, 일생을 함께할 마음 맞는 도반도 강원에서 만나게 마련이다.

한국사찰의 강원은 엄격하기로 이름 높아 ‘사관학교’라 불리기도 한다. 이에 사찰의 규범을 따르는 가운데 또 다른 공동체에 소속된 학인들의 허물에 대해 가차 없는 경책이 따랐다. “사방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는 눈들이 많아 여기저기서 얘기가 막 들어온다”고 하듯이, 행자시절에는 용서되던 일도 학인 때는 평가가 엄격해지는 것이다.

어렵던 시절에 강원의 가장 큰 문제는, 많은 학인의 식생활을 해결하는 것이었다. 농사지을 땅이 넉넉한 절에서는 자급자족으로 식량을 충당했지만, 논밭이 없거나 부족한 절의 학인들은 자비량(自費糧)으로 쌀을 내야 했다. 1956년에 최초로 비구니 강원을 연 동학사는 본래 전답이 없는 가난한 살림인데다 땅이 척박하여 논밭을 거의 일구지 못했다. 이에 학인들은 방학 때마다 열심히 탁발하여 다음 학기 곡식을 마련하거나, 은사의 절에 가서 행사를 도우며 식량을 얻어왔다.

반찬거리 또한 턱없이 부족하여 마을에서 잘 먹지 않는 작물을 얻기도 하고, 김장을 아주 많이 하여 주된 반찬으로 삼았다. 고춧가루는 적고 소금을 많이 넣고 절여 물을 부으면 그대로 김칫국이 되는 짜디짠 김치였다. 돌림 소임으로 별좌(別座)나 채공(菜供)을 맡은 학인이, 철 지난 들과 산을 헤매다가 먹을 만한 푸성귀를 발견하여 된장을 풀고 국을 끓이면 환호를 받았다. 이러한 사정은 1970년대 후반까지도 계속되었다.

대부분 강원의 학인들이 그러했듯이, 운문사 강원은 학업과 농사를 병행한 곳으로 이름 높다. 사시사철 농사꾼 수행자로 일하며 후원 살림을 이끌어 자비량 없이 자급자족할 수 있었다. 사찰에서 키우는 소들이 논밭을 갈아주면, 어린 학인들도 일꾼들과 함께 모를 심고 나락을 베며 속가에서 해보지 못한 농사를 익혀나갔다. 방학하면 모내기 철에 맞추어 개학하는 시절이 1980년대 중반까지 이어져, 강원 졸업생들은 이 무렵을 ‘농경시대’, ‘비구니 농과대학’이라 부르곤 한다.

울력에서 거의 벗어난 오늘날에도, 학인으로 살아가는 대중생활은 공부에서 일상사까지 출가수행자로서 익혀야 할 모든 일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이다. 하나하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물론, 서로 협력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다하는 자질도 단단해져 구족계를 받아 정식 스님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발우공양에서 행익을 맡아 음식을 분배하는 운문사 학인들.

사찰음식 전승의 주체

예로부터 학인은 대중공양을 담당하는 후원의 주체로 활약하였다. 원주스님의 관리 아래 학인이 후원의 중심을 이루고, 행자는 그 밑에서 보조 역할을 하게 된다. 학인 가운데 공양주 · 채공 · 갱두 등을 돌아가며 맡아 이를 ‘돌림 소임’이라 불렀다. 학인 수에 따라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인원과 기간을 정했고, 대개 두 명씩 짝을 이루어 3~7일간 맡았다.

이들 외에 별좌(別座)를 따로 두었다. 별좌는 원주 아래서 후원 일을 총괄하며 소임자들을 이끌어가는 직책이다. ‘별좌는 강원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듯이, 주로 고학년 학인 가운데 음식솜씨가 있는 이가 맡아 별식을 만들었다. 별좌 또한 돌림이지만 ‘한철 소임’이라 하여 석 달 정도씩 맡아, 원주에게 식재료를 받아 후원 살림을 꾸려나갔다.

오늘날 후원 소임이 재가자로 옮겨갔지만, 발우공양과 관련된 일은 예나 지금이나 학인들의 몫이다. 이에 행자들과 함께 음식과 찬상을 준비하고, 공양이 시작되면 청수 · 밥 · 국 · 숭늉을 분배하는 행익(行益)은 물론, 찬상과 퇴수(退水)를 들고나는 일까지 모두 맡는다. 특히 학인들에게는 행익이 가장 힘든 시간이다. 행익은 대중 수에 따라 대방을 구획하여 1~4개의 조가 움직이는데, 한 조마다 3명이 맡게 되니 큰 절에서는 대개 12명이 필요하다.



후원에서 일하는 석남사 학인들.

조실과 주지, 사중의 모든 어른과 선배들 앞에서 위의에 맞게 행동거지를 잘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게다가 발우공양의 자리 배치는 어른들의 바로 앞에 가장 낮은 차서(次序)가 앉게 되어 있다. 그동안에 익힌 습의(習儀)를 점검받기 위한 것으로, 행익에서부터 공양하는 모습까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에 “처음 어른 스님들 코앞에 앉으면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알지 못했다”고 하듯이, 바늘방석 같은 발우공양이 하루하루 거듭되면서 스님으로서 위의도 무르익어가는 셈이다.

특히 어시발우에 밥을 담을 때는 모양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했다. 주걱으로 양쪽을 한 번씩 눌러서 요령 있게 뜨면 두 번 푸는 법 없이 정확하게 서홉밥이 나오기 때문이다. 일정한 양을 보기 좋게 담아내는 것은 윗반에서 아랫반에 전수하는 비법이기도 하며, ‘밥 뜨는 실력이 좋은 학인’으로 인정을 받기도 했다.

이들은 강원을 졸업한 뒤 각자 인연 있는 사찰로 흩어져, 자신이 있는 곳에서 대중공양을 거뜬히 장만하며 사찰음식을 전승시켜나갔다. ‘본래 끼니 한 상을 차려낼 수 없을 정도로 반찬 솜씨가 없었다’는 어느 스님도, 보고 배우는 일상 속에서 저절로 머리가 트이기 시작하였다. 돌아가며 음식을 만들어봄으로써 지금껏 알지 못했던 자신의 음식솜씨를 발견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소질 있는 이들은 학년이 높아지면서 별좌를 맡게 되고, 대중공양의 지식과 소양이 축적되어 사찰음식의 전문가로 성장하는 것이다.

이처럼 학인들이 대중공양의 주체가 되는 후원문화는 사찰음식이 체계적으로 전승될 수 있는 소중한 기반이었다. 사부대중이 어우러지고 스님들도 문명의 이기를 적극 활용하며 포교하는 시대에는, 수행자의 음식 또한 세간의 음식과 섞이기 쉽다. 그러나 엄격한 규율이 작동하는 대중생활과, 수행자가 이끄는 후원 속에서 사찰음식의 생명력을 이어올 수 있었다. 근래 출가자 감소와 함께 후원 소임이 점차 재가자로 옮겨가면서, 사찰음식 또한 출가자 대중과 멀어지고 특정 전문가의 영역에 머물 가능성이 커진 것 또한 사실이다.

유쾌한 후원문화

강원은 학년마다 한 반밖에 없어서, 학인들은 같은 학년을 ‘같은 반’이라 부른다. 같은 반 학인들은 수년간 한 공간에서 삶을 함께하니 단합이 아주 잘 되었고, 학인이기에 가능한 다양한 문화를 공유하였다. 학인들 또한 체육대회도 하고 소풍도 가며, 방학이면 들뜬 마음으로 은사의 절에 돌아갔다. 특별한 날 학인들이 연극을 준비하여 선보이는가 하면, 종강 무렵이면 스승에게 감사하고 자축하는 책거리를 하는 등 배움의 과정에 있는 학생들의 오랜 전통이 강원에도 있었다.

학인들의 가장 보편적인 행사는 책거리이다. 경 한 권의 공부를 마치거나 종강을 하면 간단하게나마 음식을 차리고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강원마다 책거리는 학인들이 직접 준비하는 것이 불문율이었다. 사중에서 도와주기도 하지만, 대개 학인들이 십시일반으로 떡을 만들고 찰밥에 미역국 등을 준비하는 책거리 문화였다. 이는 가르쳐준 스승을 비롯해 어른들에게 감사를 올리는 의미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스님들은 은사가 있는 절을 ‘집’이라 표현한다. 은사 또한 학부모의 입장이 되어 제자가 강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궁금했고, 편지와 함께 잘게 잘라 말린 떡을 봉투에 담아 부치기도 하였다. 제자가 있는 강원에 은사나 사형이 찾아와 대중공양을 내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학인 간의 위화감을 준다는 일부 비판도 있었다니 세간의 학생 · 학부모의 구도와 다를 바 없는 모습도 볼 수 있다.

학인들에게 방학은 곧 ‘집에 가는 날’이었다. 은사 절에도 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제자는 방학을 손꼽아 기다렸고 은사도 지체함 없이 오기를 명했다. 방학을 마치고 돌아올 때면 간식으로 미숫가루와 말린 떡을 가져왔고, 옷에 풀을 들일 때 쓰는 밀가루와 비누 또한 각자 챙겨야 할 필수품이었다. 은사의 살림이 넉넉한 학인들은 고추장 · 고춧가루 · 참기름 등 귀한 식재료도 챙겨왔다. 양념은 원주에게서 정해진 양만 받을 수 있었기에, 사물함에 숨겨두었다가 채공 소임 때 조금이라도 맛있는 찬상을 올리기 위함이다.

그런가 하면 규율이 아무리 엄격해도 강원마다 학인들의 장난은 끊이지 않았다. 원주가 요긴할 때 쓰려고 모아놓은 누룽지부터 곶감, 감자, 찹쌀가루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학인들의 공략대상이 되었다. 어쩌다 한두 번이면 들키지 않았지만, 반마다 주기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늘 ‘동치미 건더기 누가 다 건져 먹었나’, ‘재에 쓸 곶감은 누가 다 빼먹었나’ 등으로 대중공사가 벌어지기 일쑤였다.

의생활 재료가 식생활 재료로 탈바꿈하는 때도 있었다. 당시는 무명옷에 풀을 해서 입던 시절이라, 옷을 빨 때면 각자 가져온 밀가루로 풀을 해서 말려 입었다. 그런데 한 달에 하루 쉬는 날이면, 같은 반 학인들끼리 풀을 쑬 밀가루를 조금씩 걷어서 개울가로 나가 수제비를 끓여 먹곤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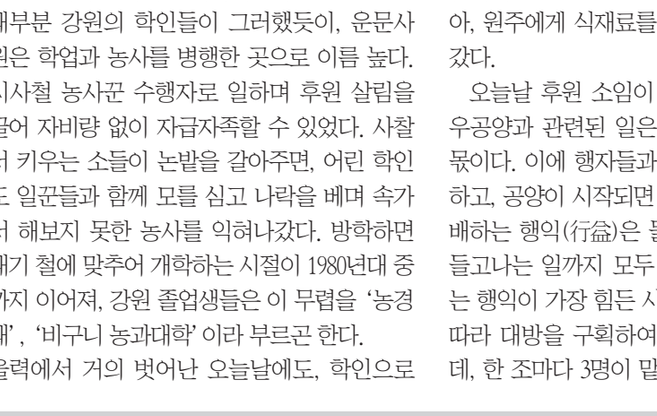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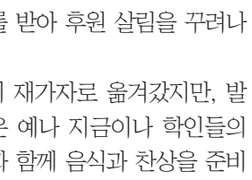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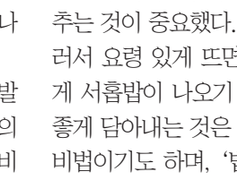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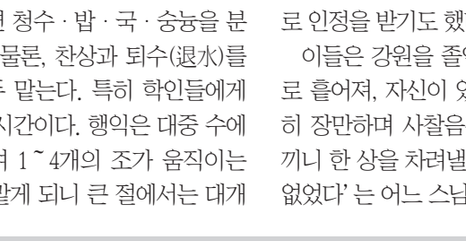
인근 암자를 터는 일도 학인들의 전매특허였다. 조를 짜서 동치미 · 고추장 등을 서리해오면, 감춰둔 식은 밥을 꺼내서 기다리던 도반들과 함께 꿀맛처럼 먹었다. 가벼운 장난은 대중 참회로 마무리되었으나, 정도가 심할 경우 대중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주동자들이 자수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엄벌이 내려졌다. 며칠간 매일 3천 배를 하고 대방에서도 쫓겨나, 수업에 들어가지 못함은 물론 잠도 끼니도 헛간에서 때워야 했다.

스님들은 강원생활 이야기를 할 때면 미소가 끊이지 않는다. 도반들과 함께했기에 힘든 일일수록 수행으로 여길 수 있었고, 대중의 눈에 비친 서로의 모습에서 수행자의 면모를 가다듬어갈 수 있었다.

〈불교민속연구소 소장〉

五臟의 根源인 肝을 지킵시다
(오장) (근원) (간)

肝(간)을 지키는 다슬기 기름
간 건강에는 다슬기 기름

TV조선 코리아헌트 방영

더욱 다양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NAVER 우미산 다슬기기름으로 확인하세요

T. 010-3529-0077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주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산수유열매,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복령, 옥수수수염, 천문동, 맥문동, 감초뿌리줄기, 뽕나무뿌리껍질, 창출뿌리줄기, 작약, 황기, 칡뿌리,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를 위해 여주환을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간과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으로 해결하세요.(본초강목)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열매, 옥수수수염,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토사자, 사상자, 복령,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참당귀, 천궁, 우슬, 오갈피, 두충, 질경이, 산사나무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측백나무, 자소엽, 서목태, 복분자, 삼백초, 참당귀,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솔잎, 녹차잎,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강소연 교수의 깨달음의 미학 ⑯ 관세음보살32응탱 (2)



▶한줄 요약
조선 전기 대표 불화 중 하나인 '관세음보살32응탱'에는 관세음보살이 뭇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나투는 모습들이 담겼다.

관세음보살 '응신'은 '자비'에 바탕한다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명작 중 하나인 '관세음보살32응탱' 에는 관세음보살이 뭇 중생을 구제하는 전지전능한 존재로 등장한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는 자는 혹 큰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불이 그를 태우지 못하니, 이는 보살의 불가사의한 힘 때문이다. 혹 큰물에 떠내려가더라도 그 이름을 부르면, 곧 얕은 곳으로 가게 되며, (중략) 혹 큰 폭풍이 불어와 배가 뒤집혀 떠내려가더라도, 누구든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도 죽음의 재앙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인연으로 '관세음(觀世音)'이라고 하느니라."

–'관세음보살 보문품' 중에서

관세음보살은 이러한 위기 상황 속의 중생을 구제할 뿐만 아니라, 중생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준다. 〈법화경〉의 '관세음보살 보문품' 을 계기로 관세음보살은 대중과 가장 가까운 '전지전능한 신(All-mighty God)' 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불교 속에 자리매김한다.

필자가 보문품을 처음 접했을 때는 이러한 신통력의 경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 너무 과장된 의탁신앙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보문품이 '방편의 극치 · 응신의 극치 · 자비의 극치' 임을 한참 후에야 깨닫게 되었다.

'방편=응신=자비' 는 대승불교의 범주에서 사실상 상통하는 용어이다. 불성(佛性)의 양면인 '자수용신과 타수용신' , 즉 '지혜와 자비' 라는 두 축의 성품 중 '자비' 의 측면을 강조한 것이 대승불교의 핵심이다. 자비는 '보살' 이라는 신격으로 나타나고, 보살은 '방편' 으로 중생을 제도해야한다는 것이 〈법화경〉의 요지이다. 이러한 〈법화경〉의 요지가 경전 말미의 보문품에서 그 대미를 장식하는데, 그 내용은 응신이라는 방편이다. 즉, 최고이자 최상의 방편은 상대(중생)의 근기(根機)를 통찰해 보고, 그것에 맞게 응신해 구제의 신통을 발휘하는 것이다.

'자비'란 무엇인가

먼저, '자비' 란 무엇인지 보도록 하자. 관세음보살이라 하면 보살 중의 보살인데, 대표적인 자비의 화신으로 유명하다. 자비는 중생을 '맑히는 기능' 을 하여 '청정자비' 라고 부른다. 탁한 에너지의 중생을 청정한 에너지로 채워줌으로써, 탁한 에너지로 발생했던 고통 · 번뇌 · 질병 등을 물리쳐준다.

각성(覺性, 또는 불성)에도 등급이 있듯이, 자비(慈悲에)도 등급이 있다. 대표적인 깨달음의 등급을 언급하자면, 선정(사마타)에는 그 고요함의 깊이와 크기에 따라 4선정이라는 등급이 있다. 위빠사나의 지혜는 통찰의 밀도와 날카로움의 정도에 따라 16단계(또는 10단계)로 전개된다. 이러한 등급이 올라갈수록 또 섭렵할수록 더욱더 완벽한 청정함에 가까워진다.

자비의 단계를 대표하는 것으로는 화엄경의 '보살10지' (또는 10지위)가 있다. 보살10지 중 최종 단계에 해당하는 제9지와 제10지를 보면, 제9지는 "선혜지(善慧地)로 보살이 거리낌 없는 힘으로 설법하여 이타행(利他行)을 완성하고 지혜의 작용이 자재한 지위"이고, 제10지는 "법운지(法雲地)로 대법신(大法身)을 얻어서 자재력을 갖춘 자리이며 대자비(大慈悲)가 구름처럼 일어나는 지위" 이다. 보문품의 관세음보살은 보살10지 중 최종적 경지에 해당하는 제9지와 제10지의 신통력을 구비한 보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기의 중생 구제하는 관세음보살
구제 핵심은 중생 근기 맞춰 응신
자비심 없이 불가능한 거룩한 행보
'관세음보살32응탱' 응신 모습 담아



그림①



그림②



그림③



그림④

화면 한 가운데의 관세음보살(그림①)이 부처님의 모습으로, 야차의 모습으로, 부인의 모습으로(그림②, ③, ④)으로 변신해 중생을 구제한다. 이 자실이 그린 '관세음보살32응탱' 의 부분. 조선 전기인 1550년에 조성됐으며, 현재 일본 교토 지은원에 소장돼 있다.

하지만, 우리들은 중생심(이기심)으로만 살기에 자비심(이타심)을 잘 모른다. 이에 초보적인 단계에서 '자비' 가 무엇인지 먼저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자비는 쉬운 말로 사랑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그런데 우선, 이성 간의 끌림에 있어 애욕인지 사랑인지부터 구별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집착인지 사랑인지 구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애욕은 집착에 근간을 두고, 사랑은 연민에 근간을 둔다. 여기서 애욕과 사랑을 구분하는 법은 간단하다. "너는 나로 인해 행복하니"라고 하면 사랑이고 "너는 왜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니"라고 하면 집착이다. 상대방의 행복이 안중에 없는 관계라면, 그저 내 욕망만 채우는 비인간적인 관계일 뿐이다. 연인 사이, 남편과 아내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스승과 제자 사이는 사랑이라는 탈을 쓰고 집요한 불만과 강요는 계속된다. 또 집착과 소유욕이라는 탈을 쓰고 억울한 희생은 계속된다.

서양 기독교 문화에서는 사랑을 '에로스' 와 '아가페' 로 구분한다. 성욕에 근거한 본능적인 사랑은 에로스이다. 반면, 아가페는 하느님이 인간에게 베푸는 은총으로 거룩하고 성스러운 사랑을 말한다. 여기에 '필리아' 가 하나 더 있는데, 이는 정신적이고 인격적인 사랑으로 우애(友愛)를 말한다. 남녀 간의 서로에게 결여된 것에 끌리는 에로스, 또는 쌍방의 호의적 교환인 필리아와 같은 조건적 사랑을 넘어서는 것이, 무조건적 사랑인 아가페이다.

아가페적인 사랑을 불교에서는 '자비' 라고 한다. 자비(또는 아가페)는 바라는 것 없고 분별하지 않는 무조건적이고도 무차별적인 사랑이다. 그래서 대상은 나와 친밀함 관계없이 국한되지 않고, 모든 사람 또는 모든 존재로 확대된다. 사랑이 무조건적이고 무차별적일 때, 우리는 드디어 결핍의 감옥에서 해방된다. 기독교에서는 이 같은 아가페적 사랑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이타적(利他的)인 사랑을 구현하는 존재를 기독교에서는 '신(神)' 이라 하고, 불교에서는 '보살' 이라 한다.

응신, 자비의 최고 등급

고려시대에 가장 많이 그려진 관세음보살로는 '수월관음' 이 있다. '수월관음도' 에는 청정한 에너지 그 자체인 수월관음의 몸체와 거기서 방사되는 투명한 빛(광배)이, 뭐라 형언하기 힘들 정도로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다. 그 밝고도 따듯한 투명함의 묘사는, 주지하듯이, 세계적 명성을 얻은 지 오래이다. 수월관음 주변으로 묘사된 정병 · 버드나무 가지 · 대나무 · 파랑새 · 선재동자 등은 모두 청정을 상징하는 도상들이다. 깊고도 그윽한, 그리고 기상천외한 섬세한 디테일은 선불리 다가가기 힘든 격조 높은 아취를 풍긴다.

반면, 조선시대의 관세음보살은 본 작품(관세음보살32응탱)에서처럼 활달하고 위력적이며 위풍당당하다.(그림①) 보살의 표현에 있어서도 고려시대의 치밀한 철선묘(鐵線描, 선의 두께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것)의 표현과는 달리, 조선시대의 경우는 강약의 리듬으로 파도치는 비수선(肥瘦線)을 쓴다. 또 고려시대에는 세부 묘사에 치중하여 화려하고 섬세한 디테일이 돋보이지만, 조선시대에는 녹색과 주색朱色의 대비감이 강렬하게 나타나는 컬러감이 돋보인다. 이러한 전형적인 조선적 특징을 보이는 관세음보살(그림①)의 아래로는, 관세음보살의 응신의 장면들(그림②, ③, ④)이 무수하게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7난3독(七難三毒)의 사건 사고들의 장면이 관세음보살의 발치 아래에 묘사돼 있다. 폭풍을 만나 바다에 떠내려가는 장면, 높은 절벽에서 떨어지는 장면, 칼로 목을 내리치는 장면, 독약을 삼킨 장면, 맹수 또는 강도를 만난 장면, 폭풍 홍수 등 자연재해를 만난 장면 등. 온갖 위험에 직면한 중생들 앞에는 관세음보살이 변신해서 나타나 이들을 구제한다. 구제받는 방법은 간단하다. "백 천 만 억 중생이 갖은 괴로움을 당할 적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마음을 모아 부른다면 관세음보살은 즉시 그 음성을 관觀하고 곧 해탈케 하느니라." 결국, "나무관세음보살"이라고 부르기만 하면 된다. 단, 마음을 모아 불러야 한다.

관세음보살의 중생 구제 방법의 요지는 '중생의 근기(수준)에 맞게 변신' 이다. 이것을 '응신' 이라하는데, 이것은 중생에 대한 진정한 '자비' 없이는 불가능하다.

"나는 한량없는 과거로부터 무한한 미래에까지/ 다양한 이름과 모습으로 출현하였는데/ 이는 모두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만일 어떤 중생이 내게 찾아오면/ 나는 부처님의 눈으로/ 그의 믿음과 근기의 날카롭고 둔함을 보아/ 제도할 바를 따라 곳곳에서 설하되/ 이름도 다르며 수명도 달랐으며 또는 열반에 들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편으로 미묘한 법을 설해/ 능히 중생으로 하여금 환희의 마음을 내게 했다."

–〈법화경〉 '여래수량품' 중에서

〈중앙승가대 문화재학과 교수〉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와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군부대·교도소 등에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세요
최고의 언론 포교 불사에 함께 해주세요
法보시 신청
02-2004-8212

이안의 Media In Buddha ㉒ 영화 〈미스터 주: 사라진 VIP〉



▶한줄 요약
사리진 VIP특사 판다를 찾는 〈미스터 주: 사라진 VIP〉는 뭇 생명에 대한 태도를 돌아보게 하는 영화다.

‘동물권’에 대해 생각하다

아마도 동물계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는 건 판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자이언트 판다일 것이다. 냉전시대부터 지금까지 ‘죽의 장막’ 이라며 쉽게 곁을 주지 않던 사회주의 국가 중국이 특별히 외교적으로 화해와 친교를 맺는 나라에 보내는 외교 사절은 스포츠 선수나 문화예술계 명사나 정치인이나 과학자보다도 더 각별하게 바로 판다를 통해 이뤄졌다.

자이언트 판다는 멸종 위기에 있는 희귀한 동물인데 딱 중국 특정 지역에만 있어서 아무나 볼 수는 없는데 귀여운 생김새 때문에 캐릭터 상품으로는 아주 잘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볼 수 있으려면 여러 상황이 맞아 떨어져야만 하는 존재다. 중국으로부터 아주 까다로운 절차와 과정을 통해 수입이나 매매, 기증 또는 입양이라는 어떤 말로도 다른 나라에 갈 수 없다. 오직 ‘임대’ 라는 형식으로 보내고, 보낸 나라에서 제대로 잘 돌보는 지도 늘 점검 받고, 그러다 중국 쪽에서 보살핌이 허술하다고 도로 내놓으라고 하면 그동안 들인 비용과 시간이 얼마든 다시 반환해야 한다. 금이야 옥이야 보살펴 번식에 성공해서 새끼를 보더라도 성장하면 그 새끼는 반드시 중국으로 보내야 한다.

그렇게 귀한 대접을 받으니 말 그대로 판다는 중국이 다른 나라에게 보내는 최고의 선의를 담은 정치적 사절이다. 그러니까 〈미스터 주: 사라진 VIP〉에서 김태윤 감독이 말하는 ‘VIP’ 칭호가 딱 들어맞는 동물계 최고의 셀러브리티라고 할 만하다.

불교에서 이르는 중생은 사람만이 아니다. 글자 그대로 뭇 생명을 이르는 말이다. 뭇 생명이란, 그리고 중생제도와 성불도 인간만이 누리는 특혜가 아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은 그것이 유정이든 무정이든 간에 각각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고, 법(法, Dharma) 즉, 진리의 체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아침저녁으로 범종과 목어와 북과 운판을 울려 사람 뿐 아니라 날짐승, 산짐승, 물 속 짐승까지 두루 성불하고 제도되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이런 가르침과는 달리 참으로 다른 생명들에게 야박하고 가혹하다. 어릴 때 귀여운 맛에 집에 들였던 개나 고양이도 성가시다거나 병이 들었거나 늙었다고 내다 버려 유기견, 유기묘로 거리를 떠돌게 하는 일도 예사지만, 동물을 상대로 그저 재수 없다거나 자기 분풀이로 해코지 하는 학대와 범죄의 양상은 처참할 지경이다. 더 나아가 강력 범죄에 대한 자료를 보면 동물을 학대하던 자는 사람에게도 폭력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심지어 살인에 이르기까지.

그뿐인가? 살아있는 동물을 철창 안에 가두고 구경거리로 내 보여 돈을 버는 ‘동물원’ 사업이 테마파크부터 체험 농장, 라룬 카페 등등 여기저기 많기도 많다. 그런 동물들은 원산지가 어디든 한 두 세대를 거치며 아예 동물원에서 태어나 우리 바깥은 겪어보지도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 동물들이 다 판다처럼 극진한 보살핌을 받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동물의 왕이라는 사자조차 ‘갈비뼈 사자’ 라고 불리는 정도로까지 평생을 뼈만 남도록 앙상하게 방치되기도 하고, 영물로 불리는 호랑이가 인간 때문에 근친 교배로 태어나 기형으로 태어나면 구경꾼조차 만날 기회 없이 콘크리트 장벽 안에서 어떤 생명체와의 교감도 없는 생명 학대를 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영화 〈미스터 주: 사라진 VIP〉의 한 장면.

심지어 동물원이라는 공개 시설이 아니라 민간에 있는 동물들은 더 참혹하게 다루어진다. 역대급이라는 올 폭염에 민간인이 천정이나 그늘도 없는 창살에 가두고 몰래 키우던 사자 ‘사순이’가 평생 처음 우리를 빠져 나가 나무 그늘에 앉아 쉬고 있다가 사람이 쏜 총에 맞아 죽은 것도 ‘인간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한다. 자기 발과 이빨로 사냥 한 번 해본 적 없던 사순이도 갈비뼈 사자 바람이처럼 앙상하게 말라 있었다. 이렇게 동물을 함부로 할 권리가 인간에게 과연 인간에게 있는 것일까?

〈미스터 주: 사라진 VIP〉는 뭇 생명에 대한 태도를 돌아보게 하는 영화다. 국가정보국 에이스 요원 ‘주태주’ (이성민)를 초등학생 딸은 미스터 주라고 부르곤 한다. 에이스 정보요원답게 주태주 요원은 철저하고 깔끔한 사람이다. 아침마다 먼지 하나 없이 청소된 집에서 운동하고, 보풀 하나까지 다 떼어내고서야 옷을 차려 입는다. 그런 성격이다 보니 동물이라면 아주 질색이다. 털도 있고, 침도 튈 수 있을 테니까.

중국 VIP특사 판다 찾기 위한 코믹극
테마파크서 VIP인 판다네 가족 말고
일반 동물들 자연서 살아갈 자유 박탈
윤회 안에서 우리는 동물과 같은 존재

그런데 주태주 요원을 “도와줘요, 미스터 주” 라고 급하게 전화로 불러낸 딸이 요청한 그 도움이 다른 일도 아니고 바로 길에서 만난 고양이를 보호해 달라는 것이니 기겁할 노릇이다. 낯선 고양이는 이름이 새겨진 목걸이를 하고 있으니 아빠가 ‘탐정 비슷한 일’ 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 딸은 주인을 찾아달라며 맡기고 학원에 간다. 그러나 동물도, 딸의 부탁도 하찮게 생각한 미스터 주는 고양이를 쓰레기통에 던져 버린다. 그게 뭐 별거냐 하는 마음으로.

곧 관리 요직으로 승진을 앞둔 미스터 주가 실적을 내세우려고 맡은 임무는 소원해진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풀게 될 중요한 외교 행사에 특사로 파견된 VIP를 경호하는 일이다. 그런데 그 특사가 특별해도 아주 특별한 존재인 것이 문제다. 중국에서 귀하디 귀하게 여기는 바로 그 존재, 판다가 VIP특사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영화의 VIP는 ‘Very Impotant Person’ 의 VIP보다 더 특별한 ‘Very Important Panda’ 를 일컫는 말이다. 실제로 〈미스터 주: 사라진 VIP〉에서 특사로 경호를 받게 되는 자이언트 판다는 중국이 함부로 외국에 내보내지도 않고, 판다를 해치는 자는 중죄로 처벌하며 엄청난 비용과 인력을 들여 보호하는 중국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다. 귀여운 외모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형으로도,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로도 인기가 많은 자이언트 판다가 중국의 외교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다.

이렇게 중요한 VIP를 경호하는 일 정도는 별로 어려울 것 없이 그냥 적당히 해치워 버려도 될 일이거니 싶어 대뜸 맡았는데, 납치범들이 그런 허술한 경호를 뚫고 판다를 납치해 가면서 일이 꼬이게 된다. 딸이 주인을 찾아달라고 맡긴 고양이를 버려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미스터 주지만, 판다를 찾지 못한다면 요원으로서의 앞날이 캄캄한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 큰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런데 미스터 주가 버린 고양이는 그냥 평범한 고양이가 아니었던지, 어느새 버려진 쓰레기통이 아니라 판다가 사람들과 만날 행사장인 동물원에서 경호를 빙자해 노닥거리던 미스터 주 뒤에 나타나더니, 그 다음부터 미스터 주는 동물들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 개나 고양이만이 아니라 어항 속의 물고기, 하늘을 나는 새, 동물원에 있는 온갖 동물들, 쇼핑센터에서 진열되어 팔리는 애완동물들 까지 동물이 참 많기도 많으니 그 동물들이 하는 말도 홍수처럼 밀려든다. 이런 소리를 다 듣게 된 것은 받아들이기에 따라 벌이 될 수도 있고 상이 될 수도 있다. 하필 동물을 싫어하는 미스터 주에게는 미치고 팔짝 뛸 정도로 당황스러운 상황인 것이 분명하지만.

〈미스터 주: 사라진 VIP〉는 이런 난처한 상황을 맞닥뜨린 미스터 주가 화약 냄새라면 줄행랑부터 치고 보는 군견 알리와 티격태격하며 사건을 해결해 가는 과정을 유쾌하게 펼쳐 보이는 가족영화다. 동물을 싫어하는 미스터 주와 동물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딸, 사람을 위해 봉사하도록 어릴 때부터 훈련받고 위험한 작전에 나갔다가 끔찍한 사고를 겪은 군견 알리, 동물원에서 사고를 목격한 고릴라와 납치 현장에서 도망친 알리를 거둬준 다른 동물들, 그리고 도시나 농촌 어디든 사람 곁에 있는 염소와 비둘기까지 여러 동물들은 나름의 개성과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미스터 주의 지원군이 된다. 영화의 요소요소에서 터지는 재미와 웃음도 이 동물 캐릭터들의 몫이다.

〈미스터 주: 사라진 VIP〉는 군견 알리나 납치된 판다 밍밍을 의인화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치환하는 대신, 등장하는 여러 동물들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짚어보고, 동물을 이용한 산업이나 실험의 내막을 들춰내면서 동물 자체의 특징과 개성을 돋보이게 한다. 그리고 이런 재미를 더해 주는 것은 동물 각각의 목소리를 연기하는 배우들의 공이다.

미스터 주와 짝이 되는 알리 역할에 신하균, 사랑스러운 특사 판다 역할에 유인나가 목소리 연기를 맡은 것은 주연급이라 그럴만한 캐스팅이라고 한다면, 한 장면씩에만 등장하는 햄스터의 목소리는 관록의 연기자 이순재, 떠돌이 동물들을 이끄는 앵무새 목소리에는 걸쭉한 입담으로 유명한 김수미, 시골 농가에서 마주친 흑염소와 동물원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지켜본 고릴라는 〈기생충〉으로 세계 영화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선균과 이정은 등등 목소리만으로 존재감이 남다른 연기자들이 영화 곳곳에서 씬 스틸러로 등장하기 때문에 동물 캐릭터와 목소리 연기자 캐릭터의 조합이 주는 재미도 쏠쏠하다.

“한국영화에서 흔치 않은 동물과 대화한다는 설정을 어떻게 관객들에게 어필할 것인지 고민했다. 한국영화의 기술이라면 이를 구현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흥미로운 사건과 공감 가능한 스토리를 담기 위해 노력했다”는 김태윤 감독은 〈미스터 주: 사라진 VIP〉를 통해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무시당하는 동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한다.

대기업 테마파크 안에서도 아주 특별히 VIP로 대접받는 푸바오네 판다 가족 말고 다른 동물들은 그냥 자연 안에서 살아갈 자유, 생을 누릴 권리조차 없는 세상, 돌고 도는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우리가 그들과 같은 존재라는 깨우침으로 다른 사순이가 총 맞아 죽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영화평론가〉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사바세계의 참된 교체 음성에 있어

〈教體〉



지안 스님의 〈능엄경〉 강해

㉜ 음성교체(音聲教體)

〈원문〉 "제가 지금 세존께 사뢰옵나니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출현하시니 이곳의 참된 교체(教體)는 음성에 있나이다. 삼마제를 취하고자 할진대 진실로 듣는 것(聞)으로 들어가야 하리니, 괴로움을 여의고 해탈을 얻은 이는 관세음보살이 진실하나이다. 항하사겁 중에 미진불국토에 들어가면서 큰 자재력을 얻어 무외로 중생에게 베푸나이다. 묘음이며, 세상의 소리를 관하시며, 범음이며 해조음으로, 세간을 벗어나서 세상을 구하여 다 안녕케 하고 세간을 벗어나 항상 머물을 얻게 하나이다. 제가 지금 여래께 여쭈옵나니, 관세음보살이 말한 바와 같이 비유컨대 사람이 조용히 있는데 시방에서 한꺼번에 북을 치거든 열 곳의 소리를 한꺼번에 다 듣나니, 이것이 곧 원통의 진실이옵니다."

〈강해〉 아난이 부처님께 아뢰는 말이다. 25원통 중에 왜 이근원통(耳根圓通)이 으뜸인가 하는 이유를 말하는 대목이다. 우선 부처님이 출현하신 사바세계가 음성교체(音聲教體)라고 말한다. 부처님이 가르치는 교체가 세계에 따라 다르다고 한다. 향(香)으로 교체를 삼는 곳도 있고, 빛(光)으로 교체를 삼는 곳도 있으며, 말 없는 묵언(默言)으로 교체를 삼는 곳도 있다고 한다. 교체는 알아듣도록 의사소통을 시키는 수단이다, 사바세계는 말로써 의사소통의 수단을 삼는다는 말이다. 삼마제를 취하려면 들음(聞)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이근(耳根)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말이다. 관세음보살이 이근원통을 얻었으므로 원통교주(圓通教主) 혹은 원통대사(圓通大士)라 부르기도 한다.

"원통교주는 항상 보타락가산에 머물며 인연 따라 어김없이 감응하시네. 불난 집에서 미혹한 이를 구하고 버드나무 가지로 물을 뿌리니 한 방울로 하늘 끝까지 적시시네."

관음예문(觀音禮文)에 나오는 관세음보살의 이타원력(利他願力)을 찬탄하는 말이다. 경에서는 사바세계뿐만 아니라 항하사겁 중에 미진수 불국토에 들어간다고 하였다. 큰 자재력을 얻어 무외로 중생에게 베푼다는 것은 32가지 몸을 나타내는 응신과 14무외를 말한다. 대승불교의 보살행을 대표하는 3대 보살이 문수, 보현, 관음이다. 문수는 지혜를 상징하며 사람의 신체에 비유하면 눈(眼)이다. 보현은 행원을 상징하며 발(足)의 역할을 한다. 관음은 자비를 상징하며 손(手)의 역할을 한다. 관세음의 이름이 가진 뜻은 세상의 소리를 관한다는 뜻이다. 이는 음성교체와 관련이 있다. 세상의 소리를 다 듣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묘음이고 관세음이다. 범음(梵音)은 청정해서 어느 한 곳에만 치우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원래 범(梵音)은 범천(梵天)에서 나는 소리라는 뜻인데 청정한 소리라는 뜻이다. 또 불교 수행을 두고 말할 때 범행(梵行)이라는 말을 자주 한다. 여기서도 범은 청정을 뜻하지만, 행자를 붙여 말할 때는 욕망을 여의고 음심을 끊어 금욕하고 수행하는 것을 범행이라 한다. 〈화엄경〉의 품 이름에 '정행품'이 있고 '범행품'이 있는데 정행(淨行)은 중생을 위한 이타원력이 들어 있는 행을 말하고 범행은 계율을 잘 지켜 엄격한 금욕생활을 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장아함경〉에 범행을 완성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말이 나온다. "믿음이 있고 계행도 있으며, 들은 것이 많고 설법도 잘하며, 능히 대중을 보살피고 대중 가운데서 널리 법을 설하며, 선정을 성취하고 8해탈에서 역순으로 노닐며, 번뇌를 버려 번뇌 없음을 이루어 마음의 해탈과 지혜의 해탈을 성취하여, 현세에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 나고 죽음이 이미 다하고 범행이 성립되어 할 일을 다 해 마쳐, 다시 존재의 형태인 유(有)로 태어나지 않으면 곧 범행이 갖춰진 것이다." 이는 곧 범행의 완성이 수행의 완성을 의미하는 말이다.

해조음이란 조수(潮水)의 시간이 일정한 것처럼 때를 맞춰 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관세음보살이 소리를 관하는 덕으로 중생제도의 때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을 비유하여 한 말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상락아정' 경지를 누리려면…



구선 스님의 〈묘법연화경〉 강의

㉜ 바라밀

5지 난승지에서는 생멸심이 일으키는 번뇌에 대해 거부하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는 것이다. 6지 현전지에서는 생멸심이 중간 반야해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보살피는 것이다. 7지 원행지에서는 반연 중생들을 제도해서 현전지의 상태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8지 부동지에서는 진여심을 훼손시키지 않는 불퇴전을 성취하는 것이다. 9지 선혜지에서는 암마라식을 제도해서 육근원통을 성취하는 것이다. 10지 법운지에서는 생멸문 전체를 제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이와 같이 10지의 절차를 통해서 보시 바라밀과 지계바라밀이 함께 성취된다.

다음은 인욕바라밀이다. 범부의 인욕은 참는 것이다. 의지를 통해서 의식과 감정을 절제하는 것은 범부의 인욕이다. 수행자는 의지를 내세워서 인욕을 행하지 않는다. 의식 · 감정 · 의지를 자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행자는 본성과 각성, 밝은성품에 머물러서 인욕을 행한다. 아라한과에 들어서 의식 · 감정 · 의지를 인식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을 때가 인욕바라밀이 완성된 것이다. 생멸심을 여의고 진여심을 돈독하게 지켜가는 것이 인욕바라밀이다. 생멸수행의 인욕은 사다함과에서부터 시작되고 아라한과에서 완성된다. 본성의 간극에 머물러서 의식 · 감정 · 의지를 분리시키면 인욕바라밀이 시작된 것이다. 멸진정에 들어가서 의식 · 감정 · 의지를 인식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면 인욕바라밀이 완성된 것이다. 진여 수행의 인욕은 보살도 전체 과정에서 행해진다. 보시바라밀과 지계바라밀을 투철하게 행하면서 일체의 생멸심에 물들지 않는 것이 보살도에서 행해지는 인욕바라밀이다.

다음은 정진바라밀이다. 정진은 쉼 없이 나아간다는 뜻이다. 정진바라밀이 성취되려면 먼저 두 가지 갖춤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는 인지법행이 갖추어져야 한다. 나아감의 방향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편안하고 고요한 마음을 통해서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쉼 없이 나아가기 위해서이다. 초선정에서부터 9선정까지, 전체 과정에 대해서 인지법행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래야 생멸수행의 정진바라밀이 행해질 수 있다. 고요함과 편안함에 대한 기쁨을 얻어야 한다. 대적정처와 대적멸처를 놓고서 그것을 기쁘게 바라볼 수 있으면 애쓰지 않아도 정진 바라밀을 성취하게 된다. 진여수행을 놓고서 정진바라밀이 성취되려면 보살도와 등각도에 대한 인지법행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러면서 상락아정(常樂我淨)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초지보살은 열반상에 머물러서 정진심이 미해진다. 5지 난승지에서도 정진심을 놓아 버릴 수 있는 한계에 부딪힌다. 선혜지를 얻었을 때도 원통식에 만족해서 9지 보살로 머물러 버리는 경우가 있다. 진여수행에 있어서 정진바라밀이 성취되려면 등각도로 나아가야 한다.

다음은 선정바라밀이다. 선정(禪定)은 정(定)의 주체를 세워서 점차로 진보시켜가는 것이다. 정(定)의 주체는 두 가지 조건을 통해서 세워진다. 첫 번째 조건은 몸을 도구로 해서 세워지는 자리이다. 두 번째 조건은 마음 상태이다. 정의 주체가 세워지는 자리를 기점이라 한다. 밀교에서는 단(壇)이라고 한다. 정의 주체로 세워지는 몸의 기점은 12개가 있다. 정의 주체로 세워지는 마음 상태는 13가지가 있다. 생멸수행의 선정바라밀은 초선정(初禪定)에서부터 시작해서 대적정(大寂定)을 성취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생멸수행의 선정바라밀은 9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초선정에서부터 6선정까지는 대적정 이전에 행해지는 선정바라밀이다. 대적정 이후에 행해지는 선정바라밀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한과가 그것이다.

처음 대적정에 들어간 상태를 수다원이라고 한다. 진여수행의 선정바라밀은 13단계의 절차가 있다. 보살도 10단계, 등각도 2단계, 묘각도 1단계가 바로 그것이다.

〈영양 연화사 주지〉



지흐 스님의 〈능가경〉 강설

㉜ 생멸하는 것

지혜는 환술에 속지 않는다

선지식이 전하는 말길을 따라 수행을 지어가다보면 이런저런 아리송한 소리를 많이 듣게 된다. 참구하게 되는 여러 선어(禪語)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자주 접하는 표현에는 '둘이 아니다.', '두 가지가 다르지 않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모양도 아니고 모양이 아님도 아니다.' 등이 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모양 짓지 않는 말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까? 딱 부러지게 규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누구도 그것을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완전히 못 본 것이냐고 묻는다면 또 그렇지도 않다. 보고 안 것은 틀리지 않지만,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이유이다. 만약 그것에 대해 지칭을 하게 되면 그것은 그것이 되지 못한다. 그것은 지칭되는 존재가 아니다. 그것을 보고 알기 위해서는 어떤 틈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틈이 없다.

당연히 상대가 존재하지 못한다. 상대가 없으니 보았다고도 알았다고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유일하게 상대가 없는 것이다. 상대가 없다고 드러나지 않는 것은 또한 아니다.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운 말 같지만, 아는 입장에서는 너무 쉬운 것이다. 이때 알지 못하는 입장과 아는 입장은 완전히 정반대의 앎을 가지고 있다. 아마도 이것 때문에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것을 알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틈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것이다. 틈이 남아있다면 두 가지가 나타난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있다. 이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항상 '나'를 동반하게 된다. 틈이 없다면 아는 것이 없다. 이때는 '나'를 동반하지 않는다.

'나'가 있는 앎은 온전한 앎이 아니다. 그 앎은 '나'의 조건에 따라 변한다. '나'가 없는 앎은 조건이 없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안다는 마음도, 모른다는 마음도 낼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것을 안다고 한다. 이때 안다는 것은 무엇을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알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내가 아님을 알고 나니 알아야 할 것도 없고 모른다고 할 것도 없다는 것이다. 한때는 눈먼 존재였지만 지금은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을 보는 눈을 가진 것은 절대 아니다. 어찌 보면 안과 밖을 보지 못하는 눈이 생겼다고 해야 할 것이다. 눈을 뜨면 안과 밖이라는 것이 없다. 그러니 분별해서 보아야 하는 것이 나타나지 못한다. 만약 안과 밖이 있는 생각이라면 그것은 실체가 없는 허상일 뿐이다. '나'라는 것에 대해 의심할 줄 알아야지, '나'라는 것으로 의문을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 무엇을 해결하려 하면 생멸하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 해결하는 것이 없음을 알면 생멸이 생겨날 수가 없다.

"여래장(아뢰야식)은 착함과 착하지 못함의 인연으로서 육도 중생의 생사 인연을 창조할 수 있네. 비유하자면 뛰어난 마술사처럼 각종 사람과 사물을 변화시키지만, 그 변화시킨 각종 사물에는 나도 없고 내가 만든 사물도 없는 것과 같네."

그러므로 지금까지 자신이라고 하는 '나'에 대해 해결할 것이 있는 줄 알고 살아온 세월이 신기루와 같은 것이다. 우리가 '나'라고 알고 있는 그 '나'는 실재일 수 없는 '나'이다. 그저 이름으로만 불리는 '나'일 뿐이다. 우리는 그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알고 있지만, 그 '나'는 존재하는 '나'가 아니다. 그러니 그 '나'는 생멸할 수가 없다. 우리의 본래는 눈으로 볼 수 없고, 느낌으로 느낄 수 없고, 의식으로 인식할 수가 없다. 실재하지 않는 '나'는 실재하는 본래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 알지 못한다는 것을 온전히 알 때, 만물에 대한 지혜가 생겨나는 것이다. 이 지혜는 어떤 움직임도 아니고 움직임이 아닌 것도 아니다.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음을 알고 있는 지혜이다. 그 지혜는 반응도 없고 반응하지 않음도 없다. 그저 지혜만 있을 뿐이다. 이 반응하지 않는 지혜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지혜를 나타내어 대상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물질과 느낌과 의식의 세상인 허상에서 잘잘못을 해결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다. 그 해결은 인과의 과정이다. 그 인과는 옳고 그름이 없다. 나고 사라짐도 없다. 반복되는 어리석음이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2023년 8월 30일 수요일 | 불기 2567년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2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449호 | 17 | 전면광고

화를 내면 공덕은 무너지고 탐욕이 생기면
공덕을 막아버린다. 무명을 버리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열반을 증득하는 것이
최상의 즐거움이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잡아함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부산
- 대지 : 200평
- 건평 : 50평, 외
- 시내산 및 주차가능
- 매가 : 가격협의
- 위치 : 경기
- 부지 : 450평
- 건평 : 50평, 외
- 시내, 주차가능
- 매가 : 33억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승계)받을 수 있읍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천년사찰터 다량 보유

부전 등 절집소임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상리면 사찰
- 대지 : 120평
- 건물 : 건물외 부속건물 약 30평
- 가격 : 1억 2천만원

010-5436-5801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 대지 : 6백평, 임야 : 3천 6백평
- 건물 : 대웅전 55평, 공양실 35평, 종무소 10평, 요사 30평
- 천연 지하 석수 1일 200톤 이상
- 가액 : 9억

010-4547-0023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 태화강 부근 2층, 법당포함 35평
- 도시가스사용
- 보증금 1천, 월세 43만원
- 시설비 : 700만원
- 즉시 법회 가능

010-7942-9015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해남군 계곡면
- 대지 : 350평
-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 건물 : 약85평 (법당 요사채) (건물 3층 180평까지 증축 가능)
- 가액 : 4억 5천

010-7710-8334

동 진 불 사

- 위 치 : 경남 창원시 소재
- 부 지 : 약 50 평
- 법 당 : 30평 (단청 2층)
- 요사채 : 30평 (종무소 1층)
- 특 징 : 도심 번화가에 위치한 사찰로 포교지로 적지입니다.
- 위 치 : 경주시
- 부지 : 약 800평 (종교용지)
- 법 당 : 40평 (목조, 단청, 3포7포)
- 요사채 : 50평 (목조, 황토)
- 산신각 : 7평 (닷집, 단청)
- 기 타 : 연못, 석탑, 석등
- 가 액 : 9억원 (조정가능)
- 특 징 : 대도시 인근에 위치한 사찰로 포교지로 좋습니다.

전국 소재 사찰, 절터, 포교당 양도 양수하실 분 연락 바랍니다.
좋은 인연 ----------

서울 010-5122-8080 대구 010-4927-0455

사찰(급)안내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대지 143평 (현재 운영중)
- 가액 : 1억 2천 (조정 가능)
- 공기 맑고 아늑한 절, 몸만 오세요



010-4180-17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포교원안내

- 경남 밀양시, 5층 중에 2층, 70평
- 삼존불, 인등, 원불, 영가위패인등, 산신인등, 각방 에어컨, 방 4개, 냉장고, 세탁기 등 시설완비 (시설비 1억 7천만원)
- 무료 주차장 약 50대, 병원, 은행, 마트 1분 거리, 사주 하시는 분 강력 추천, 비품대 확실히 잘 해드리겠습니다.
- 보 5백만원, 월 43만원, 시설비 4천 5백만원

010-9424-477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시 감포읍 대본리 809
- 대지 411평
- 건물 1, 2층 (68평 정도)
- 금액 : 5억 9천 9백
- 암자, 토굴, 전원주택, 펜션, 사찰가능
- 바다조망

010-3000-5359

사 찰 안 내

- 경남 고성군 동해면 봉암4길 144-17
- 대지 260평, 법당 22평
- 산신각, 요사채, 창고, 화장실 2개
- 경내 잔디, 꽃, 나무 식재됨 (현 운영중)
- 즉시 법회 가능 (팔기 아까운 절)
- 매매가 대출 5천만 안고 3억 1천 500만원

010-8643-5235

사 찰 안 내

- 위치: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가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 사찰 안에 계곡 축대 재공사 완료
- 차로 확장공사 완료
- 지장전에 납골시설 허가 득
- 가액 12억(절충 가능)

010-5421-1536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와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포교당 (사찰) 안내

- 대구 남구 대명동
- 대지 30평, 1층 후원, 2층 법당
- 태양광 설치
- 가액 : 2억 5천만원

010-4157-7697
010-4506-5302

춘천 금선사(급)안내

- 위치 : 강원도 춘천시 삼악산
- 건물 : 법당, 관음전, 삼성각, 미륵대불, 요사채, 공양간
- 가액 : 1억 5천만원
- 특징 : 유명 등산로 입구, 참배객 많음, 도보5분 버스정류장
- 영험있는 기도도량 입니다.

010-3428-2774

포교원안내

- 위치 : 성남시 상대원동
- 법당 1층 30평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65만원, 시설비 1천 2백만원
- 즉시 법회 가능
- 스님 사정상 임대합니다

010-5369-4154

사찰(급)안내

스님 병환으로 급매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6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 : 교통이 좋습니다.

010-2366-2821

현대불교신문 구독안내

전화 한번에 끝!
자동이체로 전환하세요
(02)2004-8212

신문을 구독하시면 생활안내 · 불자정보
(사찰, 포교당 양도및 기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akao Ch 카카오톡 채널에 현대불교신문 검색

NAVER 현대불교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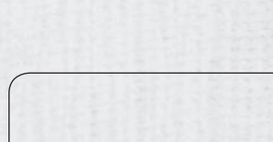
사 찰 안 내

- 장호원감곡 KTX 역 10분 거리
- 종교부지 계획관리 750평, 대지 247평, 목조대웅전 50평, 휴게소, 각종전각, 요사채3채, 산신각, 연못, 잔디광장, 진시사리탑, 해수관음. (상담)
- 청주대형건물 100평 임대 및 매매
- 법당 50 산신각, 종무원, 주방, 스님대방
- 보증금 4000에 100만원 모든난방 최고시설, 약간 본인건물

1899-0047
010-5883-225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 411-1, 411-2
- 매매금 : 3억원
- 올수리, 사찰 장엄 완료, 250평



010-3618-6061

이젠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 hyunbulnews.com에서도
불자정보·생활안내를 생활안내
찾아보실 수 있어요

NAVER 불자정보·생활안내 검색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생활안내'
'불자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2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449호 | 18 | 전면광고

건강할 때 빨리 복덕을 지어야 하니
병이 들면 복덕을 닦으려 해도
몸과 힘이 허락하지 않네.



부처님 말씀 읽기 - 《대장엄론경》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보존회 학인모집

1. 염불 ·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입종 동참 안내

불교정신문화원, 불교수련문화원.
불교선문화원, 불교명상문화원.
불교문화정원,불교문화원,
[설립 운영하실 분]
한국 불교문화원연합회
[교육부 산하 상학 인가]
만대 불교학 대학원
010-5412-8040 법광

원주 비구니스님

- 40년 대웅전을 갔고 스님 생활을 하던 비구니스님입니다.
- 갑자기 산신기도를 하는데 말문이 터져 신명님을 모시고 신점을 봅니다.
- 가정이 잘 안풀리거나, 퇴마, 빙의, 몸이 신병으로 아프신분, 사주보실 분 연락주세요.

010-9392-1189

공양주 구함

살림살 비구니스님 구함

- 경남 사천시 서포면 비토안길 114-15
- 극락사
- 주지 벽송

010-9178-6397



점 연구원

- 미래 현재 과거 점 보는 법
- 타고난 팔자는 바꿀 수는 없고, 좋은 팔자는 만들 수 있다 !
- 사주팔자 풀이 잘 안되는 분, 쉽게 풀이하는 법 전수
- 예) 명리 육임 육효
- 하늘, 땅, 나, 삼합 보는 법
- 준비물 없음
- 토화사 삼봉법사

010-3750-8555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노스님 모십니다

사시. 기도
월보시 50

부산시내 작은절 대원정사
010-9010-5400

우리 다 함께 불교를 살리는데 동참합시다

- 전국 시 · 군 · 단위에서 본인이 원하는 지역을 선정하여 포교활동 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 기본급 월 3백만원 외 활동 범위와 능력에 따라서 배당금과 수당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 불교를 위해서 무언가 공덕을 짓고자하는 불자님들은 망설임 없이 연락 바랍니다.

010-8459-1472, 043-642-9413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010-5270-8260

부전스님 공양주보살 모십니다

010-2078-9595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암, 간질, 공황장애, 음주, 우울증치료, 조현병, 정신질환 치유가 90% 이상 가능합니다.

- 친견비 330만원
- 천도비 1억부터 시작
- 모든 사고사 예방됩니다.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적천리 113 미륵암
지평대사 : 010-4804-2309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천왕사
- 주 지 : 청명 스님(속명 : 김종분)
- 주 소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오빈리 96-13번지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4일

대승불교관음종 총무원장 법하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합장주·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0mm)
판매가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 전화 1688-9099 / (02)732-1520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효민의
서도로 새기는 경구

⑮ 불기(不器)



모든 것을 아우르는 사람

장마가 한풀 꺾이더니 이제는 뜨거운 햇살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태풍이란 놈이 또 비와 바람을 몰고 온다고 하니 고난의 연속입니다만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에 석가모니부처님의 환한 미소가 자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불기(不器)' 입니다. 쓰임새가 그릇과 같이 하나의 용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일정한 그릇이나 기물의 용도는 정해져 있지만 인격적으로 완성된 사람은 통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뜻으로 '모든 것을 아우르는 사람' 을 두고 하는 말이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불기(不器)인가요? 모든 것에 다 통하고 있나요? 아니면 자신만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나요? 자신만의 그릇을 만들면 다른 그릇을 담지 못합니다. 그릇을 만들지 않아야 세상 모든 그릇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릇을 만든다는 것은 분별과 경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불교계에서는 변화의 목소리와 함께 사부대중 모두 전법포교의 길을 나서자는 외침이 있습니다. 옛날 생각에 붙들려있지 말고, 근엄한 척 하지 말고 네 편 내편 만들지 말고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불기(不器)의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가족, 이웃, 친척, 친구, 동료들에게 불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 안에 있는 작은 그릇부터 부숴버리고 모두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큰 그릇, 그것이 곧 부처님 법 전하는 일 아닐까요? 나무석가모니불.

〈서예가〉



승한 스님의
불교시 감상

㊳ 이상국의 '오래된 사랑'

'수연불변' 같은 사랑 있을까
〈隨緣不變〉

오래된 사랑/ 이상국

백담사 농암장실 뒤뜰에
팥배나무꽃 피었습니다
길 가다가 돌부리를 걷어찬 듯
화안하게 피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몇 백 년이나 걸렸는지 모르지만
햇살이 부처님 아랫도리까지 못살게 구는 절 마당에서
아예 몸을 망치기로 작정한 듯
지나가는 바람에도
제 속을 다 내보일 때마다
이파리들이 온몸으로 가려주었습니다
그 오래된 사랑을
절 기둥에 기대어
눈이 시리도록 바라봐주었습니다

– 이상국 시집, 〈어느 농사꾼의 별에서〉 창비, 2005

〈감상〉

이 시를 읽으면서 필자는 세 번, 숨이, 칵, 막혔다. "여기까지 오는데/ 몇 백 년이나 걸렸는지 모르겠지만"에서 한 번, "아예 몸을 망치기로 작정한 듯/ 지나가는 바람에도/ 제 속을 다 내보일 때마다/ 이파리들이 온 몸을 가려주었습니다"에서 두 번, 그리고 "그 오래된 사랑을/ 절 기둥에 기대어/ 눈이 시리도록 바라봐주었습니다"에서 세 번 숨이 막힌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아예 몸을 망치기로 작정한 듯/ 지나가는 바람에도/ 제 속을 다 내보일 때마다/ 이파리들이 온몸으로 가려주었습니다"에서는 오르가슴 같은 절정을 느꼈다. 어느 시인이 있어 팥배나무 화안한 속내와 그를 가려주려는 이파리들의 온몸의 사랑을 이리 뜨겁게, 그러나 애틋하고 애절하게 그려낼 수 있을까. 이상국 시인의 그윽하고 애틋한, 그러나 따뜻한 시안(詩眼)의 마음이 아니고는 도저히 퍼 올릴 수 없는 사랑의 심연이다.

그런데 이상타. 팥배나무꽃은 하얗다. 그래서 이상국 시인도 '화안하' 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내 색맹의 마음은 이 시를 자꾸 붉은 색으로 읽는다. 어디서 그런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을까. 그것은 팥배나무의 '팥' 에서 팥의 색깔이 먼저 연상되기 때문이다.(실지로 팥배나무는 꽃이 지고 난 다음에는 팥처럼 붉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팥배나무의 꽃은 온통 하얀색이다. 그러기 때문에 "화안하게 피"어 오르는 시어가 잔잔하면서도 강렬하게 심상을 추동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시로 돌아가 보자.

어느 날 시인은 "백담사 농암장실 뒤뜰"에 갔다. 그런데 팥배나무가 화안하게(하얗게) 피었다. 그것도 "길가다 돌부리를 걷어찬 듯/ 화안하게 피었"다.(아, 길가다 돌부리를 걷어차면 얼마나 아픈가. 정신이 확 돌만큼 아프다 못해 얼얼하다.) 그런데 그것을 이상국 시인은 "화안하게 피었"다고 자신의 아픔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있다. 여기서 시인은 첫 번째 복선을 깔아놓았다. 두 번째 복선은 바로 다음 행에서 시작된다. 태양에서 지구까지 걸어오는데(달려오는데) 몇 백 년이나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햇살이 부처님 아랫도리까지 못살게 구는 절 마당에서/ 아예 몸을 망치기로 작정한 듯/ 지나가는 바람에도 제 속을 다 내보일 따마다/ 이파리들이 온몸으로 가려주었"다는 대목에서 필자는 곧 자지러지는 듯한 애처로움을 느낀다.

"햇살이 부처님의 아랫도리까지 못살"게 굴다니, 이런 망측한 일이 어디 있는가. 관능도 이런 관능이 없다. 그런데도 관능보다도 애처로움이 더 앞서는 까닭은 무엇인가. 비로소 우리들의 눈길은 그 다음 행에 가서 멎는다. 바로 "오래된 사랑"이다. 조강지처보다 더 "오래된 사랑"이기에 그것은 관능이 아니라 대자대비의 관세음보살과 부처님의 보살도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상국 시인과 함께 "절 기둥에 기대어/ 눈이 시리도록" 그것을 바라보며 "오래된 사랑" 속으로 침잠해 든다.

사실 팥배나무는 외로운 꽃이다. 군락을 이루지 않고 한 그루씩 드문드문 자라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 중생들의 외로운 모습을 상징한다. 대중 속의 고독. 우리 중생들과 팥배나무는 그런 점에서 매우 닮아 있다. 또한 개별자로서 우리는 팥배나무처럼 누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이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랑은 어쩌면 고해를 헤쳐 나가는 우리 중생들의 고행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고행이 있기에 우리들 사랑은 속곳까지 다 드러내보여도 부끄럽지 않다. 오히려 부처님의 자비 광명의 이파리가 우리들의 속곳을 온몸으로 가려준다. 그것이 이 시의 발화점-오래된 사랑이다. 그 발화점이 없다면, 부처님의 자비광명의 이파리는 물론 우리 개별자-팥배나무로서의 의미도 무참해지고 만다. 아니 몇 백, 몇 천 년을 이어온 우리들의 사랑법(불교)도 '똥 막가지' 하나에 불과하다. 팥배나무와 우리들의 사랑, 부처님과 우리들의 참 오래된 사랑, 참 장하고 거룩한 사랑이다. 불과 14행에 불과한 이 시가 더 큰 희망과 먹먹한 감명을 주는 것도 그 때문이다.

여기서 잠깐, 불순한 생각 하나. 이 시를 지독한 남녀상열지사의 천박한 사랑이 아닌 애틋한 사랑, 무궁한 사랑으로 승화시켜주는 것은 그 사랑이 "절(집) 기둥에 기대어/ 눈이 시리도록 바라봐"줄 수 있는 이상국 시인의 순백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시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의견은 하나도 제시하지 않은 채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이 시를 보편적 사랑을 뛰어넘는 절대적(아가페적) 사랑으로 변환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가 땀기 흥건한 사랑이 아닌 애처롭기 그지없는 그윽한 사랑을 맛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화엄경〉과 〈대승기신론〉에 수연불변(隨緣不變)이라는 말이 나온다. 변화무쌍한 세상의 이치를 따르지만 그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오래된 사랑' 이 그것이다. 세상이 아무리 외도를 하고, 인연들이 변해도 '부처님과 나' , '부처님과 우리' 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상국 시인이 구태여 농암장실(聾庵丈室)을 끌어들인 것도 결국은 그것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농암장실을 우리말로 풀이하면 '귀머거리 방' 이기 때문이다. 제 속곳까지 다 내보이는 사랑이지만, "이파리들이 온몸으로 가려주"는 수화(手話)의 사랑이기에 이 오래된 사랑은 더욱 애틋하고 처연한, 그러나 따스한 사랑이 되고 있는 것이다.

〈불교문학연구소장〉

일일시호일

가까스로 심정지 벗어났지만 디스크까지 겹쳐 고통

한국서 홀로 가족 생계 책임지던 스리랑카 이주민 삼밧씨
병원비 1000만원에 허리 · 무릎 수술…"가족 위해 일어나야"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 해외 지원 사업

마음책 다시 읽기 명상에 답이 있다 ❺ 집중명상–만트라 명상

▶ 한줄 요약
자잘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단 몇 번의 심호흡을 하거나 만트라 명상을 통해 이완반응을 일으키면 큰 도움이 된다.

불안·스트레스, 심신 이완으로 줄이자



이완반응 일으키기

이 장에서는 마음과 몸의 평화를 야기하게 하는 집중명상인 만트라 명상을 살펴볼 것이다. 우선 몸과 마음의 평화, 다시 말해 이완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첫째는 집중을 일으키기 위해 특정한 초점 대상이 있어야 한다. 예컨대 선불교에서 특정한 화두에 몰두한다든지, 기공수련에서 자신의 호흡(단전호흡) 현상을 집중 관찰하는 것이라든지, 만트라(mantra) 또는 진언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하여 읊조리는 경우라든지, 단순한 특정 근육활동을 되풀이하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한 가지 초점에만 맞춤으로써 일상적인 생각이나 걱정거리 쪽으로 주의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생각을 산란하게 하는 것에 대해 반응하지 않고 알아차림만 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다. 이것은 주의의 초점 대상에 대해 집중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의가 초점에서 벗어나 잡념이나 공상 속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림 한 후 초점 대상 쪽으로 수동적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이완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아래 언급하고 있는 여덟 가지 요건을 잘 갖추어야 한다.

1. 주의의 초점이 될 대상을 정한다

즉 단어, 구절 또는 기도문 등의 만트라를 선택해야 한다. 불교 신자라면 "관세음보살"과 같은 것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종교도 갖지 않은 사람은 "하나", "사랑" 혹은 "평화"와 같은 단어를 선택할 수 있고, 아랫배나 콧구멍과 같은 호흡과 관련된 특정 신체 부위 운동이나 감각에 초점을 둘 수도 있다.

2. 편안한 자세를 취해 조용히 앉는다

이완반응을 일으키기 위해 가부좌나 반가부좌와 같이 어려운 자세를 무리하게 취할 필요는 없다. 대신 생각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로 편안한 자세를 취해 앉도록 권한다. 등을 수직으로 바로 세우고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3. 눈을 감는다

실눈을 뜨거나 자연스럽게 눈을 감는다. 눈을 감는 데 힘을 들여서는 안 된다. 눈을 감는 것은 외부의 시각적 자극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다. 부드러운 안대 같은 것으로 눈을 가리면 더 안정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4. 근육을 이완한다

발가락부터 시작하여 발, 종아리, 무릎, 허벅지를 거쳐 복부 쪽으로 올라오면서 온몸 근육의 긴장을 이완한다. 어깨를 부드럽게 좌우로 돌리고, 상하로 오르내리면서 힘을 뺀다. 두 팔을 들어 올렸다가 아래로 힘없이 내려놓는 동작을 몇 번 반복한 뒤 자연스럽게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는다.

5. 천천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호흡한다

몇 초를 들이쉬고 몇 초를 토한다는 식의 강제성을 띠지 않고 자연스럽게 한다. 숨을 내쉴 때마다 앞에서 선택한 단어나 구절을 되풀이하여 읊조린다. 단어나 구절의 선택은 한 번 내뱉는 호흡 동안 읊조릴 수 있을 정도의 짧은 길이로 정하는 것이 좋다.

6. 반응하지 않고 알아차리는 자세를 유지한다

고요히 앉아서 자신이 선택한 구절이나 단어를 반복하면 잡념이나 공상이 일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잡념들이 일어나더라도 잡념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말고 오직 '잡념이 생겼구나' 하고 알아차림 한 후 조용히 단어나 구절의 암송으로 되돌아가기만 하면 된다.

7. 한 번에 20분 정도 한다

1~2분 동안 잠깐 하는 경우도 효과가 있지만 정기적으로 하는 경우 한 번에 20분 정도가 가장 좋다고 한다. 연구에 의하면 20분 정도의 명상에 6시간 정도의 수면과 맞먹을 수 있는 정도의 이완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다.

8. 하루 두 번 정도 실천한다

새벽에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 이유는 이때가 수면 동안 작용했던 내분비 호르몬이 각성 시의 내분비 호르몬으로 교체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수면 전에 하면 좋은 이유는 낮 동안 작용했던 내분비 활동을 수면 중의 내분비 활동 양상으로 교체해주기 때문이다.

일상생활 속 약식 이완반응

일단 명상을 통해 이완반응을 일으키는 데 익숙해지고 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불안도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된다. 명상이 끝난 후에도 마음과 몸이 한결 차분해짐을 느끼게 될 것이며 이런 기분이 온종일 계속되어 심신이 건강해진다.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는 귀찮은 사건들, 흔히 말하는 '열 받는' 사건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기 마련이다.

마음을 한 곳에 맞춰 집중하고
잡념에 따르지 않는 노력 필요
간편한 이완반응 잘 활용하면
집중력 높이고 오감 확장 도움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귀찮고 열 받는 사건들은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다. 자잘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단 몇 번의 심호흡을 하거나 만트라 명상을 통해 이완반응을 일으키면 큰 도움이 된다. 몇 번의 횡경막 호흡이나 만트라의 읊조림과 같은 간편한 이완반응을 일상의 장면 속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사태에 잘 적용해나가면 건강 유지에 대단히 유용한 방법이 된다. 이런 식의 '약식 이완반응'은 우리의 마음을 한껏 새롭게 해줄 뿐만 아니라 몸에 힘을 실어주기도 한다. 다시 말해 주의집중력을 높여주고 오감을 신선하게 느끼게 해주어 삶을 더욱 싱싱하게 해준다. 남과 잘 어울리게 해주어 인간관계도 좋아진다.

약식 이완반응 명상법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방법

깊이 숨을 들이마신 후(횡경막 호흡) 숨을 마신 채로 몇 초간 참는다. 그런 후 매우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초점 단어나 구절(앞서 만트라 명상에서 연습한 것)을 읊조려라. 이것은 전형적인 이완반응을 야기하는 약식 명상이다. 몇 번 되풀이하라.

둘째 방법

오른쪽 손을 배꼽 바로 아래(단전이라 부르는 곳)에 놓아라. 숨을 들이킬 때 손이 위로 올라가고 숨을 내쉴 때 손이 아래로 내려가는지를 살펴보라. 들이킬 때 "열" 하고 세고 이어 숨을 토한 후 다음 들이킬 때 "아홉" 하고 센 다음 숨을 토한다. 이런 식으로 "하나"가 될 때까지 숨을 거꾸로 세는 약식 수식관 명상을 한다.

셋째 방법

둘째 방법에서 한 것처럼 손을 단전 부위에 얹고 숨을 들이킬 때 하나… 둘… 셋… 넷까지 천천히 센다. 숨을 토할 때는 거꾸로 넷… 셋… 둘… 하나 하고 천천히 센다. 다시 말해 숨을 들이킬 때는 하나, 둘, 셋, 넷 하고 토할 때는 넷, 셋, 둘, 하나 식으로 세어간다. 이것은 이완반응과 수식관을 합성한 약식 이완명상법이다.

넷째 방법

이번에는 숨을 들이킬 때 '코'로 들이키고 토할 때는 '입'으로 내쉰다. 이런 호흡을 열 번 되풀이한다. 이때 들이킬 때 콧속에 들어오는 공기가 얼마나 차며 내쉴 때 공기가 얼마나 따뜻한지 온도 차이를 느껴본다.

약식 이완반응 명상법은 병원에서 검사나 치료를 할 때 활용하면 불안과 통증을 다루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의료 장면에서 약식 이완반응 명상법 실천으로 불안과 신체적 통증이 유의미하게 감소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치과 대기실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을 때 또는 치과 치료용 의자에 앉아 대기하고 있을 때 횡경막 호흡을 한다거나 호흡을 거꾸로 세는 수식관 호흡을 한다거나 초점 단어(만트라)를 읊조리는 등의 약식 이완호흡 명상을 하는 것은 시술에 따르는 불안을 누그러뜨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실제 주사를 맞거나 수술을 받는 도중 만트라 호흡을 계속하면 불안뿐만 아니라 통증관리에도 큰 도움이 된다. 여기서는 '빛으로 몸과 마음을 정화하기'라는 약식 이완명상법을 소개한다.

빛으로 몸과 마음을 정화하기

몸을 부드럽게 쭉 뻗치면서 서서히 눈을 감고 시작하세요.

먼저 호흡에 주목하면서 숨을 들이마실 때는 몸이 약간 부풀어 오르고, 숨을 내쉴 때는 몸이 약간 오그라들며 이완되는 것을 주목하세요.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을 부드럽게 관찰하노라면 집중력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머리 위에 사랑의 빛을 발하는 큰 별이 하나 있다고 상상합니다.

이 별에서 발하는 사랑의 빛이 폭포수처럼 당신 쪽으로 흘러내려 당신의 몸을 통해 흘러간다고 상상하세요.

정수리로 빛이 들어와 강물이 강바닥의 모래 위를 씻어내려가듯이 몸속의 개개 세포들 사이를 헤집고 지나간다고 상상해보십시오.

빛의 강물에 의해 피로감도, 질병의 잔재도, 나쁜 독소도 다 깨끗이 내려가 발바닥을 통해 대지로 흘러나간다고 상상합니다….

마음과 몸의 독소들이 다 씻겨 내려갈 때까지 이 명상을 되풀이 합니다.

이 명상법은 하버드 의대 심신의학연구소의 공동소장이었던 조안 보리센코(Joan Borysenko) 박사가 임상에서 활용하는 명상방법의 하나이다. 이 약식 이완명상법은 집중명상과 심상법을 적절하게 결합한 것으로 때때로 하면 심신이 정화되어 건강해진다.

〈장현갑 지음 / 담앤북스 펴냄〉



전통과 미래, 그리고 한국불교의 자부심
BTN 불교TV
방송시간안내
BTN 불교TV 대표 프로그램



법상스님의 육조단경과 마음공부
육조 혜능스님이 법문하신 육조단경의 핵심 내용을 배워보는 시간
본방송 (월) 07:30 재방송 (월) 19:30, (토) 22:30



자현·광우스님의 끝판! 맛수다
자현스님과 광우스님의 '맛있는 수다' 재미있는 불교공부
본방송 (수) 07:30 재방송 (수) 19:30, (일) 14:00



동훈스님의 다음생 이야기
오늘 좋은 씨앗은 내일 좋은 열매!
본방송 (금) 07:30 재방송 (금) 16:00, (일) 21:00

BTN 채널안내 | olleh 233번 B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대행 스님

그냥 모든 거를 차례차례 닥치는 대로 다 놔버리세요

백종을 지내는 뜻이 무엇인지요

질문 불교에서는 백종이 큰 명절 중의 하나로 돌아가신 조상들의 영혼을 건지고자 백종날 천도재 의식을 지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인지요.

답변 그런데 말입니다, 그 영혼 자체가 바로 육신과 둘이 아닙니다. 이 육신과 영혼이 있는 데다가 그 불씨 에너지, 원소 자체가 있어서, 즉 작용할 수 있도록 마음을 내 주게 하는 겁니다. 이 영혼이라는 그 자체가 마음속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신이라고도 하고, 악신이라고도 하고 선신이라고도 하죠, 마음을요. 마음을 잘 쓰면 바로 선신이요, 마음을 악하게 쓰면은 악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도 악신으로서 삶을 악하게 살았으면 아주 악의적인 영혼이 되고요, 선의적으로 지혜롭게 대치를 해 나가고 마음을 넓게 잘 쓴 사람들의 마음은 악신이 아니라 선신으로서 구별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마음 한군데서, 이 영혼이 악신도 나오고 선신도 나옵니다. 영혼 자체가 자기 근본은 아닙니다. 영혼은 악신이 될 수도 있고 선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그냥 이름일 뿐입니다, 영혼이라는 이름. 마음을 잘 쓰는 데서 나오는 선신도 영혼이요, 악신도 또 영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그 자체는 바로 자기 마음 씀씀이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돌아가시면 재를 곱게 쳐서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인도환생을 했으면 발자국이 나타난다거나, 독사가 됐으면 독사 흔적이 나온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악행을 한 혼백이라면, 귀신이 머리를 풀어서 산발을 한 모양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모양을 보더라도 그렇고,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불씨가 아니라, 그 마음을 내 주는 반면에 마음속에서 나와서 행동하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거를 영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업식' 이러죠.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지만 영혼의 업식은 따라간다구요. 자기의 불씨는 항상 밝아서 여여한데 그 업식, 영혼이 그냥 얼기설기 얽혀 가지고 업식이 돼서 현실에 나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악신도 되고 선신도 된다는 얘기죠. 악신으로서 너무 악하게 했다면 진짜 악신으로 활동을 할 거고, 선신으로서 행했다면 선신으로 활동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시키는 거는 악신이고 선신이고 몽땅, 악신이 나오면 악신인 대로 거기다 놓고 선신이 나오면 선신이 나오는 대로 감사하게 거기 놓고 이렇게 하라는 얘깁니다. 업식이 다 이 몸속에 들어 있으니까 악신으로서 악행을 하게끔 이 마음속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악신으로서 행이 나올 때는 '어, 이것도 네가 저지른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하고 거기다 놓고 '이것도 공부고 재료지.' 하고 거기다 놓고요, 또 잘되고 싱그러운 일이 생기면 '이것도 감사하구나.' 하고 감사하게 거기다가 맡겨 놓고요. '참 감사하구나.' 하는 생각만 해도 맡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마음을 그렇게 먹었으면 죽어서도 영혼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을 건지고자 백종을 마련해 놓았고 칠석을 해 놨죠. 그런데 이런 게 있죠. 사람이 죽으면 악행을 했든지 선행을 했든지 간에 그 모든 문서를 그냥 해결해 버리고 불씨를, 그냥 여러분이 땅을 갈아서 돌을 주워 내버리고 골라 놓는다면 이 스님네들은 씨를 거기다가 심어 주는 겁니다. 백종이 그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성껏 부모, 조상 영가들을 써 가지고 오시면 그게 밭을 갈고 밭을 고르는 거나 같은 거죠. 봉투에다가 모두 이렇게 정성껏 해 가지고 오시는 건 그러한 작업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그 밭에다가 불씨를 심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인도환생을 해서 싹이 나죠. 싹이 나는 것이 인도환생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인도환생하는 것도 그 자손들이 얼마나 정성껏 잘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부잣집으로 태어나느냐 가난한 집으로 태어나느냐 하는 것도 있죠. 또 깡통의 차원이라서 깡통끼리 태어나게 하느냐, 하하하, 선신이라서 선신끼리 태어나게 하느냐? 가족의 모든 것도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 있을 때는 배우면서 지혜롭게 넘어설 수 있고 업을 면제할 수도 있죠. 그리고 잘 생각하고 계속 지극하게 수행해서 자기 무명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죽으면 더하고 덜함도 없기 때문에, 그게 새로이 의복을 다시 갈아입고 나오는 때라 교차로가 되거든요. 교차로에서는 어떻게 자기가 더 배우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하고 덜함이 없죠. 이 몸, 모습이 없으니까 부딪침이 없고, 부딪침이 없으니까 상대가 없고, 상대가 없으니까 배울 게 없고 그런 거죠. 그래서 살아 있을 때 꼭 이 도리를 배워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요, 이 정신세계의 마음을 못 배우면요, 영혼이 죽어서 말입니다, 아휴, 자기 몸체가 있는 줄 알아요. 옷을 벗었어도 벗은 걸로 알지 못한다니까요. 그래 가지고 물에 빠져 죽을까 봐 못 가고, 불에 타 죽을까 봐 못 가고, 또 귀신들 많고 짐승들이 많은 데는 잡아먹힐까 봐 못 가고, 이렇게 넘어서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했고, 부처님께서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저 언덕을 넘어서야 하느니라." 하셨는데, 이 도리를 알고 보면 언덕을 넘어갈 것도 넘어올 것도 없단 얘기죠. 그 도리를 알면 산 부처죠, 산 법신이구요. 가만히 있으면 산 부처고 생각을 냈다 하면 법신이고 몸을 움죽거렸다 하면 화신이에요, 그냥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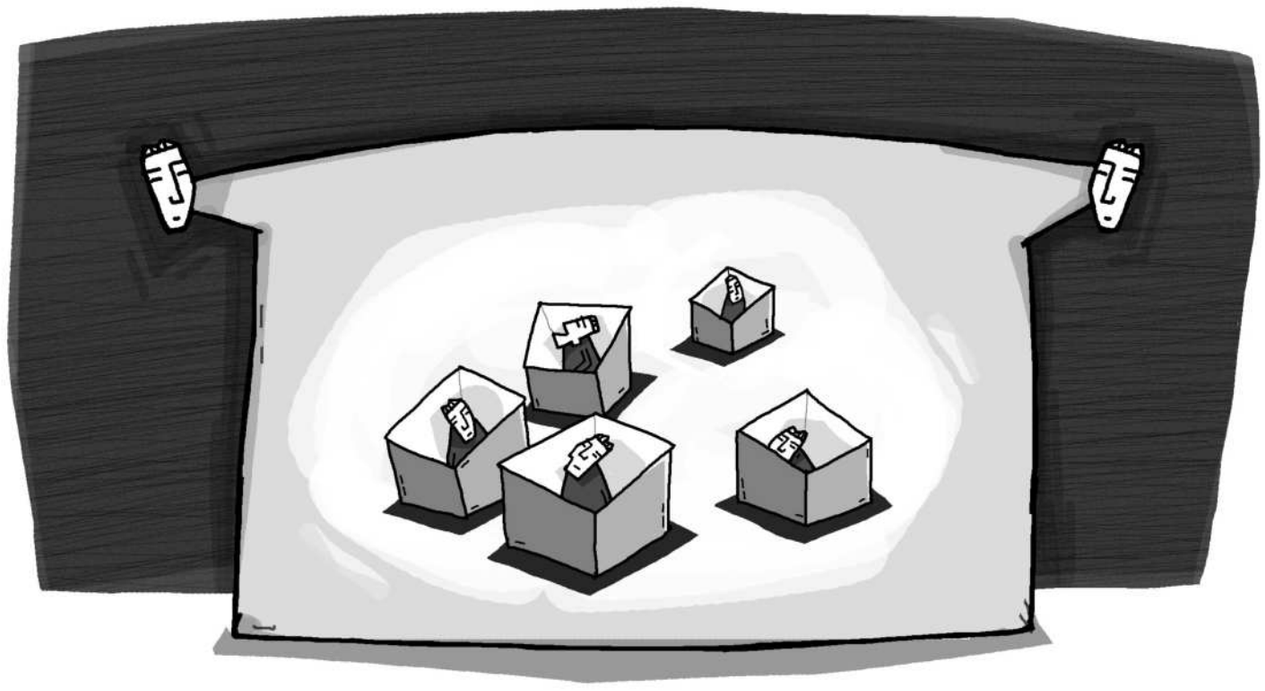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창살 없는 감옥에서 벗어나려면

질문 큰스님 법문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창살 없는 감옥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살아가고 있다는 게 정말 실감이 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감옥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아침 저녁 자고 깨는 것도 실감 나지만 우리가 흩어졌다가 모이는 것도 실감 나죠. 우주 자체도 그렇게 흩어졌다가 모이고, 모였다 흩어지고 하는 작용을 쉴 사이 없이 하거든요. 먹고살기 위해서, 가정생활 속에서 내 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회 또는 내가 살고 있는 그 자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생각해 보지도 못하면서 살아나가는 수가 많습니다. 자기 죽을 날도 생각하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도 죽을 날은 생각지 않죠.

요새 난 '여러분이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채 부자유하게 살고 있구나.' 하는 거를 생각할 때 너무나 딱해서 기가 막힐 때가 많아요. 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창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창살 속에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면서 구속을 받고 살고 있나. 자기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폭넓게 생각을 해 보십시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체 천차만별의 사생들, 그 모두가 어떻게 살고 있나. 천차만별의 사생들이 모두 자기가 살아온 습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벗어나지 못할까요?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 봅시다. 연어인가, 은어인가? 하여튼, 왜 그것은 자기가 태어난 자리를 떠나서 세상천지를 돌아다니다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서는, 자기 모습을 형성해 놓고 자기는 없어지는 그러한 역할을 벗어나지 못하고 쉴 사이 없이 하게 될까요? 사람이라고 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우리의 모습들로 인해 먹히고 먹고 살아온 그 습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습이 쉴 사이 없이 반복되는 반면에 누적이 되고 누적이 되고 그래서, 하여튼 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려고

☞ 22면으로 계속



인간의 마음의 근본은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대입니다

☞ 21면에서 계속

한 번도 생각해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 그대로만 따라갈까요? 그대로 따라가더라도 우리 마음은 발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마음의 발전이 있어야만이 우리의 삶도 발전이 생기고, 또는 발전이 생기는 반면에 창조력이 생기고, 창조력이 생기면 물리가 터지고, 물리가 터지면 지혜로워지죠, 마음이 넓어지고. 그래서 우주 천지를 곳곳마다 심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자유스러운 사람이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넓게 봐야 하나? 첫째, 우리가 공기주머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사실만 알아도 그것은 아주 폭넓게 생각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알고만 있어서도 안 된다고 했죠.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마음은 체가 없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한 찰나에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행할 수도 있다. 삼천 년 전을 지금 현재에 일 초로 갖다 놓을 수도 있다. 미래를 일 초로 갖다 놓을 수도 있다. 이것은 못을 박아서 '미래의 어느 때에 이렇게 갖다 놓을 수 있다' 이런 게 아니고, 시공을 초월해서 멀고 가까움이 없이, 또 가고 옴이 없이 자유롭게 가고 옴을 말하는 거죠.

이 모든 도력이 어디서 생기나? 마음이 폭넓고, 폭넓은 그 무리들이 사는 그 가운데에 바로 나도 더불어 함께 한마음으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를 형성시킨 놈이 어떤 놈인가? 내가 나를 형성시켜서 지금 끌고 다니는데, 물론 혼자는 할 수 없어서 어느 부부를 등장시켜서, 정자 난자를 빌리고 몸을 빌려서 형성시키는 겁니다. 벌레가 나무를 의지해서 자기 몸뚱이를 붙들어 매서 진화를 시키는 것처럼, 우리는 기대지 않고는 못 살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한테 해 드리는 말이 '공생, 공심, 공용, 공체, 공식화하고 돌아가고 있다' 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 데로 가서 공부를 하겠다, 산으로 올라가서 공부를 하겠다, 홀로이 앉아서 공부를 하겠다 이런 것은 아주 어긋나는 일이죠.

어떤 선지식께 제자가 이런 말을 했다죠. "분주하고 시끄러워서 저는 도저히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서 토굴을 묻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너는 지금 곧바로 가되 길을 딛지 말고, 남이 짜 준 옷을 입지 말고, 남이 농사지은 밥을 먹지 말고, 남의 물을 먹지 말고 남의 땅에다가 오줌도 누지 말라. 그리고 남이 농사지어서 지붕을 만든 건데 그 지붕 밑에서 어떻게 자느냐? 남들이 다 해 놓은 데서 너도 더불어 같이 살면서, 더불어 같이 사는 너의 모습과 너의 생명과 너의 아픔을 다 버리고 무슨 공부를 한다고 하느냐!"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뜻을 그때서야 알고 '어허, 이게 모두가 한도 량이구나!' 하고 가는 바도 없고 오는 바도 없이 공부를 했더랍니다.

그런 거와 같이, 이걸 말로 꼬집어서 어떻게 다 하리까? 말로 해서 마음이 승화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말로 꼬집어서 다 할 수가 없어요. 비밀문서라는 것이 정신세계의 비밀이니까요, 전부. 우리가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는 것도 비밀이거든요. 예전에는 모습을 가지고 축지법을 했지만 정신계의 축지법이 지금 시점에는 필요하니까요. 지금은 정신을 먹고 살고, 정신을 잡아먹느냐 정신을 뺏기느냐 하는 문제들의 싸움이라고요. 지금 구순히 사는 것 같지만 전체가 전부 싸우고 있는 거죠. 이런 싸움을 안 하고 어떻게 평등하게 공법으로 대치를 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두가 내 몸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고, 내 형상 아님이 없는데 모든 거를 밟고 먹고 이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인간의 도리를 다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법은 없을까? 그래서 삼천 년 전에 부처님께서 그 뜻을 일러 주셨고 지금까지도 일러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도리를 깨달았다 해도 각각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도리를 자세히 들으세요. 마음은 체가 없어서 깨달은 사람들의 마음이 아무리 많이 마음을 통해서 들어와도 두드러지지 않고, 여러 부처님들의 마음이 여기를 통해서 바닷물 내놓듯이 다 내놔져도 줄지 않아요. 이렇게 광대무변하고 묘한 도리가 우리들에게 다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관습의 습에, 인연줄에 매달려서 그냥 꼼짝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식구, 부부, 자식이다 할지라도 그 자식들의, 부부의 몸을 붙들고 매달리지 말고, 만약에 그 마음을 둘 아니게 놓고 슬기롭게 굴린다면 몸은 저절로 붙들어지고, 사랑은 저절로 화해서 자비의 정이 되어서 뗄래야 뗄 수 없이 이어져 가면서 더불어 하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묘법이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어떡하면 요것을 요리를 잘해서 잘 먹여서 그 맛을 알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도무지 쉽지가 않고 땀이 부쩍부쩍 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구에 붙어서 사는 사람 벌레는 화해서 한 발을 떼어 놔야만이 이 공기주머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자유자재할 수가 있고, 그래야만이 내 마음을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 평등봉에 같이 한자리를 할 수 있어서 여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별심을 놓아야 하는 이유

질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분별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마음공부를 하는 데는 분별심을 다 놓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답변 우리가 학술적으로나 경학으로 모든 것을 일일이 따져서 배우려면 천 년이 가도 다 못 배울 겁니다. 다 못 배울 뿐만 아니라 깨치지도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인도해 드리는 거는 "항상 일거수일투족이 다, 내 몸에서 나오는 거는 다 그놈이 하는 거다. 모든 것을 작용하게 해 주는 의식들도, 생명들의 의식들도 다 다스리는 그놈이 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오장육부의 소임을 맡고 있는 그분들, 그분들이라고 해도 돼요.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분들도 다 내 선장의…, 선장이라는 건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응해 주면서 밀고 나가는, 그 천차만별의 의식의 힘들 말입니다. 그런 걸 본다면 요만한 거 하나 빼놓지 않고 내 몸뚱이가 움죽거리고 사는 것이 모두 나의 불성 원동력이 그렇게 힘을 배출해 주는 까닭에 움죽거리지 않고도 이 우주 천하를 다 움죽거리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의 근본은 국한돼 있는 게 아닙니다. 무한대입니다, 무한! 항상 진화해서 발전시키고, 발전하면서 또 거듭거듭 발전할 수 있는 무한한 심성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마음공부를 하면서 반야줄이라는 자기의 줄을 잡고서 나가는 거는 당연하지만, 본래는 반야줄이라는 것도 없고, 마음이라는 것도 없고, 문이라는 것도 없고, 교차로라는 것도 없이 그대로 그렇게 여여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가르치기 위한 방편의 이름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시게끔 한번 이렇게 뒤집어 봅시다. 이 세상의 도리로 악이다 선이다, 나쁜 거다 좋은 거다, 모자라다 영리하다, 길다 짧다, 죄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이 논의되는 데 이것이 자기를 막아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있다 없다도 없습니다. 참 미묘한 거죠. 인간은 당연히 고등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이러니저러니 하는, 죄가 있다 없다, 업이 있다 없다, 무명이 있다 없다 이런 게 근본에는 없습니다.

내가 항상 "죄가 있든지 없든지 무조건 믿고 무조건 놔라." 이랬습니다. 그것입니다, 바로! 무조건 놓게 되면 무조건 사대로 통신이 되면서, 모든 오장육부의 의식들도 통신이 되면서 대뇌를 통해서 정수에 입력이 된다고 그랬죠. 입력이 되면은, 내 생각으로 잘됐다 못됐다가 없이, 잘된 것도 못된 것도 착이 없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분별이 없이 무조건 거기다가만 넣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놓게 되면, 앞서 차원으로 살아오면서 입력됐던 것이 다 없어집니다. 무조건 하고 없어지는 거죠. 무조건 놨으니까 무조건 없어지는 겁니다.

이 마음공부를 하는 데 그렇게 세세하게 이유를 따지고, 분별을 하고, 옳으니 그르니 한다면 저승 세상은 맛도 못 봅니다. 죽는 사람이, 한순간에 숨이 끊어질 텐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들을 두고 죽으면서 이유를 붙입디까? 죽는 사람은 이유를 못 붙여요.

그렇듯이 우리가 죽은 세상에 들어가서 모든 걸 할 수 있어야죠. 듣는 사이 없이 듣는 세상, 보는 사이 없이 보는 세상, 가고 오는 사이 없이 가고 오는 세상, 내가 자유자재로 '이렇게 하겠다'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겠다' 하면 저렇게 하는 거, 이게 평등공법의 원리입니다. 이유를 붙인다면 어떻게 그런 세상을 배우고 맛볼 수 있겠습니까?

죽으러 가는 사람이 '이 길이 옳다, 저 길이 옳다' 이러고 갑니까? 죽는 사람은 아무 말도 못 하고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길에서 와서 길로 갔노라.' 하셨지만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역시 길에서 와서 길로 가는 겁니다. 한마디 더 붙이자면 '길을 걷다가 길로 간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살아오던 습과 착과 욕심과 그 의식으로 지내던 모든 것이 앙금처럼 앉아 있기 때문에 이 생각 저 생각이 복잡하게 일어나는 거죠. 지금 한세상 살아가기도 바쁜데, 그리고 귀찮은 일도 많은데, 생기는 대로 닥치는 대로 한마음 속에 모든 거를 다 놓고 편안히 그냥 길을 걸어가면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 골치 아픈 거를 다 이유를 따지고…, 사람이 젊었을 때는 좀 따지기도 좋아하고 또 뛰어들기도 좋아하고 그러다가도 나이가 좀 들면 점점점점 식어집니다. '에이, 귀찮아. 그저 뭐, 끼어들어 봤자 그렇구.' 이렇게 하듯이, 그냥 모든 거를 차례차례 닥치는 대로 다 놔 버리세요.

논설도 필요 없고 이론도 필요 없습니다. 이론을 따지다 보면 한이 없어요. 살아나가는 모든 것을 이론으로 따지고 하는데, 무의 세상에 공법의 도리로서 가고 옴이 없이 일을 하는 것은 그대로 내 한생각이라고 할까요? 생각이라고 해도 그것도 방편이죠. 이 물을 봤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싶으니까 그냥 먹었을 뿐이죠. 모든 일이 그러하다 이겁니다.

> 논설도 필요 없고 이론도 필요 없습니다.
> 이론을 따지다 보면 한이 없어요.
> 이 물을 봤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싶으니까 먹었을 뿐이듯이
> 모든 일이 그러한 것입니다.

머무르지 않는 마음이란

질문 금강경에도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하셨는데 머무르지 않는 마음은 어떤 것인지요.

답변 여러분은 머무른다는 생각을 하고, '내가 아버지가 되겠다' 는 생각을 하고 애가 와서 부르면 아버지 노릇을 합니까? 또 "여보" 하고 부르면 '내가 남편 노릇을 해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남편 노릇을 합니까? 그렇게 미리미리 아주 생각을 하고 합니까, 모든 일체 만법을? 그리고 병고가 오더라도 '병고가 간다' 이러고선 옵니까? '내가 병을 앓겠다' 하고 앓습니까?

항상 얘기했죠? '주인공이 청정함을 어찌 알았으리까?' 이 청정하다는 뜻은 더럽고 깨끗한 게 전체 한데 합쳐서 돌아가고 '나' 라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청정하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 한 구절을 듣고서 지견이 열렸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분들 다 지견이 열립니다. 머무르는 바가 없이 여러분이 지금 생활하지, 아니, 머무르는 바가 있게 생활합니까? 마음은 체가 없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야, 내가 집을 짓겠다.' 한다면 그것도 머무름이 없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짓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바깥으로 집이 올라갔단 말입니다. 머무르는 바가 없이 머물렀다는 얘기죠. 일상생활을 전체 머무르는 바 없이 하고들 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여여하고 그대로 갖추어 가지고 있다' 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주인공의, 그 중심에 의해서 들이고 내는 데 자유스럽다는 얘기입니다.

해양심층수 100%로 만든 청정, 안심 건강소금
MQ해양高미네랄로 가족건강을 지키자!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세트



MQ해양고미네랄은..
- 강원도 고성에서 100% 해양심층수로 탄생한 고미네랄 소금
-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담은 MQ해양고미네랄
- 일반 정제염 대비 마그네슘 380배, 칼슘32배, 칼륨 49배 등 풍부한 미네랄 함유
- 일반 정제염 대비 나트륨이 23% 이상 적은 저나트륨(염도75%) 소금
- 한포(3g)를 물(500ml)에 타서 마시면 경도 1,000이상의 고미네랄 워터로 변신하는 미네랄 워터용 소금

제품구성 MQ해양 고미네랄 스틱 2박스 (31포 x 2박스) + MQ해양 고미네랄 1병

특별보급가 75,000원

엠큐 눈소금 세트



매일매일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필수 미네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엠큐눈소금, 매일 모든 음식에 넣어 먹는 소금을 바꿔 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해양심층수 100%를 사용하고, 순간공중결제염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소금 엠큐눈소금은 요리의 맛을 살려주고 건강을 드립니다. 엠큐눈소금으로 온가족의 맛있는 식사와 건강을 지키세요.

제품구성 고운소금 150g x 2EA + 굵은소금 125g x 1EA = 425g

특별보급가 52,000원

김오곤원장의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침향





세계 3대 향중의 하나로 불리는 그 귀한 침향,
김오곤한의사의 배합기술로 엠큐눈소금과 만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으로 탄생
- 건강을 한번 더 생각하고 만든 미네랄과 침향제품으로 성분과 맛이 입증
- 김오곤한의사의 엄선한 배합 기술을 토대로 탄생한 한방과 과학이 어우러진 제품
- 낮은 염도, 고미네랄 그리고 침향이 한 포 한 포에 들어 있는 제품
-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 깨끗한 미네랄의 참 맛, 침향의 건강한 향과 맛까지 포함한 신개념 제품
- 한 포 (3g)을 물 500mL에 타면 맛있는 고미네랄 침향 워터로 황홀한 변신

제품구성 279g (3g x 93포) / 원재료 : 소금 93% (해양심층수 100%), 침향 7% (인도네시아 수입산)

특별보급가 125,000원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이란?** 해양심층수를 미세한 안개 상태로 쪼개어 공기중에 분사한 후, 열풍을 불어 넣어 수분을 순간적으로 증발시키는 기술로 이렇게 해서 해양심층수의 수분을 제외한 모든 미네랄을 소금에 포함시키고, 눈처럼 아래로 떨러뜨려서 소금을 제조하는 기술

구입처 :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문의 : Tel 1688-9099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현불논단 |

'반야심경' 읽는 가톨릭 신부



정운 스님
前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불교평론' 게재된 L신부의 에세이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스님에게
'반야심경' 봉독해준 이야기를 담아
"도반 함께 한 추억으로 남아" 감동

근자 타인의 종교 무시 사례들 많아
평생 품어온 스님의 종교 존중하고자
'반야심경' 읽어준 신부는 좋은 선례
진정한 종교인 자세가 무언지 성찰을

불자라면, 누구나 아는 〈불교평론〉이라는 책자가 있다. 학술지와 일반 잡지 중간 정도인데, 불교학에 비중을 두고 있어 내용에 무게감이 있다. 계간지인 이 책은 중간 즈음 수십 페이지를 각계각층의 에세이를 담아내고 있다. 올해 여름에 발행된 〈불교평론〉에 의미 깊은 내용이 있어 소개하려고 한다. 바로 L신부가 쓴 '내가 만난 반야심경' 이다.

"2021년, 코로나가 심각하던 무렵이다. 내(L신부)가 머물고 있는 호스피스 병동에 한 노스님이 들어왔다. 스님은 암으로 투병하며 요양병원에 계셨던 분인데, 임종 시기가 되어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 온 것이다. (환자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 병동을 다니는 중에 간호 수녀님이 '저 병실에 스님이 들어오셨다' 고 귀띔을 해주었다. 내가 그 병동으로 들어가니, 스님께서는 의식이 없이 호흡기를 착용하고 누워 계셨다.

죽음을 준비하는 병약한 노년의 모습 그대로였다. 보호자도 없이 생의 마지막을 호흡기에 의지한 채 죽음을 맞이하는 스님께 내가 해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학생 때, 반쯤 외웠던 〈반야심경〉이 기억났다. 스님께 해줄 수 있는 것은 〈반야심경〉을 읽어줘야겠다고 생각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 ' 누구나 한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생과 사의 경계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그였지만, 평온한 침묵으로 느껴지는 것은 그가 수행자답게 보였기 때문이다. 나는 며칠 동안 매일 방문해 의식도 없는 스님께 〈반야심경〉을 읽어드렸다.

그러던 어느 날 병동에 들어가니, 스님이 안 계셨다. 지난밤에 돌아가셔서 보호자가 모시고 갔다는 것이다. '조금만 더 몇 차례 스님께 〈반야심경〉을 읽어드려야 했는데…' 후회스러웠다. 나는 스님의 법명도 모르고 어찌해서 이 병동에 오셨는지 모르지만, 스님께서 수행자로서의 모습만이 각인되어 있다. 스님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도반과 함께 했던 것과 같은 추억으로 남아있다."

1인칭(L신부)으로 원고 내용을 축약한 것이다. 나는 이 글을 읽는 동안 만감이 교차했다. 어쩌다 죽음을 앞둔 스님께서 천주교 암병동에 머물렀고, 이어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가야했는지…. 그 스님의 입적이 미래 곧 나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스님이 입적하신 뒤에 모시고 간 그 보호자가 누군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솔직히 눈치 채신 독자들도 있을 것이다. 평생을 살아온 절집인데, 상좌나 문중의 권속들이 모시고 가지 않았을 수도 있다. 승려는 병원에서의 죽음이 '평생을 수행자' 로서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 으로서 법적 제재를 받는다. 곧 승려의 속가 가족이나 일가친척이 보증하지 않으면, 승려들은 죽어서도 장례 치르는 일이 쉽지 않다. 솔직히 필자는 출가한지 강산이 4번이나 변했고, 형제들과 가까이 지내지 않는데 죽어서야 연락할 상황이다.

필자는 감성팔이하려고 이 글을 작성하는 것만은 아니다. 근자에 자기 종교에 빠져 타인의 종교를 무시하는 이들을 종종 본다. 인간의 심각한 오류다. 이 글을 읽는 순간, 마음이 무거운데도 L신부의 갸륵함이 따스하게 다가왔다. 병동의 환자가 스님이어서 신부가 '환자의 평생 품어온 인생관과 가치관을 존중' 코자 〈반야심경〉을 읽어주었기 때문이다. 과연 나는 똑같은 상황이라면, L신부처럼 할 수 있을까? 아마 필자는 '이번 기회에 부처님 제자되어 극락 가십시오' 라며, 환자에게 실컷 법문할지도 모르는 소인배다.

하여튼 L신부에게 좋은 것을 배웠다. 그의 모습이 어찌보면 진정한 종교인의 표상이라는 생각도 든다. 신부님!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송마나의
시절인연

三伏과 '조주삼전어'

무더운 삼복이 여름 가운데 놓여있는 절기다. 초복 중복을 지난 더위가 밤까지 계속되더니 말복이 지나도 꺾이질 않는다. 하기야 이런 더위가 없으면 곡식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봄에 새싹이 태어나 꽃을 피우고 가을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름의 뜨거운 열기를 견뎌야 한다. 올해는 여느 해보다 장마가 길고 물 폭탄이 쏟아져 햇볕이 더 뜨겁게 내리쬐는지도 모른다.

모든 풀이 꽃을 피우고 모든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자연이다. 세상에 꽃피우지 못할 식물과 열매 맺지 못할 나무가 어디 있으랴. 모두 삼복의 더위를 극복했기 때문이다. 사람도 삼복의 무더위를 이겨내야 한다. 탐욕과 분노와 치정의 삼독(三毒)을 이겨야 한다. 아무리 인간 내면에서 삼독(三毒)이 뜨겁게 들끓어도 진리를 향한 굳건한 마음만 있으면 그것을 이겨내고 진리를 열매 맺을 수 있다.

〈벽암록〉 96장에는 '조주삼전어(趙州三轉語)' 란 법어가 실려 있다. 조주선사가 대중에게 세 가지 전어(轉語)를 말씀하셨다. '전어' 란 사람이 죽어갈 때 선약을 먹여 살려내 듯, 정신적 고통에 빠져 허덕일 때 한 마디 말로 생기를 찾아주는 지혜의 말씀을 일컫는다. 삼복처럼 뜨거운 삼독을 이겨내는 생명의 말씀이다.



그림 · 최주현

조주선사는 "쇠 부처는 용광로를 건너지 말고(金佛不渡爐), 나무 부처는 불 위로 지나지 말고(木佛不渡火), 진흙 부처는 물 위로 건너지 말라(泥佛不渡水). 참된 부처는 마음속에 있다(眞佛內裡坐)"라고 말씀하셨다. 설두화상은 이 세 마디 말씀에 게송을 붙였다.

진흙 부처가 물에 들어가면 풀어지듯, 물에 빠지지 말라고 한다. 남자는 여자에 빠지고, 여자는 남자에 빠진다. 학문이 높고 지식이 빼어난 사람도 예외 없이 치정에 빠지면 헤어날 수 없다.

쇠 부처가 용광로에 들어가면 녹아버리듯, 사람이 탐욕을 품으면 인간성을 상실한 짐승처럼 된다고 한다. 탐욕은 인간을 마구 물어뜯는 사나운 개와 같다. 탐욕을 버려야만 청량한 진리의 바람이 불어온다는 것이다. 나무 부처가 불속에 들어가면 타버리듯, 화내지 말라고 한다. 화를 참지 못해 죄를 짓고, 살인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 마음은 고요해야 한다. 인간의 본성은 물, 불, 흙이 아닌 무(無). 탐진치(貪瞋癡)의 삼독과 분별심마저 없애라는 설법이다.

삼복(三伏)이란 글자는 더위가 극성을 부리는 초복, 중복, 말복에는 사람이 개처럼 엎드려 있으라고 한다. 나도 바싹 엎드려 삼복을 이기리라. 조주선사의 삼전어를 되새기며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삼독을 이겨내리라. 마음속 진여(眞如)가 드러나도록.

〈작가〉

社 說

불교, 싱크탱크 연구소가 시급하다

8월 24일 동국대에서는 상월결사 대학생전법위원회 예비워크숍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9월 5일부터 6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열리는 대학생 전법 워크숍의 사전 점검을 위해 진행됐다.

이날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왜 대학생 전법인가' 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와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조사 통계를 통해 현재 한국불교의 현 주소를 진단했다.

관련 내용을 접하면서 사회 변화에 대한 진단들이 개신교계의 조사 · 통계를 통해 이뤄졌다는 데 만감이 교차했다. 사실 불교계가 이 같은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이 총무원장으로 재직했을 당시, 스님은 총무원 내 불교사회연구소를 설립하고 '한국의 사회 · 정치 및 종교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 를 2012, 2014, 2015년에 걸쳐 진행했다. 당시 발간됐던 연구 조사서는 불교에 대한 대국민 인식의 변화 추이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돼 왔다.

대중과 함께 해야 하는 종교는 사회 어느 분야보다 국민 인식과 여론이 중요하다. 그렇기에 개신교 측에서 5억 원에 달하는 재원을 투여하면서까지 정기적으로 대국민 여론조사를 해오고 있는 것이다.

불교는 최근 대학생 전법을 화두로 세웠다. 그럼에도 불교가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조사한 통계 자료는 전무하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이 종단 전법이 나아갈 방향을 총체적으로 제시해줄 싱크탱크, 종단 종책연구소의 역할이다. 현재 조계종에는 과연 종책연구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있는지에 대해 물음표가 제시할 수 밖에 없다. 지금 종단에는 '실사구시' 적 종책 연구기관이 필요하다.

경연 · 공모 통해 젊은 인재 양성을

최근 한국불교계는 청년 · 대학생 포교가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면서 함께 확대되는 것이 다양한 경연대회 · 공모전이다.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은 9월 1~2일 양일간 제1회 은정전통예술국악경연대회를 동국대 서울캠퍼스 일원에서 개최한다. 경연은 △기악 부문(가야금, 거문고, 아쟁, 해금, 대금, 피리) △성악 부문(판소리, 경서도 민요, 가야금병창, 정가) △타악 부문(사물놀이, 농악, 무속가락) 등으로 나눠 진행되며, 경연을 통해 선발된 최종 우승자(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에게는 100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악경연대회 중엔 최고 수준의 상금이기도 하다. 이는 서양 클래식보다 척박한 한국음악 인재 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유명 출판사인 김영사 김강유 회장이 설립한 (재)여시관은 불교 진흥을 위한 역경 불사와 청소년 · 청년 독후감 공모에 나선다고 한다고 한다.

(재)여시관은 "붓다의 가르침을 정확하고 친절하게 번역 소개한 번역자와 출판사를 시상하고 응원하기 위해 '여시관 불교 번역상' 을 제정했다"면서 제1회 불교 번역상 공모 요강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복한 마음 독후감 대회' 도 연다. 이는 (재)여시관이 제시한 7종의 도서 중 1종을 선택해 독후감을 작성해 보내면 심사 · 선정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행사다.

젊은 인재가 모이기 위해서는 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 이를 가장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경연대회와 공모전이다. 불교가 주도하는 품격 높은 경연대회와 공모전은 해당 분야 인재의 양성이자 미래 불자를 키우는 일이기도 하다. 다양한 경연 · 공모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솔 스님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길과 내가 하나가 된다!"
- 行禪 전문 신발 -
수 행 화
■ 발을 통해 자연이 온몸으로 느껴져 행선에 적합합니다.
■ 천연 지압 효과를 통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 발 볼이 넓어 다른 신발 대비 발가락 움직임이 편합니다.
■ 승복과 일치하는 색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담이 없습니다.

그레이화이트
· 색 상 : 그레이화이트 (밑창 흰색)
그레이블랙 (밑창 검정색)
· 사이즈 : 233~293mm
· 특 징 : 발 볼 부터 뒷굼치까지 제로드롭 형태
밑창 두께 3mm. 맨발에 가까운 베어풋 디자인
특판가 : 45,000원 (무료배송) (사은품 : 무압박 양말 증정)

그레이블랙
Hit 어싱 슈즈 특판가 : 65,000원 (무료배송)
어싱전용 양말 증정 (재고 여부에 따라 무압박 양말 증정)
New
■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 효과
■ 일반인도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기능성 신발
· 소 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적용 캔버스화
· 사이즈 : 225~293mm
· 특 징 : 발바닥으로 땅의 굴곡을 느낄 수 있는 접지기능
일반신발 대비 1/10 수준의 3mm 밑창 두께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일강 엔지니어링(주)

SUNRIVER ENGINEERING

건설감리전문엔지니어링
기업부설연구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138번길 7-1, 3층
Tel 8017-1010 Fax 8017-1011